



www.snuaa.org

# 서울대미주동창회보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News in the USA.

215호 2012년 3월  
서울대 미주 동창회  
1225 W. 190th St. #465  
Gardena CA 90248 USA  
Tel 310-515-7888 Fax 310-515-7883  
e-Mail: snuaausa@yahoo.com



←왼쪽사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오홍조 전 동창회장 부인 에바오, 서영석 동문, 서치원 남가주 동창회장, 차종환 박사, 제영혜 남가주 동창회 전 회장, 최재현 LA 평통회장, 한종철 남가주 동창회 전 회장, 김은중 미주 동창회장 부부, 오연천 총장, 오홍조 미주 동창회 전 회장. 오른쪽 사진 오연천 총장

각합니다. 이 자리에 오신 용기와 결단이 바로 우리 모교의 동료애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Honor and Pride' 를 주제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첫째, Korean으로서의 Pride, 둘째, American으로서의 Honor, 셋째는 서울대인으로서의 Honor입니다. 이 세가지에 동문 여러 분들의 미래가 있고 더욱 건실한 이념생활을 약속할 것입니다."

"사실 20세기 후반의 Pilgrim으로 미국에 오셨을 때 비즈니스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고 견고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동문들 중에는 1년내 돌아오고 보따리를 싸다가 풀었던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16면에 계속·편집주간>

**이 달의 초대석**  
한덕수 전 주미대사·15면

**미주 동창회 2012 Alaska Cruise**  
관객기사 23면

## 오연천 총장 LA방문 특별 강연회

### 'Honor and Pride' 주제로 동문들에 자긍심 "모교 법인화 첫 총장으로 최선 다할 것" 다짐

모교 오연천 총장이 남가주 동창회와 남가주 발전위원회 초청으로 지난 3월 3일 LA를 방문해 동문들을 대상으로 '특별 강연회'를 가졌다. 다운타운 Sheraton Hotel에서 진행된 특별 강연회에는 빈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은 동문들이 참석해 경청했다. 이날 행사는 남가주 동창회 김성수(사회과학대 84) 총부

국장의 사회로 개회사·환영사·내빈소개·만찬·축가·강연·질 의응답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김성수 총무국장은 "남가주 외대·치대 동문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위해 일찍 병원을 문을 닫는 바람에 동포 환자들 불만이 말이 아니라 뉴스가 보도됐다"고 조크해 동문들의 웃음을 자아냈다. 서치원(공대 69) 남가주 동창

회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모교가 거래의 대학에서 세계의 대학으로 진입하기 위해 다채로운 교육을 개발해서 세계 속에 함께 한다는 자긍심을 가지도록 오연천 총장님을 모셨다. 모교 법인화의 첫 총장님으로서의 활약을 동문 모두가 크게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종철 남가주 발전위원장은 "엇그제만 해도 남가주 동창

회장으로 목에 힘 좀 주었으나 회장 그만두고 나니 영 아니었다. 그런데 마스크로부터 이렇게 카메라 프레시를 많이 받아보는 난생 처음으로 총장님 덕분이다. 아무쪼록 총장님께 건강 주시어 모교 발전에 큰 일을 이루도록 기원한다"고 유머러스하게 말했다.

특별 강연에 나선 오연천 총장은 'Honor and Pride'를 주제로 강연에 들어갔다. 다음은 이날 오 총장의 강연 내용을 발췌한 것이다. "동문님들이 이 자리에 오시는 데는 대략 30여분 이상 썩 걸렸을 것입니다. 바쁘신 업무에도 이 자리에 참석을 결정하신 자체가 소중한 것이라고 생

NON-PROFIT  
US POSTAGE PAID  
GARDENA, CA  
PERMIT No. 177



## 황병준 동문 제54회 그라미상 최고 기술상 수상

음반 엔지니어인 황병준(사운드미러 코리아 대표) 동문이 지난 2월 13일 제54회 그라미 시상식에서 최고 기술상을 받았다. 한국인이 이 부문에서 그라미상을 받은 것은 그가 처음이다.

황병준 대표는 미국 작곡가 로버트 알드리지 (Robert Aldridge)의 오페라 '엘머 갠트리(Elmer Gantry)'를 담은 음반(낙소스)으로 제54회 그라미 시상식에서 클래식 부문 최고 기술상(Best Engineered

←제54회 그라미상 시상식에서 클래식 앨범 최고 기술상을 수상한 황병준(사운드미러 코리아 대표·왼쪽) 동문이 레드 카펫에 올랐다. 황 동문 오른쪽은 엔지니어로 참여한 존 뉴튼, 그 옆은 마스터링 엔지니어 제시 트루스.

Album, Classical)을 받았다. 황 대표는 "전 세계 최고의 음악인과 엔지니어, 프로듀서가 모이는 자리에서 상을 받아 매우 영광이다. 음반 엔지니어로 활동한 지 20년이 다 돼 가는데 그 시간과 활동에 대해 보상을 받은 느낌"이라며 소감을 밝혔다.

이 음반에는 밀워키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플로렌타인 오페라 코러스가 참여했다. 지휘는 윌리엄 보스가 맡았다.

과거 기독교 집안에서 자란 황 동문은 가족들과 함께 집에서 찬송가를 불렀고 용돈만 생기면 음악 테이프를 샀다. 베토

벤 교향곡 5번 '운명'을 밤새 듣기도 했다.

모교 공대 전기공학과에 입학한 그는 석사 학위를 마치고 미국으로 건너왔다.

뉴욕에 있는 한 오디오 연구소에 일하다가 1997년 보스턴 버클리 음대에서 음악 프로덕션과 엔지니어링을 공부하기 시작했다. 이런 시절부터 품어왔던 음악에 대한 열정이 다시 터져나온 것이었다.

버클리 음대를 졸업한 후 미국 보스턴의 음향 회사 '사운드미러'에 취직했다. 그라미상을 열 개나 넘게 수상한 '사운드의 명가'였다.

황 대표는 몇 달간 녹음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샌드위치 심부름을 도맡아 했다. 그러다 사장이 "현장 녹음 가는데 너도 같이 갈래?"라고 말했을 때 화장실에서 몰래 눈물을 흘리기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2면에 계속>

**특별기고** 임진년 3.1절/ 매년 3월 생각나는 스코필드 박사/ 나눔의 집 3.1절 ..... 6~8면

'미주 동창회보'는 동문들의 정성어린 희비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희비 납부 안내는 22면)



서울대병원 뉴욕사무소 개소

### LA에서 미국내서 두번째로 문 열어

#### 품격높은 의료서비스

모교 서울대학교 병원이 뉴욕 지역 한인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지난 2월 맨해튼에 처음으로 사무소를 개소하고, 이를 기념하는 건강 심포지엄을 2월 27일 오후 인터컨티넨탈 뉴욕 바클레이에서 개최했다.

행사에 참석한 정희원 병원장은 "세계적으로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는 서울대 병원 의료서비스가 국제화되고, 성장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희원 병원장은 이어 "서울대학교의 우수한 의료서비스를 미국에 알리고 미주 동포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대 병원 뉴욕 사무소는 ▶연령·병력·가족력 등을 고려한 맞춤형 건강검진 프로그램 상담 및 예약 ▶각종 질병 진료·치료 과정 및 비용 상담 ▶건강 관련 자료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특히 LA사무소와 한국 서울대 병원의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 전문의 의진이 필요한 건강상담이나 치료비 등의 문의는 24시간

←서울대 병원 뉴욕 사무소 개소 심포지엄에 참석한 관계자들과 한인 인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양한광 홍보실장, 행사 사회를 맡았던 미셸 박 NY1 앵커, 김영목 뉴욕 총영사, 정희원 병원장, 미주재단 이만택 이사장, 이정렬 기조실장.

내에 회신할 방침이다.

나이가 매년 실시되는 연례 건강 심포지엄 개최를 비롯해 동포 사회 진출 의료인들과 협력을 통한 한·미 의료인 교류 확대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정희원 병원장은 "한국인에게 많이 발병하는 위암이나 유방암·간질환, 간·심장·폐장 이식 등은 서울대 병원이 국제수준보다 우수한 수준이라 뉴욕지역 동포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대 병원은 지난 2008년 11월 LA에 미주지역 첫 사무소를 개소했으며, 지난 3년간 LA사무소를 통해 약 3천 명이 건강검진 등 진료 및 질병 치료를 받았다.

2월 27일 열린 건강 심포지엄에는 한인 의료인과 모교 동문 등 한인 인사 100여 명이 참석해 서울대 병원의 뉴욕 진출을 축하해주었다.

서울대 병원 뉴욕 사무소 위치는 다음과 같다.  
Manhattan 420 REXINGTON AVE.  
대표전화 646-937-3737.\*\*\*

### 모교 올해 등록금 5% 인하하기로

#### 인하율 대학중 최고수준

모교 등록금 심의위원회(등심위)가 올해 등록금을 5% 인하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대학본부에서 공개 모집한 학생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1월 등심위를 열어 이같이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모교 등심위에는 대학본부 측

인사 3명과 학생위원 3명 외에 본부와 학생 측이 각각 추천한 변호사 2명, 양측이 합의해 선정한 공인회계사 1명이 참여했다고 대학본부는 설명했다.

이날 등심위에서 대학본부는 동결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의를 제기하는 학생들과 협의를 거쳐 2012학년도 학부 명목 등록금을 지난 해보

다 5% 인하하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단 대학원 등록금은 동결하기로 합의했다.

이 안은 재경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향후 법인 이사회의 최종 의결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대학본부 관계자는 "법인화 원년인 만큼 사회적 책무성을 위해 여타 사립대보다 등록금을 더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학생 측 의견을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1면에서 계속>

그는 99년 귀국, 사운드 미러 한국지사 설립했다. 현재 사운드 미러 지사는 전 세계에 한국밖에 없다. 이후 그는 가요·국악·재즈·영화 OST·클래식에 이르기까지 장르를 가리지 않고 음반작업에 참여했다. 안드레아 보첼리,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 음반 작업에도 참여했다. 기타리스트 이병우 등과 작업했고 봉준호 감독의 영화 '마더' OST도 녹음했다.

황 대표는 '돈이 안된다'며 남들이 쳐다보지 않았던 국악 등에 관심을 가졌다. 지난 해에는 전남 순천 송광사의 법고 연주 등을 담은 '송광사 새벽

←황병준 등문이 그레미 상을 수상한 'Elmer Gantry'

에블' 앨범을 세상에 내놨다. 직접 절에 머물면서 녹음에 반대하는 주지 스님을 설득했다. 녹음을 진행한 한달여 내내 송광사에서 먹고 잤다. 그는 "한국의 소리를 남기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

SACD(슈퍼오디오 CD)에 담긴 사찰의 소리는 송광사에 가지 않더라도 5.1채널로 즐길 수 있다.

황 대표는 실황연주 녹음에 있어 국내에서 독보적인 존재다. 피아니스트 임동창의 새 앨범 '1300년 전의 사랑이야기-달하'도 지난 해 7월 진주 경남 문화 예술회관에서 열린 실황 공연을 그가 녹음한 것이다.

그는 "더 노력해서 국악 음반으로 그레미상을 받고 싶다"고 의지를 다졌다.\*\*\*

### 파란 눈의 체리아 동문

## "나는 한국인, 투표 꼭 해야죠!"



학생 부부였던 부모를 따라 처음 한국에 갔다가 한국을 좋아하게 되면서 아예 국적을 바꿨다. 한국명 '체리아'는 원래 이름이었던 '리아'에 가장 어울리는 성(姓)을 붙여 만들었다고 한다.

서울대와 런던대·피츠버그 대학에서 학부시절을 보낸 체 동문은 대학원부터는 한국에 눌러앉았다. 서울대에서 인류학 석사를 마치고 서울대 국제대학원 박사과정도 수료했다.

전공은 한국 현대사다. 2010년에는 서울대 대학원 동창인 한국 남성과 결혼도 했다.

서울대와 단국대 등에서 강의하며 논문을 쓰고 있던 체 동문이 미국행을 시행한 것은 지난해 8월이다. 한국 국제교류재단에서 해외에 파견하는 글로벌 인턴에 선발돼 워싱턴의 저명 싱크탱크인 우드로 윌슨 센터에서 6개월간 연구원으로 있게 된 것이다.

현재도 계속해서 논문을 쓰고 있는데 논문 주제는 '박정희 정권부터 민중운동 기간까지 (1970-80년대)의 한국인의 대미 인식 변화'다.

현재 볼티모어 인근에 사는 체 동문은 한국 국적을 취득한 후 선거 때마다 빠짐없이 투표에 참가해 왔다고 한다.

그리고 아무런 화염이 파파도를 4월 총선과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반드시 투표에 참여하겠다고 한다.

체리아 동문은 "선거에 참여하는 것은 국민의 당연한 의무"라며 "제가 한국 시민으로 국가로부터 많은 걸 받은 만큼 투표하는 것은 국가에 대한 작은 기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한국 영사관에 들어가니 직원 분이 두말없이 바로 비자 창구로 안내해주시네요. 재외국민 등록하러 왔는데 말이죠."

최근 워싱턴 DC 한국 총영사관 내에 설치된 워싱턴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체리아 동문(35·사진)이 유권자 등록서류를 붙박내밀자 접수 직원들은 처음엔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전혀 한국인 같지 않은 외모의 이색적인 유권자였기 때문이다.

"다른 유권자가 없어 빨리 국의 부재자 신고를 할 수 있었어요. 등록 후 30분 만에 이메일이 왔어요. 국의 부재자 접수중과 함께 선거 일정과 투표 장소 등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었습

니다."

워싱턴 DC 선관위의 화제가 된 체리아 동문의 '원적'은 폴란드계의 영국인. 하지만 2003년 한국으로 귀화하면서 엄연히 대한민국 국민이 됐다.

체리아 동문이 한국으로 귀화하게 된 사연은 좀 복잡하다. 폴란드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을 러시아·영국 등에서 보낸 체 동문은 고교생이던 15여년 전,

### 시사만평

만년 소년 김홍묵 (영문 85)

관악 연대장에 취임

#### 박준창

(인문대 79·번호사)



동문들 준비한 전가를 부르며 흥성 서약 채도

\*고침= 지난 2월호 '시사만평' 그림 중 김홍묵 동문님의 성이 '이'로 잘못 표기된 점 사과드립니다.

<p><b>차 례</b></p> <p>3.참과 위/ 1%부자를 원망치 않는 사회/ 그래도 보수는 아름답다</p> <p>4.&lt;특집 암&gt;면역을 증강시키는 실천요법</p> <p>5.&lt;특집 암&gt;세계 최고 암병원 봉사자, 그들은 암 이긴 생존자들</p> <p>6-8.&lt;3.1절 특별기고&gt;매년 3월 생각나는</p>	<p>스코필드 박사/ 임진년에 맞이하는 3.1절/ 태극기와 정채성/ 나눔의 집에서 보낸 특별한 3.1절</p> <p>9-11. 미주 동문 동정</p> <p>12.&lt;새 기획, 한시감상&gt;이태백의 정아사</p> <p>13.한반도의 비극/ 탈북난민 구출 네트워크 구성</p> <p>14. 범창일화&lt;7&gt;양심부재, 악랄한 사</p>	<p>기행각/ 동문 시 감상(조명관계)</p> <p>15.이달의 초대석&lt;&gt;한덕수 전 주미대사</p> <p>16.오연천 총장 남가주 방문 특별 강연</p> <p>&lt;1면에서 계속&gt;</p> <p>17-18. 각 지역 동창회 소식</p> <p>19.인문학&lt;&gt;허리가 아파요? 조심맞아/ 핵무기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p> <p>20.케냐 의료선교를 다녀와서/ 피렌체꽃</p>	<p>의 성모 대성당 품은 자봉순</p> <p>21. 고국 동문 동정</p> <p>22-23. 동창회비·후원회비 명목/ 미주 동창회 Alaska Cruise</p> <p>24-29. 동문 입소록</p> <p>30-32. 동창회 각 지부 회장단 명목/ 편집 후기/ 광고</p>
---------------------------------------------------------------------------------------------------------------------------------------------------------------------------------------------	-------------------------------------------------------------------------------------------------------------------------------------------------------------------------------------------------	---------------------------------------------------------------------------------------------------------------------------------------------------------------------------------------------------------------------------------	-----------------------------------------------------------------------------------------------------------------------------------------------------------

<시국 칼럼>

참(讖)과 위(緯)



김홍묵(문리대 66)

중국 전한(前漢) 말 평제(平帝)의 섭정이었던 안한공(安漢公) 왕망(王莽 BC45-AD23)은 권도술수의 대가였다. 평제를 독살하고 두 살난 황족 유영을 옹립한 뒤 '안한공 망이 황제가 되라(安漢公莽爲皇帝)'는 붉은 글씨 흰 돌을 만들어 하늘이 천명을 내렸다고 참언(讖言)을 퍼뜨렸다.

3년 만에 유영을 몰아내고 스스로 황제가 됐다. 신(新)나라를 건국(AD8-23)한 것이다.

유방의 9세손 유수(劉秀 BC6-AD57)는 '요금이 덕을 닦아 천자가 된다(卯金修德爲天子)'는 위서(緯書)를 내걸고 기병에 마찰내 왕망을 타도했다. '요금'은 유(劉)자를 구성하는 파자(破字)의 일부다. 왕망의 신황조를 15년 만에 무너뜨리고 한조(漢朝)를 재건한 유수가 바로 후한(後漢)의 초대 황제 광무제(光武帝)다.

'참위(讖緯)'란 미래의 길흉화복의 조짐이나 그에 관한 예언을 일컫는 말이다. 원래 '참'은 미신적 은어(隱語), '위'는 유가(儒家) 경전의 해석에 바탕을 두고 미래를 예측하는 방편으로 진(秦)나라 때부터 쓰였다. 그러다가 두 가지가 권력투쟁에 활용되면서 참위로 합쳐졌다. 일식·월식·지진 따위로 사람의 운명을 예측하는 학설을 참위학이라 일컫는다.

당시 참위라는 미신적 행위가 사람들을 현혹할 수 있었던 것은 정

치 불안, 관료들의 부정부패, 과도한 세금, 부의 편중 등으로 사회가 불안해지고 민중봉기가 곳곳에서 일어나 백성들의 불안과 불만이 누적돼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혼란기에 권력을 장악하려면 먼저 백성들에게 미래를 보장해 주겠다는 참위가 가장 효과적이었다.

신나라를 세운 왕망은 유(劉)자를 싫어했다. 당시 금도(金刀)라는 화폐가 있었는데, '금'자와 '도'자가 '劉'자를 구성한다 해 이름을 화천(貨泉)으로 바꾸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백수진인(白水真人)이 한실(漢室)을 복원한다'는 말을 퍼뜨렸다. '백수'를 합치면 천(泉)자가 되고 유수가 살던 지방의 이름이 백수였다고 한다. 이른바 측자술(測字術)이다. (금강의 '한자의역실' 참조.)

왕망은 참위로 황제가 됐으나 그도 참위로 멸망했다. 그래서 광무제 유수는 정권을 잡은 후 참위를 금지, 그 후로 역대 정권에서 철저히 하게 단속해 더이상 유행되지 않았지만 측자술로 이름이 바뀌어 오늘 날까지 내려오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고려말 공민왕(恭愍王1330-1374) 때 한양에 오았나무가 무성해지자 어느 술사(術師)가 '이(李)가 성을 가진 사람이 한양에서 크게 일어날 징조'라고 예언했다.

왕은 대정실책해 벌리사(伐李使: 오았나무를 베는 일꾼) 수십 명을 보내 한양의 오았나무를 모조리 베어냈다고 한다.

'주초위왕(走肖爲王 조(趙)씨가 왕이 된다)'는 조선조 성종(成宗 1469-1494) 때 사림파(士林派)의 영수 경암(靜庵) 조광조(趙光祖 1482-1519)를 탄핵한 훈구파(勳舊派)의 문자참(文字讖)이다.

남근(南荏) 심정(沈貞) 등이 대궐 안의 나무잎에 끌로 주초위왕 참문을 새겨 빌레가 뜯어먹게 해 이를 왕에게 참소했다고 한다. 급진적 개혁을 서두르던 정암은 결국 유배지에서 생을 마감했다.

세조(世祖) 3년 약관의 나이로 무과에 장원급제한 남이(南怡

'1%부자'를 원망치 않는 사회



장용성(삼대 85) Rochester Univ. 교수

지난 해 10월 국제 금융자본과 신자유주의에 반대하는 시위가 미국 경제의 중심인 뉴욕 월가에서 전개됐다. "상위 1% 부자들의 탐욕 때문에 나머지 99%가 정당한 몫을 받지 못하고 고통받고 있다"는 주장은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라 하면 빈부격차가 연상된다. 실제로 미국 가계의 재산 실태 조사에 의하면 1996년 기준으로 상위 5%가 전체 재산의 약 50%, 상위 1% 부자는 전체 재산의 약 20%를 소유하고 있다. 과연 자본주의가 이처럼 부(富)의 집중을 심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주인인일까?

시장경제와 경쟁은 필연적으로 결과의 불평등을 낳는다. 그러나 냉정하게 평가하면 자본주의 시장경제 만큼 인류의 삶을 단기간에 비약적으로 개선시킨 체제도 없었다.

지난 300년 동안 세계 최고 부유 국가는 18세기 네덜란드, 19세기 영국, 20세기 미국으로 바뀌어 왔다. 18세기 네덜란드의 1인당 소득의 연(年)평균 경제성장률은 거의

영(0)에 가깝다. 19세기 영국의 성장률은 약 1%, 20세기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약 2.5%이다. 이처럼 오랜 세월 인류의 평균적인 삶은 사실상 거의 제자리걸음이었다.

19세기 이후 비로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수준의 경제성장이 가능해졌는데, 봉건적 신분제의 타파와 함께 등장한 사유재산권의 확립과 시장경제가 낳은 기술혁신이 성장의 원동력이라고 경제학자들은 평한다.

비행기를 발명한 라이트 형제의 첫 비행시간은 1분 45초에 불과했다. 그러나 라이트 형제가 눈을 감기 전에 비행기는 수십명의 승객을 싣고 대서양을 횡단했다.

시장경제 체제에서 불평등이 계속 악화될 것만도 아니다. 경제학자들은 소득의 불평등 측정법으로 지니계수(Gini Index)를 사용한다. 소득이 불평등할수록 이 지수는 커진다. 예로 모든 사람의 소득이 동일하면 0, 한 사람에게 모든 소득이 집중되어 있으면 1이다.

지난 한 세기 동안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대표하는 미국에서 지니계수는 비록 느리지만 점진적으로 개선돼 왔다. 다만 1980년대 이후 지니 계수가 악화되고 있다. 여러 원인이 있지만 1980년대 이후 인터넷 정보통신 혁명 등 급속한 발명품이 속된 노동자 내지 교육수준이 높은 노동자에 유리한 형태로 진행된 것이 주된 이유다.

지난 2000년 기준 한국의 가계소득 분포의 지니계수는 0.28로 미국의 가계소득 지니계수 0.35보다 양호하다. 단지 소득의 불평등 정도만 놓고 보면 우리가 미국보다 더 평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

서 상위 1%에 대한 불만이 더 크게 느껴지는 건 왜일까? 미국의 경우 10대 부자 중 7명이 자수성가한 1세대고, 3명은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았다.

반면 우리나라는 10대 부자 중 7명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았고 3명이 자수성가한 1세대다. 소득만 놓고 보면 아이들 가구나 스포츠 스타들도 1%지만 많은 젊은이들이 그들을 원망하지 않는다.

소득의 불평등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치열한 경쟁을 통해 부와 명예를 얻는 사례를 보면 오히려 그곳에 엄청난 재능과 노력이 모여든다.

공정한 기회가 약속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사후적 결과의 불평등에 대한 위협을 감수하고라도 경쟁에 뛰어돌고 싶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열심히 노력해도 잘 살 수 없다 면 대다수의 구성원들이 불만을 갖게 되고 새로운 체제를 모색한다. 해보나 마나 한 게임이라면 누군들 참여하고 싶겠는가?

기회를 보장하고 경쟁에서 낙오한 사람들을 보살피는 것은 정부의 몫이다. 북유럽 복지국가의 사람들을 만나 보면 어느 정도 정부에 대한 신뢰가 있다는 느낌이다.

부자의 경우 국가가 일정 수준의 삶을 보장해 줄 거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재산을 기어코 고스란히 자식들에게 물려주려는 생각을 떨린다. 지난한 사람들도 비록 자신은 성공 못했지만 자식들에게는 최선의 기회가 주어질 거라는 믿음이 있다.

정부가 공정한 게임을 지켜주고 세금을 요긴하게 잘 사용할 것이라는 신뢰를 준다면 복지 정책에 대한 합의가 훨씬 수월하다.

하지만 정부가 미흡하다면 부자는 세금을 내려고 할까? 그렇지 않으면 사회적 신뢰가 무너지고 사교가 원망스럽다.\*\*\*

"그래도 보수는 아름답다"



방준ぜん(의대 63)

요즘처럼 '보수'라는 단어가 천덕꾸러기가 된 적은 없을 것이다. 적어도 조국 대한민국에서나 민주한인사회에서는.

지하에 묻혀 있을 현대 보수주의 창시자 존 버크는 에드먼드 버크(Edmund Burke 1729-1797)가 하도 기가 차서 무덤에서 벌떡 일어서서 나올지 모르겠다.

인류가 진화돼 이제는 신종 '손가락족(Finger Species)'이 출현한 자가 얼마나 되는가?

길은 가다가도, 식당에 가도, 어디를 가도 만나는 신종 인간군들

이다. 모든 생활-대화도, 독서도, 정보도- 그 모든 것이 두 엄지 손가락 움직임으로 해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세월 속에 산다. 머리를 쓸 필요도 없고 우리같은 구닥다리처럼 암기는 할 필요조차 없다. 그것 또한 손바닥 안의 소위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다 해결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지구촌 어디에서나 출몰하여 이집트 무바라크 정권 퇴출에도 혁혁한 공을 세우더니 IT강국 한국이 절 세라 지난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그 위력을 만방에 알렸다.

한국 정치사에 새 장을 연 것이냐. 6% 정도의 지명도가 있던 어떤 시민단체(그들은 협찬 인생이었다)가 하루 아침에 정치권의 스타로 등장하고 뽕수룩했던 수염이 나 구멍난 구두는 온 데 간 데 없고, 말쑥한 정장차림으로 의상 코드가 있는지 번신의 미술사처럼 언론에 부각되고 있다.

기존 정당-60년 역사를 갖고 있던 화들짝 놀라고 소위 정당

중 보수 정당이라는 어느 정당이 열의는 되기 싫었더니 이름 석자 바꾸어야 식은 죽 먹기가 된 한국 정당사지만 한꺼번에, 곧 당 노선에서 '보수'라는 단어를 썩 폐자는 소리가 들렸다.

미주 한인사회는 예전에도, 지금도 그렇지만 한국의 정치-문화는든 면에서 변수에 지나지 않아 어느새 소위 '보수'라는 단어가 자체도 입 밖에 내기 싫어 한다.

얼마 전 보수 지향적이라는 단체 모임에서도 "우리가 보수 지향적 일지라도 그 단어 사용 자체는 좀 뭐하지 않나?"는 어느 인사의 말이 마이크를 통해 들리는 것이 나는 분노와 허탈감을 동시에 맛보았다. '사나이 참 잘 탄다'고 긴 한숨이나 쉬었다.

한국에서와 서구에서의 이념 차이는 확연하다. 한국에는 특수 사정이 있기 때문이다. 그 특수 사정이란 북쪽에 버티고 있는 북한이다. 1948년 대한민국 건국부터니까 60여년이 된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다. 진보, 진보, 하는 데 이념사상 분류에 진보주의만 없다. 있는 것이 학자들의 주장이다. 보수주의, 자유주의, 그리고 공산사회

주의로 분류하고 있다. 진보주의란 보수주의가 태동한 후 나타난 허구적 공산사회주의자들이 그들의 이념에 덧칠한 것이라 부당하고 있다.

그렇다면 '보수'라는 단어가 파기의 대상이 되고 심지어는 천덕꾸러기 신세가 되는데 왜 분개하고 있는가.

한반도의 분단은, 살기는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죽도록 북한에 연연하는 종북 세력들의 날뻐에 겁을 먹고 비겁해진 보수들이 더 알 길이 때문이다. 1991년 공산주의 종주국 소련이 붕괴된 후 지구상 어디에 북한과 같은 집단이 있는가. 그런데 이 실패한 공산사회주의의 이른 이념이 한국에는 왜 창월하는지, 그리고 자기 조국을 배반하는 그런 집단으로 행동하는 나라가 어디에 있는가.

'보수'란 사전적 의미로 우리가 흔히 쓰는 '은근지신(溫故之新)'이다. 환언하면 '옛 것을 아끼고 연구하여 새 지식이나 경험을 차곡 차곡 쌓아가는 삶의 철학'이다. 교양이 있고 윗 어른을 공경하여 쟁쟁하지 않으며 있는 등, 없는 것이 학자들의 주장이다. 보수주의, 자유주의, 그리고 공산사회

편서에 오른 그는 정치적 모함과 참소로 구할당하고 말았다.

참위는 종말론 같은 예언이나 정감록같은 비기(秘記)·비경(秘訣)로 많은 사람들을 불안과 미혹에 빠뜨리는 경우가 많다. 서동요 같은 참요(讖語), 지록위마(指鹿爲馬)같은 요언(妖言)처럼 개인의 목적 달성을 위한 경우도 있다.

지난 1992년 15대 대통령 선거 때 고 정주영의 국민의 당 진영에서 "마침내 정도령이 현실했다"고 퍼뜨린 일도 있다.

'사불급설(事不及舌)'이라는 말이 있다. 네 마디 말이 뜨는 때의 속도도 혀로 내뱉는 말을 따라갈 수 없다는 말이다. 또한 한번 일질러진 물은 다시 그릇에 담을 수 없듯이, 한 번 던진 말은 도로 입속에 넣을 수도, 없던 일로 할 수도 없다. 책임은 화자(話者)가 져야 한다는 말이다.

바야흐로 선거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다. 시대정신은 기성 정치인이나 기존의 정치 시스템에 대한 강한 거부감 쪽으로 흐르고 있다.

그 와중에 정치판은 자성(自省)의 빛보다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으로 생존경쟁을 벌이고 있다. 과연 어떤 힘으로 국민을 현혹할지, 국민은 또 무슨 요설에 부화뇌동하는 우중(愚衆)으로 전락할지... 혹룡의 헤엄 그런 불상사는 없을지? \*\*\*

\*동문 재현들이 기고해주시는 모든 글들은 본 동창회보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특집<암> 황성주 박사 칼럼<2>

# 면역을 증강시키는 실천요법

## 식사혁명이 암을 이긴다

면역력은 밥상에서 좌우됩니다.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몸의 면역 상태가 좋아지기도 나빠지기도 합니다. 면역요법의 핵심은 영양 면역요법입니다.

▶**영양 면역요법**= 암환자는 시키지 않아도 식이요법을 시작합니다. 함양제 투여로 체력이 떨어진 환자나 식욕이 없는 말기 암환자를 제외하고 일반 식하는 암환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암에 걸리면 모두 생채식이나 자연식 위주의 식생활로 식사혁명을 일으킵니다. 어려운 일이 다치면 소식이나 금식하듯 암에 걸리면 본능적으로 치료 식인 생채식으로 전환합니다.

서울대 출판부에서 출판된 '종양학'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1982년 미 국립 암연구소의 '식이 요인과 암'에 관한 연구위원회는 그동안 연구된 미세 영양소 및 화학적 예방 요법에 관한 역학연구로 β-카로틴이나 셀레늄, 비타민 C·E와 같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 음식의 섭취와 암 발생은 서로 역상관관계로 보고했다. 구체적으로 비타민 B1나 카로티노이드 혹은 다른 영양소를 풍부히 함유하는 야채나 과일을 많이 섭취한 군에서 폐암 발생이 낮았다. 이는 전향적 코호트 및 환자-대조군 연구 결과가 나왔다.

과일이나 채소의 섭취가 구강암·인두암·후두암·식도암·위암·대장암·방광암·자궁경부암의 발생 위험을 감소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된 바 있다.

콩 같은 두류 섭취가 암 위험을 줄인다는 역학적 증거는 비록 제한돼 있지만, 두류 소비가 높은 아시아에서 유방암과 대장암 발생이 낮은 점을 감안하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콩에는 항암 작용을 하는 단백질 분해효소 저해제, 파이토스테롤, 이소플라본 같은 물질이 다량 함유돼 있다.

인체에서 칼슘은 대장 상피세포의 과도한 증식과 분화를 억

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역학적 연구 결과는 칼슘 섭취가 대장암 혹은 직장결장암의 위험을 감소시켜 준다고 보고하고 있다. 대장암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임상 실험 결과도 칼슘 보조제의 투여가 대장세포의 증식을 현저히 감소시키거나 대장암 전구 증상인 선종 종의 발생을 억제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전문의가 가르쳐줘야 암 예방을 위한 식생활 등 암환자 건강관리를 연구하는 대한 임상 영양학회**가 2005년 국내에서 창립했습니다.

초대 회장 백남선 건국대 병원장(전 원자력병원장)은 "암환자가 뭘 먹으면 좋느냐고 물으면 대부분의 의사가 그런 것은 모른다고 답한다. 이제 암환자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재발을 막고 예방할 수 있는지 가르쳐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런 암환자 건강관리 가이드 라인 연구와 개발을 일종의 '암 치료 애프터 서비스'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백 회장은 "현재 국내 암 투병 환자의 50만 명이니깐 그들 가족까지 합하면 약 200만 명이 암으로 고통받고 있고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수십조 원"이라며 "의사들이 그들에게 과학적이고 경제적인 식이요법과 암 치료 보완 요법 등을 제시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특히 암 예방을 위한 올바른 섭생을 강조했는데 이유는 음식이 암 발생에 미치는 비율이 35%로, 흡연의 30%보다 더 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선진국도 40-50년 전에는 위암이 제일 많았는데 냉장

고가 보급, 짜고 절인 음식을 덜 섭취하자 위암도 확 줄었다. 요즘은 육류 섭취가 늘어 대장암·유방암·전립선암 등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선한 과일과 야채**= 그러면 어떤 식품이 좋을까요? 암 예방 식이의 기본은 신선한 과일과 야채, 섬유질이 풍부한 식품을 가능한 한 많이 먹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투병 중의 부인에게는 어떻게 했느냐?"는 질문에 "암 예방과 항산화 효과가 있는 비타민을 매일 먹고, 소화기내 발암물질을 흡착해 배출하는 섬유질 음식을 많이 먹게 했다"고 대답했습니다.

세계 많은 나라에서 이미 다양한 영양 면역요법 프로그램을 암 치료에 도입하고 있습니다.

영국 브리스톨 암센터의 BHC 요법, 멕시코 오아시스 병원의 레트밀 요법, 멕시코 메르디안 병원의 거슨 요법, 캐나다 호퍼 박사 병원의 영양요법 등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도표참조> 여러 병원에서 처방하는 방법과 명칭은 다르지만, 기반은 생채식과 항산화 물질 등의 파이토케미컬 성분을 충분히 섭취해 체내 항산화와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데 있습니다.

암 치료에서 영양 면역요법은 단순히 환자의 영양을 관리하기 위한 식이요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산화 작용이 강한 비타민·미네랄과 심심한 야채나 과일에 함유돼 있는 파이토케미컬 등의 천연 성분을 충분히 섭취해 암의 치료를 돕고 재발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그 효과는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암 재발 예방과 최상의 신체를 유지시키고, 둘째 암 치료에 따른 체력과 면역력 저하를 방지하며, 셋째는 암환자의 영양 결핍과 악액질로 발전되는 것을 예방하고, 넷째 암 치료에 따른 부작용을 경감시키며, 다섯째 암환자의 빠른 회복을 돕고 지속적으로 면역을 증진시켜 주는 것입니다.

## 운동혁명이 암을 이긴다

운동 면역요법도 암 치료에 따른 체력과 면역력 저하를 방지하며, 항암 유전자를 활성화하고, 우울증과 좌절감을 극복하도록 돕는 한편 암 치료에 따른 부작용을 경감시키는 좋은 방법입니다.

▶**니쉬 요법**= 과거 SK그룹 최중현 회장을 치료하면서 정보를 수집코자 암 백신으로 유명한 도쿄의 하수미 국제연구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일본 제약 의학계에서 니쉬 요법으로 유명한 와타나베 박사를 병원에서 만났습니다.

니쉬 요법은 몸이 나타나는 이상 증세를 병으로 보지 않고 몸이 정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자연 치유과정으로 봅니다. 몸에 나타나는 증상을 막기보다는 체력 증진에 중점을 둡니다. 병의 증상은 신체를 구하려는 자연 치유력의 작용이지 절대 조소동을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입니다. 와타나베 박사는 자연식과 운



↑ 황성주 박사가 암 환자들을 위해 마련한 특별 클리닉 행사에서 암의 예방과 치료, 재발 방지에 관한 강연을 하고 있다.

동 요법만으로 암을 치료하는데, 그는 80% 정도의 치료율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치료법에서 자연식(2끼식, 현미잡곡식, 숙면 제거) 자체는 별로 색다른 점이 없었지만, 운동을 통한 신체 활성화 요법은 암 치료에 대한 생각의 틀을 바꾸는 계기가 될 만큼 독특했습니다.

당시 충격은 대단했습니다. 와타나베 박사가 모든 암환자에게 정기적으로 시키는 신체 활성화와 방석은 바른 자세(딱딱한 침대, 나무베개 이용), 운동 요법(금방어 운동, 모세혈관 운동 등), 풍욕(피부 호흡), 온냉대법이었습니다. 그는 확신에 차서 신체 활성화 요법의 과학적 논리와 탁월한 임상적용 결과를 이야기했습니다. 신체 활성화가 암 치료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마음속에 깊이 새긴 경험이었습니다.

▶**니쉬 요법의 실천**= 이 요법은 첫째, 단식으로 체내 노폐물 배설, 둘째, 생야채·해조류·생수·현미 오곡밥을 섭취, 셋째, 등글고 낮은 나무베개를 베고 딱딱한 침대 생활로 굽은 몸을 바로잡습니다. 넷째, 혈액순환을 돕는 모관운동, 장의 운동운동을 돕는 봉어운동, 부인병에 적합한 개구리 운동, 등을 바르게 하는 등배운동 등을 실천합니다. 다섯째, 옷을 얇게 입고 음식은 신선한 생채식에, 자연의 비타민과 생수를 섭취합니다.

신체 활성화란 혈액 순환의 활성화와 광역화를 의미합니다. 혈액 순환이 왕성하면 신체 모든 영역에 골고루 영양과 산소가 공급, 신진대사가 원활해지므로 암세포가 생길 리가 없습니다. 또 암세포에 영양을 공급할 신생 혈관이 만들어질 기회 자체가 거의 없게 됩니다.

반면에 혈액 순환이 정체되면 발암물질을 몸 밖으로 내보내기 어려워져 암세포가 자랄 수 있는 틈이 생깁니다. 신체 활성화는 골 면역 체계의 활성화를 의미해서 산 나무에 흰 버섯이 자라지 않듯 생명력이 왕성한, 혈액 순환이 왕성한 곳에 암세포가 자랄 수 없습니다.

▶**운동으로 면역력 증가**= 미 암학회에서 흥미로운 논문이 발표됐습니다. 어릴 적 골절치료를 위해 몸 속에 넣어둔 금속판이 10년 후 암을 발생시켰다는 내용인데, 흥미로운 점은 암이 금속판의 매끈한 표면이 닿는 부위에서 발생하고 도돌도돌한 표면 부위에서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매끈한 표면부위에서는 세포들이 뿔뿔하게 자라 미세혈관 순환이 발달하지 않는데 비해 오돌도돌한 부위에서는 세포들이 엉성하게 자라 미세혈관 순환이 잘 되기 때문입니다. 혈액 순환이 잘 되는 곳에서는 암이 생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논문이 입증한 것입니다.

예일대 의대의 델린더원 박사는 1995-1998년 사이 유방암 여성 933명을 2004년까지 추적 조사해 운동과 생존율의 밀접한 관계를 밝혀낸 연구 결과를 <임상종양학 저널>이라는 의학 잡지에 발표했습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발표된 연구 결과들을 보면 운동이 유방암 위험을 최고 40%까지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있지만, 어떤 박사는 나아가 유방암 진단을 받기 전 운동과 진단 후 운동한 것 모두 유방암 생존율 연장에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새로 밝혀졌다고 말했습니다.

우선, 유방암 진단을 받기 전 해에 매주 2-3 시간 이상 빠른 걸음 운동을 한 여성은 전혀 운동하지 않은 여성에 비해 사망률이 평균 31% 낮았습니다. 또 유방암으로 2년이 지난 현재 매주 2-3 시간 이상 빠른 걸음 운동을 한 여성은 전혀 운동하지 않은 여성에 비해 사망률이 평균 67% 낮았습니다. 유방암 진단을 받기 전에는 운동하지 않다가 진단 후부터 운동을 시작한 여성도 진단 전후 운동하지 않은 여성보다 사망 위험이 45% 낮았습니다.

어린 박사는 운동이 유방암 환자의 생존율을 높일 뿐 아니라 암 치료에 수반될 수 있는 심혈관 질환 위험 증가도 막아 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유방암 환자는 최소한 하루 걸러 15분씩 걷기 운동을 권했습니다.<5면에 계속>

세계 주요국가의 영양 면역요법	
영국 브리스톨 암센터 (BHC요법)	-주스나 생과일, 생야채 섭취 -동물성 식품·유제품·염분, 정제 당분식품 제한 -비타민과 미네랄, 효소 등의 원활한 섭취를 위해 날식품 70% 이상 섭취
멕시코 메르디안 병원(거슨 요법)	-거슨 박사에게 의해서도 -육식, 우유 및 가공식품, 설탕, 소금 등 제한 -순수 유기농법으로 재배한 생야채, 셀러드와 녹즙 만 섭취
멕시코 오아시스 병원(레트 밀 요법)	-상어 연골 추출물, 커피 판장 병행 -소금, 동물성 지방, 가공식품 제한 -유기농법으로 재배된 다양한 100% 생채소와 과일 섭취 -주스 요법을 통한 비타민과 미네랄 섭취
캐나다 호퍼 박사 병원(영양 요법)	-비타민 A, C, E, 셀레늄 등의 영양보충제 다량 투 여(Mega vitamin therapy) -소고기, 유제품 제한 -저지방, 복합당질, 교섭요소(곡식, 두류, 채소 등) 위주의 식사 권장



특집<암> MD앤더슨 김의신 박사 킬림<> 암환자가 간호

# “세계 최고 암 병원 봉사자 그들은 암 이긴 생존자들”



김의신(의대 68년 졸) MD 앤더슨 암센터 종신교수

암환자가 암환자 도와. 봉사자 1600명 거의 암 생존자 - 시트 같고, 머리 감겨주고 투병생활 노하우 전수. 봉사에 특혜는 없다. 유니폼의 주차비만 면제, 점심도 자기 돈으로. 일반인도 봉사 앞장-휴대폰 빌려주고 음악 연주... 자가용 비행기 무료 제공도.

내가 근무하는 'MD 앤더슨 병

원'의 '핵의학(Nuclear Imaging)센터'에는 거의 매일 출근하다시피 하는 나이 지긋한 신사가 있다.

암 환자들이 자신의 암이 얼마나 치료됐는지 검사받는 이곳에서 그는 자원봉사를 한다. 봉사라고 해서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은 아니다. 검사를 초조하게 기다리는 암 환자들을 손을 잡아주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일 등이다. 기운 없는 환자가 검사를 받으러 들어갈 때 옆에 붙어서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준다.

그도 몇 년 전에는 암 환자였다. 지긋은 암을 이겨낸 '암 생존자(Survivor)'로, 암 환자의 투병생활을 돕는 일을 하는 것이다.

핵의학은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해 암을 진단하고 치료 효과를 판정하는 영상의학 분야

↑MD 앤더슨 암 센터에서 유방암 치료를 받은 환자들이 병원 내 환우회(患友會) 사무실에 모여 얘기를 나누고 있다. MD 앤더슨 암 센터에서는 암 치료에 성공한 사람들이 환우회를 통해 새로 암 치료를 받는 환자들을 돕는다. <MD 앤더슨 암 센터 제공>

중 하나다. MD 앤더슨 암 센터에는 이런 자원봉사자가 1600여 명이나 활동한다. 대부분이 암 생존자들이다.

암 환자가 암 환자를 도우면 동병상련의 정 때문에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치유 효과가 훨씬 좋아진다. 의사의 말 한마디보다 같은 암을 앓고 이겨낸 환자의 따뜻한 위로가 투병 의지를 강하게 만드는 효과를 내는 것이다.

암 환자들은 항암제 투여로 구역질 날 때 어떻게 하면 편해지는지를 미리 경험한 '선배 암 환자들'에게서 배운다.

“생각차를 마시면 좋다” “단백질 농축 죽은 먹더라도 먹어라” 등 몸속 겪은 생생한 정보가 환자를 통해 환자에게 전해진다.

이들은 암 종류별로 환우회를 조직하여 새로운 환자들에게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라”며 연락처를 남긴다.

자원봉사자들은 젊은 사람들부터 백발이 성성한 노인까지 다양하다. 의대에서 항암제 치료를 받다가 쉬는 동안 몸 상태가 좋으면, 자기보다 더 어려운 환자를 돕는 '현재 진행형 암 환자들'도 있다.

병원의 자원봉사 일은 자질구레한 것도 많다. 병원에 온 편지를 해당 사무실에 배달하거나, 병동에서 침대 시트(Sheet)를 가는 일, 잡동사니를 치워주는 일, 환자 머리 감겨주는 일 등 다양하다.

그들은 그런 봉사 속에서 암 투병의 가치를 찾고, 남을 돕는 데서 오는 기쁨을 누린다.

한국인은 암 생존자나 몸 상태가 좋은 환자들에게 자원봉사에 한 번 나서보라고 권하면 대개 안 하려 한다. 그저 근심 속에서 지내다 치료가 끝나면 바로 나간다. 자기 시간을 남을 위해 쓴다는 것에 대해 인색해 아쉬울 때가 잦다.

이곳 휴스턴 지역에만 한국 교회가 50개소가 넘는데, 자원봉사 나오는 단체는 거의 없다. 영어를 잘 못해도 할 수 있는 봉사가 많은데 말이다.

우리보다 못 산다고 할 수 있는 터키나 아랍 지역 출신 사람들은 동포 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자원봉사를 자주 한다. 주로 영어를 못하는 환자들을 위해 통역 봉사를 한다.

병원이 자원봉사자들에게 주는 특혜는 없다. 주차비만 면제해 준다. 의료진과 구별할 수 있게 유니폼을 지급하고, 1년에 한 번 자원봉사자의 밥을 열어주려 노력하는 정도다.

자원봉사자들은 점심도 자기 돈으로 사 먹는다. MD 앤더슨 내 식당의 밥값은 다른 곳보다 1.5배 정도 비싸다. 그래도 사자들은 별 불만이 없다. 식당에서 나오는 수익금 전액이 병원에 기부되기 때문이다.

일반인도 자원봉사를 열심히 한다. 내가 아는 한 변호사는 휴일마다 휴대폰을 한 개 더 들고 병원에 나온다. 병실을 돌아다니며 암 환자들에게 통화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지금 전화하라며 휴대폰 대여 봉사를 한다.

음악가들은 병원의 로비나 환자 대기실에서 모차르트 곡 등을 연주하고, 치유의 노래를 불러주고 있다.

병원의 한 여의사가 사정이 딱한 중증 장애 어린이를 입양해서 키우는 것을 보고는 그 여의사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

미국은 도시와 도시 간의 거리가 아주 멀어 환자들이 비행기로 이동해야 하는 경우가 잦다. 이 때문에 거동이 불편한 암 환자들은 병원 한 번 왔다 갔다 하는 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이런 환자들을 위해 자가용 비행기를 소유한 부자들은 비행기 무료 대여 봉사를 하기도 한다.

병원 사회복지팀은 100여대의 자가용 비행기 리스트를 갖고 있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이송할 상황이 생기면 자가용 비행기를 찾아 연락을 취해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다. 콜로라도 휴양지에는 '자가용 비행기 부자'들이 많이 있는데, 병원이 간곡히 요청하면, 이곳 휴스턴까지 자가용 비행기를 보내준다. 그런 경우 항공 비용이 2,000만~3,000만원이 나한다고 한다.

어떤 부자는 자신의 자가용 비행기 운항 일정을 미리 병원에 알려주고, 그 일정에 맞는 타(他) 지역 암 환자를 태워주기도 한다.

MD 앤더슨이 속한 텍사스 대학은 한 해 의대생을 250명 뽑는다. 의대생 선발 기준에는 남을 위해 얼마나 헌신했는지 중요한 평가 항목으로 올라와 있다. 어려서부터 자원봉사를 꾸준히 한 학생들이 좋은 점수를 받아 의사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다.\*\*\*

<4면에서 계속>

## 정신혁명이 암을 이긴다

정신 면역요법은 암에 대한 생각을 바로 잡는 것으로 일종의 강력한 선제공격입니다. 암은 반드시 나올 수 있다고 믿어야 하며 살아남을 길이 있다고 믿어야 하고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터널의 끝이 있다고 믿어야 합니다.

암환자에게 암에 걸린 사실을 알리는 게 좋은지 알리지 않는 게 좋은지는 결정이 어려운 문제입니다. 나이가 많아 치료가 어려운 경우는 모르고 사는 편이 낫고, 사실을 알면 크게 좌절할 수 있는 우울증 환자에게는 안 알리는 편이 좋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암을 이기겠다는 마음을 가질 때 보다 강력하게 암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적을 정확히 알고 정면 대결하는 것이 암 극복의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병명을 아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히 알고, 치열하게 싸우고, 정복한다는 신념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암보다 무서운 질병 가운데 하나가 자가면역질환입니다. 체내 면역 체계가 정상이고 건강한 조직이나 기관 또는 체내 성분 등을 공격하는 질환으로, 자신의 항원에 대해 항체를 만들어 생기는 면역병입니다.

노년 커슨스 박사가 자가면역 질환의 불치병 판정을 받습니다. 그는 웃을 수밖에 없는 재미있는 비디오를 몇 개 빌려 호 텔에 15일간 투숙해 보름 동안 종일 웃다가 너무 기분이 좋아져 병원에 가 검사해 보니 '다 나왔다'고 하더군요.

웃음 치료는 이렇게 개발, 커슨스 박사는 웃음치료의 아버지로 불리게 됐고, '웃는 것도 운동', '웃음은 체내 조깅' 등 새 희망을 제시했습니다.

큰 웃음은 몸속 250개의 근육을 활성화시키고 심장박동을 증가시켜 스테미나를 강하게 합니다. 3시간 동안 마음껏 웃는 것은 1천m 정도의 거리를 힘차게 걷는 정도의 운동 효과를 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즐거운 웃음은 면역 세포인 NK를 활성화시켜 면역력을 수십 배 이상

높이기도 합니다. 최근 말기 암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웃음 치료 효과가 입증되기도 했습니다.

대장암이 폐와 간으로 전이돼 6개월 시한부 선고까지 받았던 암환자가 의사 권유로 웃음 치료를 받았는데, 3개월 만에 암의 성장을 막는 면역 세포 수가 정상인의 수치까지 높아졌다고 합니다.

또한 암 치료 전문 병원들이 6개월 생존이 어려운 4기 암환자 32명에게 기존 암치료와 함께 웃음 면역 치료한 결과 87%인 28명이 2-3년 이상 생존하는 것을 보고하기도 했습니다.

편 & 웃음경영 컨설턴트 이요셉 한국 웃음연구소장은 한국 최초의 웃음 전문가이자 인기 웃음 강사로 정평이 있습니다. 그는 몇 년 전 저와 함께 암환자 캠프를 진행하면서 자신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웃음 치료사가 됐고, 이후 암환자와 아토피, 관절염 환자에게 웃음 치료를 전파해 왔습니다.

이요셉 소장은 웃음의 건강 효과에 관한 많은 사례를 소개하

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5가지 효과를 소개합니다.

1. 웃음이 생명= 2500년 전 히포크라테스는 건강을 몸과 마음의 균형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의 병원은 공 연장의 흥겨운 분위기를 통해 마음을 안정시키고 웃을 수 있도록 원형 경기장이나 공연장 근처에 있었습니다. 실제 하루 15초 웃으면 수명이 이를 연장되고, 하루 45초 웃으면 고혈압이나 스트레스를 물리칠 수 있다고 하니, 웃음이야말로 최고의 명약인 셈입니다.

2. 웃음은 성공의 기본= 탁월한 동기부여가인 브라이언트 레이시는 성공의 85%가 인간관계에 의해 좌우되며 이는 얼마나 잘 웃느냐에 의해 결정된다고 했습니다. 사람을 끄는 리더를 연구한 보고서에 따르면 그들은 모두가 매우 잘 웃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웃음은 웃는 사람만 아니라 주변 사람까지 넘쳐흐르는 열정과 자신감을 전염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3. 웃는 뇌가 건강= 미국의 엘앤더슨에 따르면 웃음이 긍정적이고 밝은 학습분위기를 만들어 이해 능력과 기억력을 향상시키고, 주의력을 높이며, 인지적 발달을 도와 삶의 질을 높여 줍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최근 웃음을 가르치고 있는 학교가 점차 늘고 있고, 조회와 종례 시간에 웃음 연습으로 삼당히 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합니다.

4. 웃음은 평화= 웃음은 부교감신경을 자극해 심장을 천천히 뛰게 하며 몸 상태를 편안하게 해 줍니다. 18년간 웃음의 의학적 효과를 연구해 온 미국의 리버트 박사는 잘 웃는 사람의 피에서 암세포를 공격하는 '킬러 세포'가 많이 생성돼 있음을 알아냈습니다.

5. 웃음만으로 운동= 3분간 웃으면 11칼로리 정도가 소모되는데, 이는 에어로빅을 5분간 한 운동량입니다. 반면 3분간 전력질주하면 17칼로리가 소모되며, 3분간 조깅은 8칼로리가 소모됩니다. 조깅보다 운동 효과가 더 큰 것입니다.\*\*\*

<3.1절 특필기고>

매년 3월 생각나는 Dr.Schofield



이기풍(수의대 50)

미국 거주 동문들에게 Dr. Schofield 라면 대부분 3.1일 운동에...

내가 1950년도 수의대에 입학해 한 학기가 끝나기 전 6.25한국전쟁으로...

그 뒤 서울로 복귀해 보니 학교 건물은 남아 있었으나 시설은 아무 것도 없었다.

나는 우연히 현책방에서 독일어 인체 조직학, 그리고 영어 인체 조직학과 병리학 원서를 사서 독학했다.

1955년 졸업해 제1회 병리학 전공 대학원생이 돼 조교로 남게 됐다.

병리부검은 주로 연간 개 및 마리 정도니 실질적 수의병리학 연구가 어려워 할 수가 대학원 2학년 때...

그 무렵 Dr. Schofield께서 모교에서 3학년생에게 Gross Pathology를 강의하게 됐다.

Schofield는 새벽 동대문 승인동 도축장에서 소와 돼지 내장검사를 하고 이상인 장기를 수집해...

게 저런 실질적 교육으로 사회에 나오면 쓸모있고 실력 있는 수의사를 양성해야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나는 소에서는 Hepatic Distomiasis 연구 때문에 간조직을 채취하고 돼지에서는 Actinobacillosis 때문에 생긴 Tonsillitis를 연구코자...

Dr.Schofield는 수집한 내장에서 어떤 병으로 가축이 피해를 받는지 현상조사했다.

하루는 Blood Agar를 세균학교실실에 가서 가져오라기에 갔더니 Blood Agar는 없고 Plane Agar만 있어 가지고 갔다.

나는 그에게 "약속을 꼭 지키고 열심히 공부해 대학에 돌아와 학생을 가르치겠다"고 맹세하고 유학의 길을 떠났다.

출발 전 작별 인사를 위해 박사님 댁에 갔는데 인사 후 "어디로

“스코필드 박사가 3.1운동 등 우리의 독립운동에 가담한 것만 잘 알려졌을 뿐, 세계적인 수의 병리학자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다”

말면서 "당신은 젊으니까 많은 피를 흘릴 수 있다"고 해 겁이 나서 벌벌 떨었다.

Schofield는 돼지에서 처음으로 Atrophic Rhinitis의 발생을 발견해 결과를 발표했다.

당시 Texas AM College의 유명한 병리학자 Hilton A. Smith에게 보냈더니 그것이 계기가 돼 장학금으로 병리학 대학원생 입학 허가를 받았으나 신체검사서에서 폐결핵 진단이 내려 Visa를 못받아 유학을 포기했다.

Dr.Smith는 자기가 쓴 Veterinary Pathology와 편지를 보내왔다.

병리학 교실에서 근면하게 일하는 여성들에게 장차 경제적 자립을 위해 양재학교 남입학을 대주었다.

Ontario 수의대 일과는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피투성이가 되다시피 병리해부실에서 부검하고 오후 7시부터 11시까지

교 활동을 하는 성실한 Christian이었다.

나는 당시 기독교에는 관심이 없어 그가 주머니 돈을 털어 나에게 온정을 베푸는 일을 이해할 수 없었다.

1963년 서울시립농대 병리학 조교수로 있을 때 '나와 이야기하고 싶다'는 전달에 갔더니 'Ontario 수의대에 유학을 보낼 수 있는 데 한 가지 조건에 약속해야 한다'고 했다.

조건은 'Ontario 수의대에서 학위를 위해 공부하지 않고 병리학 교실에서 1년간 주로 동물해부 Diagnostic Pathology of the Training을 받고 대학에 돌아와 학생을 지도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에게 "약속을 꼭 지키고 열심히 공부해 대학에 돌아와 학생을 가르치겠다"고 맹세하고 유학의 길을 떠났다.

출발 전 작별 인사를 위해 박사님 댁에 갔는데 인사 후 "어디로

Microscopic Slides를 Reading 하고 병리진단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었다.

그 학구열이 주임교수에게도 좋은 인상을 준 것 같았다. 'Ontario 수의대 병리학 교실은 Research보다는 Diagnostic Pathologist를 양성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내가 그 곳에서 1개월간 부검한 동물 수는 한국에서 일생 할 수 있는 부검보다 많았다고 믿고 있다.

그 학교는 100년 역사의 유명한 학교로 Microscopic Slide를 채운 Cabinet이 복도에 수없이 배열돼 있고 저장된 Microscopic Slide는 몇 만장일지 헤아릴 수 없었다.

내가 나중 Wisconsin 수의대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았지만 이곳은 주로 Research Pathology를 하기 때문에 Diagnostic Pathology는 배우지 못했다.

Dr. Schofield가 Ontario 내에서

좋은 세상이 왔다"고 해 모두 한바탕 웃었다.

하루는 병리부검실에서 상소리를 잘 하는 이탈리아계 노인 청소부와 이야기중 'Dr. Schofield 덕분에 이 학교에서 공부하게 됐다'고 하니 그가 '아, 그 Old Crazy Man이 보냈군' 하기에 '왜 Old Crazy Man이냐'고 하자, '그는 아침 6시면 부검실에 나와 일하기 시작해서 저녁 늦게까지 일하니 일 밖에 모르는 Crazy Man이 아니냐?'고 했다.

내가 병리학 교실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주임교수와 대학원생들이 오후 7시 부터 11시까지 Microscopic Slide를 보고 병리진단서를 작성해 부검 의뢰한 수의사에게 보냈다.

한국에 있을 때는 Dr. Schofield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병리학자라는 것을 몰랐다.

오늘날 Vet Pathology와 Bacteriology 문헌에 그의 이름을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는 International Veterinary Congress Prize를 12번째로 받은 세계적인 수의학자였다.

그는 여러 한국 수의사에게 Ontario 수의대 유학의 길을 열어 주었다.

내가 Wisconsin대에 있을 때 과거 지도교수 Dr. Carl Olson이 나를 위해 Dr. Schofield가 과거 보낸 추천서를 보내왔다.

Canada에서 Wisconsin 대학에 갈 때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간다고 편지를 썼지만 내 지도 교수에게 추천서를 보내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다.

지난 2009년 Ontario Vet. College에서 우리 동문들대로 큰 혈조로 새 건물을 지어 그 속에 Dr.Schofield-Korean Memorial Seminar Room and Museum을 설립했는데 Dr.Schofield 제자의 한 동문으로 정말 감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Memorial Seminar Room and Museum이 모교 수의대와 한층 밀접한 관계로 학술과 인문 교류가 활발하게 이뤄져 오고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필리델피아에서>

Diagnostic Pathology of the Training만 받고 돌아오라는 조건을 붙인 이유를 알게 됐다.

미국 수의대에서 Research Pathology of the Training 받고 온 교수는 자칫하면 학생에게 이론만 가르치는 교수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우리나라에서는 부검 Case가 적어 Diagnostic Pathology of the Training을 할 수 없으니 수의대에서 Pathology Teaching Professor가 되려면 Ontario 수의대 같은 곳에서 Diagnostic Pathology of the Training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루는 시내 맥주집에서 주임교수와 대학원생들 하고 맥주를 마시고 있을 때 주임교수가 학생 시절 추억담을 이야기 하는 데

'Dr.Schofield 때문에 학생들이 이 맥주집에서 마음 놓고 마시지 못했다'고 했다.

Dr.Schofield가 이곳에 와서 맥주마시는 학생을 잡고 부모 이름과 주소를 알아낸 후 부모에게 '당신 아들은 공부도 않고 맥주만 마신다고 편지를 보낸다'는 것이었다.

<3.1절 특별기고>

임진년에 맞이하는 3.1절



김태환(문리대 60)  
EMiniHaven CEO

쓰라린 과거를 되새겨 보며 희망찬 앞날을 다짐합니다.

올해는 임진년으로 '혹풍의 해' 라고들 하면서 다들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날 것으로 반기고 있습니다.

이제 3월 1일이면 그 날이 우리 모두가 기념하는 3.1절인데 정작 필자의 마음은 조금도 들떠 있지 않고 오히려 무거운 따름입니다.

420년 전에 일어났던 7년에 걸친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때 우리 조상들은 왜놈들로부터 말로 이루 다 할 수 없는 크나큰 고통과 수모를 당했습니다. 그들이 우리 선조들을 마구 죽였을 뿐만 아니라, 많은 기술자들을 포로로 데려갔고, 지구나 더 분통할 것은 귀와 코까지 베어가서 귀 무덤과 코 무덤을 만들어 지금도 일본 땅에 남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미년(1919) 3월 1일에 있었던 독립선언문 낭독은 우리가 배운 것 같이 실상은 그리 거창한 사건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고 필자는 매우 실망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왜 고등학교를 나올 때까지 우리는 우리 조상의 역사를 잊었던 그대로 가감없이 가르쳐 주지 않았는지 분노할 따름입니다.

미주에 계시는 많은 동문들께서는 기독교인들이 대부분이어서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뿐만 아니라, 바빌론에까지 포로로 잡혀 가서 노예 생활을 한 것을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다른 백성들의 역사는 잘 알지만 정작 우리의 역사는 잘 모르는 것은 부끄럽기 짝이 없는 노릇이지만 그것은 우리 자신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올바르게 가르쳐 주지 않은 문교 정책의 큰 실책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수치스러운 노예 시절의 역사까지 자손들에게 대대로 가르쳐서 부끄러운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심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아주 자랑스러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서 단군의 후예임에 어깨가 으쓱해집니다.

얼마 전 대학원 동기생 집에 놀러 갔더니 Connie가 자기네 냉장고가 Samsung 제품이라고 해서 기분이 아주 좋았습다.

지난 2월 20일자 USA Today의 Money(Section 2)에 'Hyundai Displays Pricing Power' 라는

제목 밑에 전에는 저질로 알려져 저가로 팔리던 현대 차가 최근 품질을 높이고, Sticker가 격을 올렸는데도 잘 팔린다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과연 최성덕(의대 55일) 선배의 말씀처럼 자원이라고는 '인력' 밖에 없는 우리 조국에서 전장을 겪고 불과 60여년 만에 G-20에 들고, 또 교역량 만으로 세계 10위 권에 진입하게 된 것은 우리 한민족의 우수성을 반박하고, 더 큰 뭉클 차지할 수 있는 우리 동포, 특히 모교 동문들은 조국의 후광을 등에 업고 미국 땅에서 더 큰 역할을 하여 미국 사회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모든 Korean-American의 위상을 높이고, 우리가 기여하는 것보다 더 큰 목소리도 내고, 더 큰 뭉클 차지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하기 손쉬운 두 가지만 먼저 제외하고자 합니다.

첫째, 반드시 투표권을 행사합니다. 올해는 특히 선거의 해입니다. 미국은 선거 제도가 잘 돼 있어서, 투표장에 한 번 가서, 그 해에 있는 자신의 거주 지역에 관계되는 모든 피선거인들을 한꺼번에 대통령부터 구의원까지 다 뽑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 동포들은 대부분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투표를 안할 자유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투표를 하지 않으면 위정자들은 투표를 이 낮은 층의 의사는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누구를 투표했는지 비밀 투표가 보장돼 있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투표를 했는지 여부에 대한 기록은 오랫동안 보관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투표해야 하는 것은 당장 나 자신에게 무슨 혜택이 오기를 바라서라기보다는 여기 살고 있는 우리 동족과 특히 우리 자녀들이 이 나라에 사는 동안 더 좋은 대우를 받고,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도와 주는 것입니다.

이 것은 한 사람만의 힘으로 되는 것은 물론 아니기 때문에 각자가 1-2년에 한 번 있는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어 미국 시민으로서의 특권을 행사해 자긍심은 물론 동포 전체의 위상도 높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가능하면 자신이 좋아하는 후보(또는 현역), 또는 선호하는 정당의 후보(또는 현역)에게 적은 돈이라도 정성을 표시하면, 혹시 나중에 아쉬운 부탁을 할 때 접근하기가 쉽습니다.

모든 인간관계가 그러하듯이 미리부터 사귀어두면 어려움 부탁도 쉽게 받아들여 주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주변에서 큰 돈을 내는 모금 행사에 참여해 거금을 기부하고 유력자와 친밀하게 접해있는 것을 가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은 1회성 돈 자랑으로 끝나버리기 십상입니다. 기부 받는 쪽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많은 돈을 받아서 좋을지 모르지만, 기부자 그 한 개인은 투표권이 하나 밖에 없기 때문에 적은 돈을 내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기부에 참여해주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들의 자녀 또는 그들의 후대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제외하고 싶습니다.

적어도, 우리(1세)들이 한국의 어디서 왔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제 이름을 한글로 쓸 수 있게 가르쳐 줍시다.

일본인 3-4세들에게 할아버지나 1세대가 일본의 어디서 왔느냐고 물어 보면, 대부분 모른다고 하며, 그래도 좀 나은 대답은 일본의 서부에서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국인 후세들은 적어도 그들의 조상들이 어느 성(省)에서 왔는지 정도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연계해 이름자를 쓸 줄 아느냐고 물으면, 일본인 후세들은 전혀 간지 못 쓰며, 중국인 후세는 모두 한자로 이름을 쓸 뿐만 아니라, 일세들의 방언(예 Cantonese)으로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 예에서 보듯 누구든지 일본인 후세보다, 중국인 후세가 훨씬 더 고유문화를 가진 민족으로 돌보인다 하겠습니까.

그리고, 문화민족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필자를 위해서 우리 거의 모두가 부끄러워 해야 할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온 다음에 음력설이나 추석을 명절로 지내서 직장을 쉬거나, 자연영양 전문업소를 닫고 타인종 중영원에 계 유급 휴무로 쉬게 하신 분이 얼마나 될까 생각해봅니다.

중국 사람들은 음력설 때 적어도 한 주일, 많게는 두 주씩 즐기면서 세해를 맞이합니다.

유대인들은 휴일이 많기로 유명하며 그들의 하루는 해질 때부터 그 다음 날 해질 때까지이므로, 명절 전 날 오후 3시 쯤에 종업원들을 다 내보냅니다.

그것보다 더 가관인 것은 필자가 동부의 경영 대학원(Business School)에 다닐 때 목도한 바입니다.

그것은, 유대인 학생들은 그들의 큰 명절 때는 아예 수업에 나오지 않고, 학교에서 Video로 결강 과목을 녹화해서 그들이 편리한 시간에 볼 수 있게 배려해주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때 필자도 추석을 하루 빠져보고, Video로 빠진 시간을 녹화해 달라고 학교 당국에 요청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필자 한 사람만을 위해서 학교에서 장비와 기사를 투입할 것 같지 않아 입 밖에 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언제 쯤 한인 후세 학생 수가 많아져서, Video 녹화를 담당하게 요청할 수 있을지 속으로 생각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설령 우리 후세 학생 수가 많아졌다 치더라도, 우리가 추석을 우리 고유도의 명절로 기념하지 않는다면 학교에서

태극기와 정체성



김인수(사대 55)

하나의 국가를 상징하는 것이 국기(國旗)이며 세계 어느 국가든 그 나라를 세계에 알리는 표상인 국기가 있다.

우리나라 국기는 '태극(太極)'이라는 음양(陰陽) 오행의 원리에 따라 만들어졌다. 역사적으로는 1882년 8월 제물포 조약을 이행하기 위해 수신사인 정사 박영효, 부사 김만식, 종사관 서광범 일행이 일본의 개화문명을 보기 위해 8월 9일 일본 군함 '메이지 마루' 호에 타고 일본으로 향하는 군함 속에서 박영효가 경건한 마음으로 서울 송해문의 태극 문양을 바탕으로 태극기를 그려 일본의 여관에 처음 걸어 놓고 한국의 국민으로 한국(조선)을 세계에 알리게 한 것이 최초의 일이다.

그후 고종 20년 1883년 1월에 정식으로 우리 나라의 국기로 채택해서 공표했다.

해방 후 1949년 3월 25일 문교부 심의위원회에 의하여 음양과 사괘(四卦)의 배치안을 결정해 문교부 교시 제2호(1949.10.15) 및 제3호(1950.1.25)에 규정된 국기의 표준 규격으로 공포함과 동시에 현재에 이르렀다.

태극기는 외형적으로 보이는 뜻보다 우리 나라의 격랑과 고난의 역사를 함께 한 뜻이 더 크다.

"Who are we?" 우리는 누구인가? 조국을 떠나 살 망정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한국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태극기가 가지고 있는 뜻을 이해하고 국기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수년 전 어느 Convention에 참석한 적이 있다. 행사는 미 동북부에 거주하는 수천여 명의 우리 동포들이 모인 정말 거대한 행사였다.

그러나 행사장 단상에는 미국 성조기만 게양돼 있었고 태극기는 보이지 않았다. 한국 사람들이 모인 곳에 자기 나라를 상징하는 국기가 없다는 것은 주최자의 실수인가. 미국사람

이 되었다는 심중인가. 또는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수치로 알았던가. 혹은, 이제는 미국에 살기 때문에 나오는 상관이 없다는 뜻이었던가. 여러가지로 생각해보았다.

우리는 한국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정체성을 표시하는 태극기를 한국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는 어느 곳이든 반드시 게양해야 한다.

특히 한국인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에도 보면 미국 성조기는 단상에 게양돼 있으나 태극기는 없는 경우가 많다.

어떤 교인이 왈, "하나님이 먼저지, 태극기가 먼저가 아니다" 라고 변명 비슷한 대답을 하는 것을 볼 때 조국에 대한 애국심이 없는 한인 동포사회의 일면을 알 수가 있다.

길을 가다가도 미국인들은 성조기가 게양돼 있으면 잠시 말을 멈추고 국기에 대한 경례를 표하고 심지어 어린이들까지 자기 나라에 대한 존경심과 애국심을 표시함을 흔히 볼 수 있다.

어느 교회의 노인 말씀이 "미국에 와 수십년 살아서 그런지 태극기에 애국가가 들려오면 눈물이 흐른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몸은 미국에 있지만 마음은 항상 조국에 있음을 뜻하며 국가에 대한 애국심과 존경심의 발로로 꾸리 깊은 정체성의 일면이며 자라나는 후세에게 그 뿌리인 조국을 알리는 부모의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태극기는 역리학상(易理學上) 여러가지의 위대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바탕은 백색으로 평화를 뜻하며 원형은 '하늘(Heaven)'과 '땅(Earth)'이 나누어지지 않은 우주의 본연을 뜻한다.

원형의 빨강 부분은 '양(陽)'을 뜻하고 푸른 부분은 '음(陰)'을 뜻하는 것이다. 즉 음과 양의 상대성 원리를 표현하는 것이다. 또한 원형 주위에 특히 '건(乾)·곤(坤)·감(坎)·리(離)'의 사괘를 현상(現象)하고 있다. 사괘중 건괘는 하늘, 곤괘는 땅을 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건·곤괘를 택한 것은 우리나라의 국운도 천지(天地)와 함께 영원무궁하다는 '무궁(無窮)의 정신'을 표현한 것이다.

리괘는 해(日), 감괘는 달(月)을 뜻한다. 우리는 다시한 번 조국에 대한 애국심과 태극기에 담겨진 오묘한 진리를 생각해 자부심을 가지고 한국인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힘을 다해야 한다.\*\*\*

그 요구를 들어줄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년에 한두번 정도의 고유 명절도 지내지 않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문화 민족이라고 자부할 수 있겠습니까?

좀 안된 얘기지만, 이웃들에게 음력설도 지내지 않는 Chink 정도로 알려졌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별문제가 아니

겠지만, 날로 발전하는 조국 대한민국의 Elite 중 Elite로 자부하신다면 우리가 조국을 욕을 먹이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매년 적어도 음력설과 추석은 꼭 지키도록 노력합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처럼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존중해야 남들도 우리를 존중해줍니다.\*\*\*

<3.1절 특별기고> 미래 세대가 함께 하는 역사를 꿈꾸며

## '나눔의 집' 에서 보낸 특별한 3.1절



정연진(인문대 81)  
바른역사 정의연대 대표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위안부' 할머니들이 공동 기획하는 '나눔의 집 (www.namun.org)' 에서 열린 3.1절 기념행사 및 추모제에 참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중·고교생들이 참여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에 감동해, 그날 만난 여고생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 언요·은경·보우·민주에게

경기도 광주시에서 차로 20여분 들어가야 하는 한적한 산골에 위치한 나눔의 집.

3.1절 행사와 추모제를 연다는 안신권 소장님 초대에 응해 찾아가면서 막상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 있을까, 궁금했었습니다. 현장에 가보니 250여 명은 너그러워 될 것 같은 많은 시민들과 너희 학생들로 '나눔의 집' 이 북적북적 붐비는 모습을 보니 흐뭇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3.1절이 절대다수의 사람들에게 달력에는 공휴일 이상의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것 같은 요즘, 어린 학생들이 부모님과 함께 나눔의 집을 방문해 생존해 계신 '위안부' 할머니들을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 노래와 춤 공연도 하고, 행사를 위해 봉사하는 모습에서 분명 우리 시대에도 희망이 있다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일제시대라든가, 식민지의 피해, 역사문제라든가, 이러한 딱딱한 주제의 이야기들을 싫어하는 데다가, 세계적인 불경기 여파로 모두들 마음의 여유를 찾기 어려운 시기인데도, '위안부' 할머니들을 잊지 않고 공휴일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제 강점기 역사를 알고 있는 어른들만의 행사가 아니라 수 많은 초등생, 중·고교생, 그 중에서도 해맑은 미소를 가진 너희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큰 기쁨이었습니다.



역사란 한 민족이나 집단의 과거와 현재가 만나 미래를 창조하는 기반이기 때문에, 미래 세대가 없는 현재란 죽은 역사나 마찬가지이니까...

일본군 '위안부' 라는 존재는 한국인에게 정말 뼈아픈 역사이지. 제 나라를 지키는 힘이 없어 마침내는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로 전락한 조선 땅.

1931년 만주사변, 뒤 이어 아시아 대륙을 침략하는 태평양전쟁을 일으킨 일제는 전쟁을 위해 식민지 조선 사람들을 마구 노예와 같이 동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강제로 끌려간 사람들의 숫자는 한반도 인구의 1/3 내지는 1/4이나 됐지. 남녘땅에서 북의 공장지역으로 끌려간 사람들까지 포함해, 남한측 사학자들은 650만, 북한측 사학자들은 850만까지도 추산합니다.

실로 엄청난 규모의 강제동원이었고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지 못했는데도, 우리가 유대인들의 홀로코스트는 잘 알고 있지만 막상 통한의 우리역사는 잘 모르고 있는 사실이 안타깝지.

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위해 동원됐지만 그 중에서도 일본군의 성노예로 끌려갔던 군대 '위안부' 들은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어. 배나 기차에서도 사람 타는 칸이 아니라 군수품 칸에 운반되기 일췌였단다.

전장에서 일본군을 상대로 제대로 자지도 먹지도 못하며 성노예로 후사당할 그 분들을 생각하면... 그것도 10대의 어린 나이가 많았는데, 당신들이 당한 현실이 얼마나 통탄스러웠을지, 정말 가슴이 먹먹해 오지 않나. 너희들 나이에 그런 일을 당했다 그 상상해 본다면 말이야.

"일본에 가서 돈을 벌 수 있다. 공장에 취직하게 해준다" 는 업자들의 말만 듣고 따라나선 사람들도 많았고, 아예 일제가 업자들을 동원해서 강제로 납치한 어린 소녀들도 많았단다.

특히 권력있는 집안은 미리 정보를 알고 딸들을 일찍 결혼시키는 방법 등으로 정신대 동원을 피할 수 있었지만, 가난한 집안의 딸들은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었습니다. 나치의 홀로코스트 기간 중에도 집단적 성노예 제도는 없었는데, 일본의 군대 '위안부' 제도는 세계 전쟁사에 남을 정도로 극악한 것이었지.

나는 징용피해자들과 '위안부' 할머니들의 문제를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 과거 10여년간 활동

했습니다. 1999년부터 2006년까지 한국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정의회복을 위해 미국 법정에서 일본기업·일본정부를 상대로 소송하는 일에 매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집요한 로비, 유대인 피해자들의 경우와는 정반대로 일본측을 두둔하는 미국 정부의 태도, 뒷받침 지고 있던 한국 정부 등 여러가지 외부적 어려움으로 결국 소송은 좌절되고 말았지만, 이러한 잔악한 제도가 있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기록화하면서 끝까지 '위안부' 제도를 증폭 부인하던 일본에 썩을 박은 셈이 됐지. 또한 아시아 여러 피해 국가들의 시민단체들과 연대하고 남과 북이 함께 협력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나눔의 집에 오면 고 김순덕 할머니가 생각난다. 할머니는 너희들이 친숙한 '못다된 꽃' 그림을 그리신 분이시. 일본군에 의해 끌려가는 소녀의 공포가 생생하게 살아 있는 '풀려감' 이란 그림을 비롯해서 수많은 아름다운 그림을 남기셨지.

김순덕 할머니는 2000년 위안부 소송을 위해 워싱턴에 오신 이후 당시의 그림을 가지고 미 전국을 순회하셨는데, 한국에 돌아오셔서 몇 해 되지 않아 그만 돌아가시고 말았어. 2004년 5월 나눔의 집을 방문했을 때 뒷동산의 뒷밭에서 상추를 가꾸시며 매우 정정하던 모습이었는데, 그 후 한달만에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애꿎었는지... 2000년 미국을 순회하신 피로가 할머니 건강에 치명적이었던 것 같아 두고 두고 마음이 아프단다.

김순덕 할머니는 일일공의 가녀린 나이에 공장에서 일하게 해준다는 말에 속아 일본군 위안부가 되었다. 상해 동지에서 3년간 공살고 생을 한 이후에 천만다행히 탈출해 성공하여 고국에 다시 돌아올 수 있었다고 해.

많은 피해자들이 결혼을 안하거나 못하게 피해 할머니는 다행히 결혼하고 아들도 둘 두셨는데, 할머니보다 30년이나 일찍 세상을 떠난 남편에게 '내가 위안부였다' 는 고백을 끝내 할 수 없었다고 한다.

그런데 할머니가 탈출할 수 있었던 것은 일본군 장교가 도와준 덕분이라고 해. 그림을 통해 '위안부' 들의 고통스런 역사를 드러마련한 감동을 주었던 할머니의 생애... 일본군 장교에 의해 탈출할 수 있었던 사실은 지극히 희박한 상황 아래서도 인간애의 현상이 있었다는 것. 여기에 잔잔한 감동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또 그러한 인간애를 바탕으로 한·일간의 역사문제도 화해의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져본단다.

'위안부' 문제는 일본을 규탄하고 성토만 해서선 절대 풀릴 수 없는 문제이고, 한·일간의 화해의 시발점을 만들어야 해결 방안이 보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3.1절에 나눔의 집을 찾은 학생들, 학부모, 일반 시민들이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나눔의 집에서 열린 3.1절 기념행사는 많은 시민들과 청소년들이 찾아와 함께 노래부르고 공연을 펼치는 축제의 마당이 되어 있었다.

2007년 미국의 연방 하원에서 "일본이 사과하라!" 는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적이 있었는데. 그러기까지 많은 미주 우리 동포들이 발벗고 나서고 한 마음으로 뭉쳐 결의안 통과를 도왔지.

미 연방결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마이클 혼다' 라는 일본계의원 이었고, 연방하원 435석 가운데 단 한명의 의원도 없는 미주 한인들이 일본계 의원을 도와 연방 하원들을 지역구마다 일성적으로 찾아다니며 설득하여 얻어낸 성과란다.

일본계 의원과 미주 한인들이 한 마음으로 합심해 원하던 결과를 얻어냈는데, 한·일간 화해의 시발점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해. 어쩌보면 한 편의 드라마와 같은 감동스런 결과였단다.

혼다 의원은 "몸의 상처도 봉합되면 예전보다 더욱 단단해 지듯이, 한·일간의 상처를 봉합해 더욱 튼튼한 한·일관계를 만들자" 고 말했다고 미주 한인들이 전폭적으로 그를 도왔다.

현재 '위안부' 문제는 피해자들이 지난 20년간 줄기차게 일본의 입법기관을 거친 공식사과를 원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것. 이 문제는 단순히 한·일간 문제가 아니라 일본이 아시아 전역을 침략하고 저지른 전쟁범죄와 맞닿아 있지. 특히 침략전쟁은 '서구 제국주의로부터 아시아를 지키기 위한 성스러운 전쟁' 이라는 논리를 가르치고 배우고 자란 일본인들에게 국가의 공식사과라는 것은 생각하기 힘든 일이야.

역사문제의 화해라는 것은 국가간 힘 대결과 국제정치에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기에, 나의 오랜 활동에서 내린 결론은 이렇다. 피해자들이 원하는 사과와 배상은 한반도가 남과 북으로 분단돼 있는 상태에서는 힘들 것 같다는 결론이야. 통일된 조국에서 한반도 분단에 책임있는 국가들에 대한 조치가 가능해 질 것이고, 따라서 위안부 문제도 결국은 통일이라는 시각에서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됐단다.

낙관적인 것은 머지 않은 미래에 통일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예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이야. 다행히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남과 북은 지난 20년간 협력해 왔고, 다만 할머니들이 더 오래 전디어 주시지만 절절한 마음으로 믿고 있단다.

올해부터 나는 'Action for One Korea' 라는 통일운동을 시작했어 이에 대해서는 다음에 이야기 할게.

할머니들이 원하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한마디로 '인권' 과 '평화' 의 문제-인류의 보편적인 문제로 지구촌에 지속적으로 호소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한국의 위상이 세계적인 타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베트남 전쟁에서 한국 군인들이 저지른 양민학살과 여성 인권유린에 대해 한국이 공식적으로 사과한다면, 세계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지지해 줄 것이고, 일본정부의 공식사과에 대한 해결점이 찾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일본에서 자국이 더욱 성숙한 나라로 거듭나기를 촉구하는 시민들이 자신들의 정부를 향해 목소리를 높일 수 있도록 일본 시민들, 특히 일본 청소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너희 미래 세대가 찾아갔으면 한다.

3.1절 행사장에서 학생들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참여했나, 궁금해서 둘러보니 나눔의 집 뜰에서 '평화와 인권을 위한 중·고등학교 전국연합회' 라는 전국적 단체의 배너를 걸고, 학생들이 커피와 미관을 팔고 있거나, 어머니들, 더러는 아버지도 보이

고 말이야. 커피를 사러 다가가, 한 어머니께 "오늘 같은 날 이런 자리에 오시기가 쉽지 않았을텐데요" 라고 말을 건넸더니, "저도 처음에 이런 생각이 있었을 때, 우리 아이가 하도 오라고 해서 왔고, 지금은 온 가족이 봉사하고 있어요." 라고 활짝 웃으며 얘기하시던 말씀이 기억에 남는다.

어른들이 수치스런 역사라고 생각하고 기피조차 하고 싶지 않아 하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집에서 본 너희들의 해맑은 미소와 신선한 행동에서 위안부 문제가 앞으로 미래 세대가 함께 하는 인권과 평화의 이슈로 진전될 것 이란 희망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한국인들이 세계인들과 당당하게 손 잡고 전쟁없는 세상을 이루어 나가는 내일을 이룰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앞으로 도 종종 대화 나눔 것을 약속할게. 대한민국에 희망인 너희들이 자랑스럽다.\*\*\*





등문등정(미주 중앙일보·한국일보 인용)



### 노중선·이정우 박사등 워크숍 참가

노중선 박사, 이정우 박사 등 이동통신 기술을 선도하는 모교의 동문 연구자들이 '2012년 한국 통신학회 북미지부 워크숍'에 참여했다.

NAIT) 2012년 워크숍'이 지난 달 3-5일 샌디에이고 LG전자 모바일 리서치에서 '4G와 그 이후의 이동통신 시스템을 위한 신기술'이라는 제목으로 개최된 것이다.

← '2012 한국 통신학회 북미지부 워크숍'에 참가한 학자들이 워크숍 후 한 자리에 모여 기념 촬영을 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이들 동문뿐 아니라 한국통신학회 박진우 회장과 북미지부 회장인 이병관 박사를 비롯해 송홍업 박사, 정세영 박사(KAIST), 김영한 박사(UCSB) 등 한인 연구자들이 대거 참여해 이동통신 신기술에 대해 논의했다.

북미지부를 담당하고 있는 이 박사는 "멀게만 느껴졌던 4세대 이동통신의 기술이 빠른 전송속도를 내세워 사용자들에게 각광받기 시작했다"며 "이제는 벌써 4세대 이후에 적용가능한 Cognitive Radio, Advanced Relay 등 핵심기술에 관해 논하는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워크숍은 이와 같은 연구 트렌드를 살펴보기 위해 한-미 양국의 지명한 연구자들을 대거 초빙해 협의를 가졌다.\*\*\*

총영사관에 부임하기 전에는 본부 다자동상협력 과장을 지냈다.

말이 적고 차분해 꼼꼼하게 일을 처리하는 스타일인 최 영사는 그동안 이하룡 전 총영사와 송영환 현 총영사를 보좌하는 일부터 경제·동포·홍보 등 대부분 업무를 총괄해왔다.

최 영사는 "3년 동안 정들었던 시애틀을 떠나게 돼 아쉽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 동안 시애틀 총영사관과 나를 아끼고 사랑해준 많은 동포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 최영안 영사 멕시코 대사관으로 전근

#### 3년간 시애틀 영사지내

지난 2009년 3월 시애틀 총영사관 차석으로 부임해 한미FTA 미 의회 비준을 위한 서명운동 지원을 비롯해 경제 및 동포업무 담당했던 동문 최영안 영사가 시애틀을 떠났다.

최영안 영사는 주 멕시코 대사관으로 발령받아 2월 23일 현지로 떠난 것이다. 주 멕시코 대사관(대사 조환복)은 외교통상부에 파견된 정통 외교부

요원들만 5명에 달하고 일반 부처에서도 5명이 파견돼 있어 시애틀 총영사관에 비해서는 규모가 훨씬 큰 편이다.

모교 의교학과를 졸업하고 외무고시에 합격, 1991년 의교통상부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했던 최 영사는 주로 통상분야에서 근무했다.

지난 2002년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에서 첫 해의 근무를 시작했으며 이후 주 과테말라 한국대사관에서 일했다. 시애틀



### 김갑선 목사 무료 건강세미나서 강연

#### 시카고에서 대체의학 중 자연치료요법 등 설명

자연치료요법 등 대체의학의 저명한 학자로 잘 알려져 있는 동문 김갑선 목사(의사)가 시카고에서 산책과 여행을 취미로 하는 모임인 산수회 초청으로 지난 1월 무료 건강세미나를 개최했다.

지난 1월 27-29일까지 시카고의 구세군 데이퍼 커뮤니티 교회에서 개최된 이번 세미나에는 매회 무려 400여 명의 동포들이 참석해 건강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반영했다.

김갑선 목사는 모교에서 낙농

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토양미생물학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는 캘리포니아 한의대 병리학 및 영양학 교수 및 지구촌 농어촌 선교회 훈련원장을 겸하고 있다.

김갑선 목사는 "우리 인체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를 잘 안 뒤에 어떤 음식이 좋고 나쁜지 깨닫게 되면 누구나 건강을 되찾는 것은 어렵지 않은 문제"라고 강조했다.

시카고 산수회는 김갑선 목사가 추천한 자연건강치료제인 감식초와 사과식초 등의 건강식품을 판매하고 있다.\*\*\*



### 서용선 동문 뉴욕에서 개인전 열어

#### 모교 미대 교수 출신으로 지난 2009년 국립 현대 미술관 '올해의 작가상' 수상

화가이자 모교 미대 교수 출신인 서용선 동문이 지난 2월 뉴욕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이번 전시회 주제는 '영역(Territory)'으로 서용선 동문은 "사회와 자연에서 만들어져 우리 몸에 담기는 기억들, 그리고

### 김호원 박사 미주 한인치과협 공로상

의학박사 김호원 동문이 지난 해 12월 Las Vegas Paris Hotel에서 열린 '미주 한인치과협회가 설립된 이후 처음 시상되는 것으로 이날 500여 명의 회원 및 내빈들이 참석해 김호원 박사의 공로를 치하해주었다.

이 공로상은 미주 한인치과협회가 설립된 이후 처음 시상되는 것으로 이날 500여 명의 회원 및 내빈들이 참석해 김호원 박사의 공로를 치하해주었다.

김호원 박사는 "여러 가지로 부족한 가운데 이렇게 영광스러운 상을 받게 돼 무척 기쁜 한편으로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수상 소감을 말했다.

김 박사는 과거 우리 고국의 제3공화국 시절 박정희 대통령을 비롯해 정일권 국무총리 등 청와대와 정부 요인들의 치과 주치의로 오랫동안 활동한 바 있다.

김 박사는 "잠시 미국에 공부를 하러 나온 사이 8.15 경



↑ 김호원 박사(왼쪽)가 '공로상'을 수상하고 있다.

축행사에서 조총련에 의한 유영수 여사 저격사건, 1979년 김계규 정보부장에 의한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 등으로 아예 미국에 눌러 앉게 됐다"고 말했다.\*\*\*

### 서울대병원 미주 오피스 건강세미나 가저

#### 위암 진단과 치료 주제로

한국 의료의 세계화와 미주지역 동포의 건강 증진을 위해 LA오피스를 개소한 서울대 병원이 샌프란시스코 주민을 대상으로 지난 2월 11일 샌프란시스코 한인회관에서 건강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서울대 병원

미주 오피스가 진행하는 정기 건강 세미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이날 강연자는 모교 박찬형 박사로 '한국인을 위한 위암의 진단과 치료'를 주제로 강연했다.

박찬형 박사의 강연 후에는 건강진단 및 진료예약 상담이 이뤄졌다.\*\*\*



왼쪽 사진은 서용선 동문의 개인전 '영역' 전시 작품 중 하나(킵스 갤러리 제공). 윗 사진은 개인전을 개최한 서용선 동문의 최근 모습이다.

화 전공으로 학·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지난 2009년에는 국립 현대미술관이 주관하는 '올해의 작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그동안 베를린·오사카·서울·부산 등지에서 40회 이상 개인전을 열었다.

서용선 동문은 지난 1986년부터 2008년까지 모교에서 미대 교수로 활동하다 현재는 뉴욕을 중심으로 미술 작업에 전념하고 있다.

작품들은 킵스 갤러리(212)242-4215. www.kips-gallery.com에서 검색할 수 있다.\*\*\*





### 모교 사대생들 미 공교육시스템 연수

모교 사범대학교 예비교사 해의 연수단이 지난 2월 10일 뉴욕의 맨해튼 컬럼비아 대학교 티처스 칼리지에서 미국 공교육에 대해 강연을 들었다. 강연에서는 티처스 칼리지 박

사과정(교육과정 및 교사교육) 중인 엄수정씨와 메리 코를리 씨 등이 미 교육제도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과 학교 소개를 했다. 이후 학생들은 초청된 대학원

←모교 사범대학 예비교사 해의 연수단 학생들이 지난 2월 10일 맨해튼 티처스 칼리지에서 미국 공교육에 대한 강연을 들은 뒤 티처스 칼리지 대학원생 등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

생 등과 주제별로 문답시간과 토론시간을 가졌다. 연수단을 인솔한 모교 김연수(체육교육과) 교수는 “학생들이 뉴저지주 버겐 아카데미에서 공교육 현장을 경험하고, 티처스 칼리지에서 전반적인 교육 시스템을 배우는 기회를 얻었다”고 말했다. 모교 사대 해의연수단원 20명은 지난 2월 6일부터 뉴욕 일정을 시작해 한 주일 동안 미국의 공립학교 시스템을 배우는 연수를 받았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해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됐다.\*\*\*

### 백순박사 문학특강

시인이자 문필가인 백순(법대 58) 박사가 워싱턴 여류수필가 협회 초청으로 지난 2월 11일 에난테일 소재 벨리에서 문학에 대한 특강을 가졌다. ‘미국의 시와 수필 감상’을 주제로 진행된 특강에서 백순

박사는 미국의 첫 흑인여성 계관시인 리타 도브(Rita Dove)의 시와 에세이를 소개했다. 현재 버지니아 대(UVA) 영문학 교수인 도브(60)는 1987년 ‘토마스 와 블라’로 풀리처 상 수상에 이어 1993~1995년 계관시인에 선정됐다. 미 연방 노동부 선임 경제학

자로 근무중인 백순 박사는 모교 법대와 고려대 경제 대학원 졸업 후 오하이오대와 웨스트 버지니아대에서 경제학 석사와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백순 박사는 그 뒤 조선문학·자유문학·화해문학·한글문학·조선문학 등을 통해 문단에 도



### 서울대병원등 미 병원 협의체 구성

서울대 병원을 비롯해 미국에 진출한 한국 의료기관들이 협의체를 구성하고 타인종 환자 유치 등 공동 사업을 추진한다. 서울대병원 외 서울성모병원, 자생한방병원, 차음병원, 함소아한의원 등 5개 병원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지난 2월 2일 샌프란시스코의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미국 진출 한국 의료기관협의회’(MKA)를 공식 발족했다. 이 병원들은 한국 의료를 주류 사회에 확산시키기 위해서

는 보다 체계화되고 전문화된 마케팅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의료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및 의료 서비스 제공 등의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키 위해 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MKA는 또 ▲미국 내 아시안들을 위한 특화 진료를 개발, 홍보하고 ▲미국 내 불고 있는 티넨탈 호텔에서 ‘미국 진출 한국 의료기관협의회’(MKA)를 ▲‘한국’ 국가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게 된다.\*\*\*

### 김형식 박사 “올 세계경제 비관적”

“올해도 세계 경제는 불확실성이 절증하며 지난 해보다 더 나빠질 것입니다. 특히 일부 유럽 국가들이 부도 위기를 잘 극복하지 못하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충격은 더욱 엄청날 것입니다.”

워싱턴 DC에 소재한 월드뱅크의 김형식 선임 경제연구원은 세계은행 등의 보고서를 인용해 2012년 세계경제를 이같이 비관적으로 내다봤다.

김형식 박사는 지난 2월 9일 비엔나의 한미 과학협력센터에서 열린 ‘PNP 포럼(Peace and Prosperity Forum, 회장 윤홍노)’에서의 연구 발표를 통해 “월드뱅크는 금년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전년보다 떨어진 2.5~3.2%로 제시했다”고 말했다.

“전반적으로 성장세가 둔화하는 가운데 개발도상국보다는 유럽 선진국 경제가 더 위축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김형식 박사는 글로벌 경제 위기가 재연될 가능성이 높을 이유로 ▶이탈리아·스페인 등 일부 유럽국가의 장기채권의 고이자율 ▶투자심리 위축으로 차입비용이 상승하며 국가 부도 위기 고조 ▶시장의 불확실성이 독일·프랑스 등 핵심국가로 전이될 가능성 ▶선진국 투자자들의 자금 유출로 세계주식시장 위축 ▶유럽의 수입물량 감소 ▶선진국 자본 유출로 신흥 시장국 환율 평가 절하 ▶터키 등 대외 채무 비율 증가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지속 등을 꼽았다.

김 박사는 이러한 위기의 정후가 뚜렷함에도 현재 마땅한 대응 방안이 없어 세계경제의

하락세를 올해도 막기 힘들 것으로 보았다.

김형식 박사는 “경기를 부양하는 두 가지 방법은 금리를 낮춰 돈을 풀거나, 세금을 낮추거나 또는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동안의 저금리로 인해 통화정책을 쓸 여력이 없으며 개발도상국의 경우 이미 정부 돈이 많이 풀려 살림살이가 거덜 날 지경이라 재정지출의 여력도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향후 예상되는 세계경제의 지도도 펼쳐내 보였다.

그는 월드뱅크 보고서를 인용해 “2030년에는 신흥 시장국들이 세계 경제를 이끄는 성장엔진으로 등극하며 신다극화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중국과 한국·인도·브라질·러시아·인도네시아를 6대 신흥 시장국’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2025년에 한국 경제는 현재의 세계 15위에서 11위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높은 교육수준, 고급인력, 세계적 기술력과 경쟁력을 갖춘 다수의 기업집단 보유, 국내외 투자 활발,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처로 각광 등이 한국경제의 강점”이라고 꼽았다.

김형식 박사는 모교 상대 경제학과를 나와 텍사스 A&M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한국은행에서 20여년 재직 중

이다. 지난 2010년부터 월드뱅크에서 선임 경제연구원으로 세계 경제발전 관련 연구를 하고 있다.\*\*\*



### 양서명 박사 부녀 오클랜드서 건강 강좌

양서명·정은 박사 오클랜드연합감리교회서... “기름진 음식보다 야채와 과일을...” 강조

양서명 박사가 딸 양정은 박사과 함께 지난 2월 오클랜드 연합감리교회(담임 이강원 목사) 남선교회(회장 현수남) 주최로 열린 건강 강좌에서 각각 강연해 큰 주목을 끌었다.

이날 오후 1시부터 열린 건강 강좌의 강사로 나온 양정은 박사(산호세 카이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는 “나이가 든다고 모두가 치매에 걸리는 것은 아니다”면서 “먼저 몸 건강하게 마음이 행복하게 사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두살 때 부모와 함께 미국에 와 살다가 1997년 한국에 나가 의과대학을 졸업한 양정은 박사는 ‘치매 예방을 위한 특강’에서 65세부터 일반적으로 치매현상이 나타나며 85세에는 50% 정도가 치매 현상을 보이



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치매 예방을 위해서는 너부 기름진 음식을 피하고 야채와 과일등을 많이 섭취할 것을 권유했다.

하버드대 메디컬 스쿨에서 피부학을 공부하기도 한 양정은 박사는 하루에 1만보 등 많이 걸을 것과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것도 당부했다. 그는 치매나 병의 증상이 나타나면 일찍이 의사의 치료를 받을 것도 권유했다.

양정은 박사에 이어 아버지인 양서명 박사(임마누엘 메디칼센터)의 “심근경색과 심장마비 뇌경색 뇌출혈 중풍”의 원인과 예방에 대한 건강 강좌가 열렸다.

32년간 미국서 의사로 근무해 온 양서명 박사는 “모든 병의 근원은 음식에서 온다(食源病)”면서 “단것과 지방분이 많은 맛있는 음식으로 인해 동맥경화와 심장병, 뇌경색의 원인이 된다”고 설명했다. 양서명 박사는 또 심장과 뇌

↑양서명(왼쪽) 박사와 양정은 박사 부녀가 우리 동포들을 대상으로 건강에 관한 강연을 하고 있다.

질환의 원인으로 스트레스로 인한 수면과 운동부족을 원인으로 제시했다.

모교 대학원에서 예방의학을 전공한 양서명 박사는 심장과 뇌 질환의 예방을 위해서는 연어와 연미, 브로콜리, 미역, 다시마 등 해조류와 신선한 과일과 채소, 콩과 견과류 등을 골고루 섭취할 것을 권유했다.

양서명 박사는 “식사량으로는 아침에는 많은 일을 해야 함으로 3, 점심은 2, 저녁은 1의 비율로 먹되 잠자리에 들기 2시간 전에는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몸에 좋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양 박사는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등산, 자전거타기 등 여가활동과 규칙적인 운동도 심장과 뇌질환 예방에 중요하다고 말했다.

양 박사는 “건강 유지를 위한 내용은 단순히 알고 있지만 해서는 안되며 일상 생활에서 실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팍 뷰 갤러리 'The Unheard Voices' 7인전

LA 한인타운 James M. Wood Blvd. 에 Park View Gallery가 새로 개관해 지난 해 12월부터 1월 14일 까지 개관 기념전, 2월 18일부터 3월 2일까지 7인전을 열었다. 이 갤러리는 남가주 공대 동창회 전 회장 김병연 동문이 부인 김문희 시인과 함께 설립, 예술인들의 장으로 마련한 화가·음악

가·문인들을 위한 '작가의 집'의 일부다. 'The Unheard Voices' 라는 타이틀로 마련된 7인전에는 Jane Chang·Michelle·Okka Kim·Sungchoe·Sungil Kim·Youngsook Shon·Yunjung Choi 등의 작품이 전시됐다. 사진은 왼쪽부터 미주 동창회

백육자 총무국장, 성주정 사무총장이 팍 뷰 갤러리 7인전을 관람한 후 김병연 동문(가운데)과 자리를 함께 한 장면이다. 김병연 동문 오른쪽은 Theresa W. Hwang 작가와 현재 작품을 전시중인 최성호 작가다.\*\*\* <홍선려 남가주 전 문화위원장>

### 조영식 박사 양년 91세로 작고



#### 경희대 설립자로 평생을 교육현장에서 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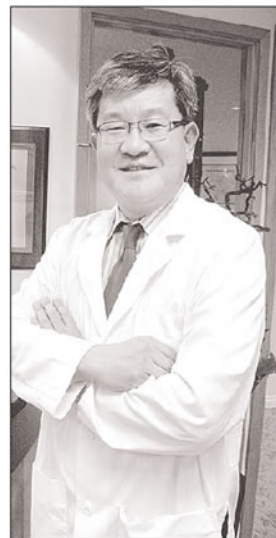
경희대학교 설립자 겸 경희학원 학원장인 미원 조영식 박사(사진)가 지난 2월 18일 수확으로 작고했다. 향년 91세다. 지난 1921년 평안북도 운산에서 출생한 고(故) 조영식 박사는 1947년 월남해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지난 1951년 6.25 한국 전쟁 중에 경희대의 전신 격인 신흥초급대를 인수해 오늘 날의 경

희대와 같은 종합대학으로 발전시켰다. 특히 경희대에 한의과 대학을 만들어 한국 최초로 현대 의학과 동양 의학을 접목시키는 새로운 시도를 하기도 해 큰 성공을 거두고 있다. 조영식 박사는 마이애미 대학 명예 법학 박사를 비롯해 세계 각국에서 총 34개의 명예박사 학위를 받았다. 제 1회 세계 인류학자 대회에서 인류 최고 영예의장, 하마슈트상, 세계 평화상, UN평화훈장 등 총 67개의 상을 받는 등 인권과 세계 평화에도 높은 공헌을 한 것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조영식 박사의 빈소는 경희대 서울·광릉 캠퍼스에 마련됐으며 영결식은 지난 2월 23일 거행됐다. 장지는 남양주시 조안면 삼봉리 천영이다. 조영식 박사의 유가족으로는 조정원 세계 태권도연맹 총재, 조인원 경희대·경희사이버대 총장, 조여원 경희대 동서대학 대학원 교수, 조미연 경희학원 이사 등이 있다.\*\*\*

### 이선오 동문 남가주 시과협회장 선임

#### 회원 네트워크·봉사활동 강화 다짐 밝혀

"한인 치과의사들 간의 교류를 강화하고 커뮤니티 서비스에 앞장 서겠습니다" 남가주 한인 치과협회(KADA)의 제 22대 회장으로 선출된 이선오 치과전문의(사진)의 포부다. 창립 42주년을 맞은 남가주 치과 협회를 앞으로 2년동안 이끌어갈 이선오 신임회장은 재임기간 커뮤니티 봉사활동 및 협회 회원들간 네트워크 강화하여 협회의 내실을 다진다는 계획을 밝혔다. 하 신임회장은 "일반 진료과목들과 다르게 치과 치료는 법률적인 문제로 인해 개별적인 무료 진료 행사를 개최하기 어렵다"며 "케어나우 LA가 연례행사로 진행하는 대규모 저소득층 무료 진료에 협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물론, LA 총영사관에서 정기적으로 열리고 있는 무료 검진 행사에 협회가 참여하는 것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 신임회장이 커뮤니티 서비스 확대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것은 회원간의 소통을 강화하는 것이다. 하 신임회장은 "협회 활동은 그동안 LA를 중심으로 활동이 이루어졌지만 앞으로는 샌프란시스코·남부·동부·북부 등 4개의 지역으로 구분해 해당 지역에서 활동하는 협회 회원들 간의 교류행사를 정기적으로 이어나갈 것"이라며 "해당 회원들 간의 멘토십 프로그램



을 실시해 1.5세 및 2세 한인 치과의사들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하 신임회장은 2년마다 실시되는 치과 라이선스 갱신에 대비해 협회차원에서 심폐소생술(CPR)과 법률 교육 제공 등 다양한 학술교류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며, 후배 치과의사 양성을 위한 '서머 인턴십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하 신임회장은 1962년 부산 출생으로 1987년 모교 치대를 졸업한 후 USC 치대에서 보철교정 전문의 과정을 마쳤다. \*\*\*

#### 삼가 명복을 빚니다

시카고 정승규 동문(공대 60 입)의 장모님 정덕기 여사께서 지난 2월 26일 향년 92세로 나일즈 요양원에서 선종하셨

다. 정승규 동문의 연락처와 주소는 630-668-6426(H) 773-286-8806(W) Sung Kyu Jung 2320 Appleby Dr. Wheaton, IL 60187

### 임봉기 행장 동포대상 무료 영어강좌



#### US메트로뱅크 임봉기 행장, 직장인과 업주들 위해 NYT 경제칼럼 등 강독

"한인 업주, 직장인들 사이에 영어공부 붐을 일으키야죠." LA의 가느그르브에 본점을 두고 있는 US메트로뱅크의 임봉

기 행장은 뉴욕 타임스 폴 크루그만 교수의 경제칼럼을 중심으로 지난 2월 6일(월)부터 영어를 직접 지도하고 있다. 임봉기 행장은 "단순히 영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참가자들과 토론을 통해 중·고급 영어의 독해력을 향상시키고 어려운 경제용어들을 쉽게 풀이 설명하며 경제칼럼을 통해 미국 경제의 흐름을 짚어간다"고 말했다. 임봉기 행장은 "우리 동포 직장인들과 업주들에게 정기적으로 영어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고 독서 클럽을 만들어 나간다는 취지다"며 "고급 영어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은 미국 경제·정치에 대해서 보다 더 폭넓게 알 수 있다는 의미다"고 말했다. 임 행장은 또 "이런이 계기가

되어 한인 커뮤니티의 젊은 직장인들 사이에 한국 직장인들 못지 않는 영어공부 열풍이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한인 은행가에서는 처음으로 시도하는 만큼 어떤 반응을 얻을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임 행장은 수강생들의 다양한 영어 과정 습득을 위해 뉴욕 타임스의 경제칼럼을 중심으로 여러 칼럼을 영어공부의 자료로 사용하고 있다. 점진적으로 영어공부 클럽이 확대되어 한인 커뮤니티 직장인들과 업주들 사이에 영어 독서클럽이 여가시간에서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다. 지난 1993년 이후 웰스-유니티·퍼스트 스탠다드 행장을 거친 임 행장은 모교 상대와 USC에서 학사·석사과정을 마쳤으며, 그동안 한인 커뮤니티에서 틈틈이 사업계 경영과 세무관리에 대해서 강의를 왔다. 임봉기 행장의 무료 영어강좌는 매주 월요일 오후 6시30분에 열린다. 강의 장소는 US메트로뱅크 (9866 Garden Grove Blvd.)에서 열리고 있다.\*\*\*

### 윤영자 동문 뉴욕에서 개인전

윤영자(미대 60) 동문이 지난 2월 29일부터 3월 24일까지 뉴욕의 Phoenix Gallery에서 그동안의 작품에 대한 개인전(오프라인 포스터 참조)을 열고 있다. 윤영자 동문은 평소 자신의 작품 세계와 이번 전시회에 출품된 작품의 성향에 대해 한마디로 "자연과 우리의 정신 세계의 아름다움을 간단히 정리해 그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윤영자 동문은 또 "이번 작

품은 '하늘'이라는 주제 속에 '안개(Foggy)'에 대해 그랬다"고 말했다. 윤 동문은 이 작품들을 통해 "젊은 날, 나는 산마루에 피어오르는 안개 속을 걷기를 좋아했습니다. 나는 지금도 안개 속을 걷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이렇게 반문하고 있다고 한다. 이번 전시회에는 자연의 신비로움이 가득한 'Foggy 1-2-3'를 특히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phoenix gallery associate artist group exhibition 2012 February 29 through March 24

John Hancock  
Maria-Louise McHugh  
Louise Weirberg  
Young-Ji Yoon  
Alice Braxton  
Phoenix Gallery  
211 West 4th St. Phoenix, AZ  
www.phoenixgallery.com

새 기획<한시(漢詩)감상>

靜夜思(정야사)

'한시(漢詩)' 라면 젊은 세대에겐은 아주 생소할 수도 있지만 60년대 이전 동문들에게는 아늑한 향수를 느끼게 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짐작한시들이 내포하고 있는 오묘하고 깊은 뜻과 시대를 풍자하는 맛에 취해보면 젊은이들의 생각도 크게 달라질 수 있다. 3월부터 김동근(공대 60) 동문이 꾸미는 '한시 감상'을 연재한다. <편집자 주>



김동근(공대 60)

한시(漢詩)는 중국에 국한된 문화가 아니라 세계 인류의 으뜸 중의 하나인 문화 유산입니다.

동양 문화권인 한국인으로서 쉽게 이해하고 즐길 수 있는 보고(寶庫)입니다.

우선 그 유명한 이태백(李太白 701-762)의 작품부터 시작합니다.

이 달에는 그의 짧은 근체시(近體詩)인 오언절구 중에서 '정야사(靜夜思)'를 골라 봤습니다.

<이 페이지는 김 동문이 acropolisimes에 연재 중인 것을 다소 수정해 보내온 것임>

靜夜思 (정야사) 李白(701-762)

床前明月光(상전명월광) 疑是地上霜(의시지상상) 舉頭望明月(거두망명월) 低頭思故鄉(저두사교향)

제목에 대한 한자 풀이는 고요할 '정(靜)', 밤 '야(夜)', 생각 '사(思)'

▶床前(상전): 많은 서양 번역처럼 그저 Bed 라고 함은 좀 어색하고, '平床(평상)', 그것도 울타리 없는 주막집 앞길 건너 벼 베논이 넓게 펼쳐져 있고, 앞은 산이 屏風(병풍)처럼 펼쳐진 곳에 놓여 있는 平床에 앉아서'가 어떨까요?

3번째 자(字) '明' 을 '看(간)' 으로 기록한 文獻(문헌)도 있습니다.

▶疑是(의시): 아닌가 의심(疑心)하다. 혹(或)은 '...듯하다'

예: 疑是銀河落九天(의시은하낙구천) 마치 은하수(銀河水)가 구천(九天 깊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듯 하구나(李白的望廬山瀑布 其二 終句).

▶霜(상): NAVER 한자사전에 의하면 서리 '상'

①서리, ②흰 가루, ③세월(歲月), ④깨끗한 절개(節概·節介)의 비유(比喻·譬喻), ⑤머리카락이 희게 생, ⑥날카로운 비유 ⑦엄한 법(法)의 비유, ⑧차가움의 비유 등

▶舉(거): 들 '거' 등, 이하 한자의 음과 뜻은 NAVER 한자사전을 참조 하십시오. (http://hanja.naver.com/hanja)

달빛에 서리는 고향, 그리고 초심

이 시를 그대로 번역하면, '평상 앞 밝은 달빛, 마치 서

리가 온 것 같구나. 머리 들어 밝은 달 쳐다보고 머리 숙여 고향을 생각하네.'

경세제민(經世濟民)의인 포부(抱負)를 이루지 못하고 다운은 어디로 갈 것인가?

정처 없는 객지(客地)에서 밤늦게까지 잠을 못 이루며, 천고수(千古愁)가 교차(交叉)되는 밤, 문득 본 밝은 달빛.

어릴 적 추수(秋收)가 끝난 어느 날 가족과 함께 평상(平床)에 앉아 보던 서리 내린 고향(故鄉)의 풍경(風景).

그 때의 순수감정(純粹感情: 初心)으로 돌아가 다시 시작(始作)하고 싶은 시인의 심정(心情)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성(自省)의 의(意)를 20字(明月頭 중복(重復)을 빼면 모두 17字)에 담았습니다.

달빛, 서리로 덮인 세상, 그리고 고향의 추억들은 터 없이 깨끗한 인간의 초심(初心)일 것입니다.

'초심(初心)'이란 중화(中和)라. 중용(中庸)에 이르기를 喜怒哀樂之未發, 謂之中. 發而皆中節, 謂之和. 中也者, 天下



之大本也. 和也, 天下之達道也. 致中和, 天地位焉, 萬物育焉(회노에락지미발, 위지중, 발이게중절, 위지화, 중야자, 천하지대본야, 화야, 천하지달) 도야, 치중화, 천지위언, 만물

육언) 시의 진미(眞味)는 독자가 만추, 공상하며 자의로 해석하는 것 아닐까요. 다음 달에 다시 찾아 뵈겠습니다.\*\*\*

한시 훈장 김동근 동문님에 대해

"김동근 훈장님!" 여기서는 이렇게 불러줍니다. 평소에는 모두 '대장님'으로 부릅니다.

모교 동문 산악회 대장님이십니다. 칠순 나이, 산 타고 바위 타는 일이 나이에 상관없이 하면 할수록 더 잘되나 봅니다.

어느 산을 가든 가장 빠르게 오르고 저지는 대원들을 자상하게 챙기십니다.

직업은 로켓 항법-항로 유도장치(Rocket Navigation and Guidance Systems)개발. 그리고 한시 수백 수를 즐

이 외우십니다. 산행 중 나무 그늘에 앉아 '대장 훈장님'이 이태백의 시를 낭송하는 것을 들으면 정말 선계에 한 발을 들여 놓은 듯한 기분입니다.

때로 바람이 품 속으로 사르르 기어붙고, 구름이 슬며시 베개가 되기를 자청합니다. 세상이 된것을 때, 봄벌을 이불 삼아 남쪽까지 그늘에서 꿈꾸는 듯도 합니다.

김 훈장님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산을 타기 시작했고, 지난 20년간 미국, 특히 캘리포니아 산을 두루 오르셨다고 하십니다.

환갑 기념으로 요세미티의 엘캡itan 바위를 3박4일에 걸쳐 등정. 3일 밤은 바위에 매달려서 잠을 주무셨답니다.

어릴 때 할아버지에게서 한문을 배우셨는데 그 때는 요리조리 피하는 공부를 더 많이 하셨답니다. 미국에 와서 친구 김윤경 동문(이 분도 모셔야 할 석학이시다)의 권유로 다시 한문 공부를 하고 한시를 읽게 되었다고 합니다.

김 훈장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시는 이태백의 '登金陵鳳凰台(등금릉봉황대)'

우리 몸은 분명히 동양인인데, 몇 세대 동안 서구의 혼을 배우는 공부만 한 탓으로, 우리의 정서가 일만큼 동양적인지는 의심이 가기도 합니다.

이 회회에 내 맘에 붙여 있을 동양 정서 복원 운동을 시작해 봅시다. <김지영(사대 69) acropolisimes.com>



"이번엔 후배님이 잡수셔야 하는데..."

남가주 동문들의 서클 중 하나인 '말수회(末水會)'가 지난 2월 29일(수) Arcadia의 Santa Anita Golf Course에서 정기 골프 모임을 가졌다. '말수회'란 글자 그대로 매월 마지막 수요일 만나는 모임으로 스포츠와 레저를 통해 동

문들의 친목과 유대 강화를 위한 모임이다.

지난 해 회원이 부족하여 50명을 훌쩍 넘기고 있다.

이 모임의 김상찬(문리대 65) 회장은 "우리 남가주에서 말수회는 이제 대표적인 동문들의 레포츠 모임이 되고 있다"

며 타 동문들의 가입을 적극 권하고 있다.

이 날 Skin 게임을 시작한 4조의 모 전 동맹회장께서 적지 않은(?) 수입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싱글 수준의 모 전 회장은 홀 집에서 5-6야드 이상은 그린 한 뒤 같은 조 동문이 1야드 이내로 붙이면 "이번엔 후배



←말수회 회원들 중 일부가 골프장에서 필드에 나서기 전 한 자리에 모여 기념촬영했다. ↑골프 행사가 끝나고 인근 음식점에서 뒷풀이 회식이 벌어졌다. 이날 오후조 미주 동창회 전 회장은 폭탄성(?) 칵테일을 제조해 직접 한 사람, 한 사람씩에게 배려해주는 수고를 해주었다.

님이 잡수셔야 하는 데..."라고 말함으로써 오히려 당사자에게는 은근히 부담돼 빈번이 퍼팅에 실패하곤 했다는 것.

그러면 모 전 회장은 귀신같은 퍼팅 솜씨로 따먹곤 해서 당사자는 "실력이 짧아 어쩔 수 없었지만 은근히 약이 오르더라"고 실트했다.

하지만 모 전 회장은 이날 적

지 않은(?) 수입을 모두 말수회 제정에 도네이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모임에 참가한 동문은 최용완·권봉성·김귀섭·현기용·류동용·문병길·지종근·이종도·최중혁·지인수·방석훈(부인 동반)·오홍조·제영혜·성주경·노명호·김윤호·김병연·백옥자 동문 등이다(무순).\*\*\*

기고

한반도의 비극



박키서(약대 60)

소위 선군정치로 그동안 남한에 온갖 반행을 자행하고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면서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등의 공갈 협박을 일삼아 오면서 줄타기 외교를 해오던 독재자 김 정일이 죽었다.

그동안 그를 위해 희생해 온 북한 주민들이 그의 죽음을 애도하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뉴스를 통해 여러 차례 보면서 북한은 참으로 이상한 나라라는 생각을 접을 수가 없었다.

더구나 이제 겨우 27세 밖에 안된 김정은이라는 젊은이가 아버지 후광을 등에 업고 새로운 3대 세습의 지도자로 부상하고 있다는 뉴스에는 북한이 과연 만만년 역사를 자랑하는 한반도의 반쪽인지 분간할 수가 없는 실정이다.

내가 만 8세 되던 해 6.25 전쟁이 일어났다. 서대전 시골에서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였다. 아버님은 당시 대전 형무소에서 간수(지금의 형무관) 직책으로 공무원으로 일하고 계셨다. 내 기억으로는 전쟁이 일어나기 1-2년 전부터 동네 어른들이 시골 들뜬에 자생하는 어느 풀잎에 자주색 반점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나라에 큰 변란이 일어날 흉조라고 말씀들을 하시곤 하였다.

아니나 다를까. 1950년 6월 25일 드디어 한반도는 유사 이래 전례를 찾아보지 못한 동족간의 피투성이 전쟁터로 바뀌었다. 서울이 함락된 지 얼마 후 우리 가족은 먼 친척이 살고 있는 흑석리라는 계룡산 근처 마을로 걸어서 피난길에 올랐다. 나는 그 마을에서 피난생활을 하면서 들뜬에서 풀을 뜯고 있던 어느 황소가 폭격에 의해 처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목격하기도 하였다.

가끔 북한에서 내려온 인민해방군들이 나와 같은 꼬마들을 모아놓고 '장백산'으로 시작되는 이북 애국가를 가르쳐 주면서 떡 등 먹을거리를 나누어 주기도 했다. 하루는 아버님께서 불 일이 있다고 하시면서 집을 나가셨는데 그 이후 오랫동안 종적을 감추시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마을 어느 산의 동굴 안에서 피신하고 계셨는데 대전에서 갔다 오시는 길에 인민해방군에게 체포돼 인민재판을 받게 됐는데, 그때 재판관이 아버님께서 대전 형무소 형무관으로 있을 당시 정치범의 한 사람으로 복역하고 있던 사람이었다고 했다. 당시 아버님과 같은 케이스는 반동분자의 한 사람으로 죽결

심판을 받은 후 총살형을 당하는 것이 보통이었는데, 놀랍게도 판결은 인민공화국에 충성을 맹세한 후 새로운 인민공화국의 건설을 위해서 무슨 일을 맡길 터이니 내일부터 이곳에 나오라고 했다 한다.

결국 죄수였던 재판관이 아버님 목숨을 살려준 셈으로 "평소 그 죄수에게 베풀어 주었던 온정에 대한 답례치고는 너무나도 과분한 선물이었다"고 하시면서 "평소에 어느 누구와도 적을 만들면서 살지는 말라"고 말씀하시곤 했다.

6.25가 끝난 후부터 아버님께서는 공무원 생활을 접으시고 장사를 하시면서 우리 5남매를 키우셨는데 그 이유는 전쟁중 경험한 여러 가지 쓰라린 고통이 주된 원인이었던 것 같다.

한국전쟁은 UN 군과 중공군의 개입으로 인친 상륙작전과 1.4 후퇴 등으로 엄청난 위기를 겪으면서 휴전이 될 때까지 3년 동안이나 계속됐다. 그로부터 많은 세월이 흘러 내 나이 이제 만 70세가 됐다. 61년 전 6.25 전쟁은 구 소련과 중공의 지원하에 북조선의 인민해방군이 소련제 탱크를 앞세우고 38선을 넘어서 기습공격을 해오면서 시작됐다고 한다.

지난 해 3월 피격된 전일합동 6.25때 상황과 같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시각에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처참한 모습으로 두 동강 나버렸다. 해방이 되던 해 한반도가 38선을 경계선으로 두 동강이 났던 것과 비슷한 모습이다.

나는 61년을 전후해서 일어난 6.25전쟁, 아웅산 데려, KAL기 폭파, 잠수함 침투사건, 연평도와 대청도 해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도발 등의 여러 사건들이 남한과 북한 주변 배후가 한반도 주변의 4대강국 조연배우들과 함께 38선이라는 분단선을 놓고 벌이는 힘겨루기 노름이라고 본다.

역사를 거슬러 옛 삼국시대를 되돌아 보면 지정학적으로 오늘날의 북한은 고구려, 그리고 남한은 신라와 백제 연합국으로 생각할 수 있었는데 아직까지도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분단국으로 남아 있다.

삼국시대 이후 고려와 이세조선이라는 이름으로 간신히 역사의 명맥을 이어오고 있던 이 한반도는 이웃 섬나라 일본인들이 101년 전 강탈한 후 36년간을 점탈하고 짓밟아오다가 1945년 세계역사라는 수레바퀴가 자유롭게 돌아주었다.

해방 후 5년 동안 한반도에 홀로 서기를 도와주겠다는 사랑 발원으로 북쪽의 아라사인들과 중국인들, 그리고 태평양 건너 미국과 유럽인들이 몰려들어 서로 집간하려고 인간됨을 쓰다가 뜻을 이루지 못했다. 지금 한반도는 61년이 넘도록 38선이라는 배꼽에 선을 그어 위쪽은 러시아와 중국이 차지하고 있는 모습이다. 요즘은 일본인들이 36년 동안이나 단물을 빨아먹고도 아직도 욕심이 남았는지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고 더러운 손을 내밀면서 더듬어오고 있는 형국이다.

북에 꼭두각시를 앉혀놓고 광대놀음하면서 불한당들이 한반

탈북난민구출 네트워크 구성



서경석(공대 67) 선진화시민행동 상임대표 서울 조선족교회 담임목사

지난 2월 14일부터 시작해서 매일 모이는 중국대사관 앞에서의 '탈북난민 강제송환 반대집회'가 계속되고 있다.

그동안 시민들이 보여준 참여 모습이 대단히 감동적이었다. 특별한 동원없이도 매일 100명으로 많은 때는 300명 넘게 모였다. 광주는 2월 23일 중국영사관 앞에서 집회했고 부산은 2월 29일 부산 중국영사관 앞에서 집회가 개최됐다.

최근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단식중인 박선영 의원을 찾아와 격려했는데 나는 두 가지를 확인했다.

하나는 정부가 중국대사관 앞 투쟁으로 중국에 대해 강경 자세를 취했다는 점이고 두번째는 중국대사관 앞 시민들 투쟁이 전 세계 여론에 불을 붙이고 있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민주통합당이 탈북난민 강제송환을 반대하는 국회 결의안에 동의한 것도 큰 변화다.

만일 민주통합당과 좌파정권이 탈북난민의 강제송환을 철저히 반대해 우리와 함께 이를 저지시킨다면 더 이상 좌파의 집권을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민주통합당과 좌파는 우리의 함께 중국대사관 앞 집회를 같이 해 주기 바란다.

그런데 그러려면 좌파는 H신문의 사설논조를 반대해야 한다. H신문은 차인표씨의 '탈북자를 돕는데 좌파가 있을 수 없다'는 말에 동의하면서도 "우리 정부가 중국에 대한 압박강도를 높이면 중국은 탈북자 단속과 강제송환을 강화할 것이다. 남북관계를 경제시킨 채 중국내 탈북자 강제송환을 비난하고 정치·외교 문제화하면 문제를 더 꼬이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강제송환 반대운동 반대가 H신문의 속셈임을 드러내고 있다. 중국이 강경정책을 쓰면 "봐라 우리가 뭐라고 했나" 하고 대들 것 같다. 강경정책의 책임을 중국에 묻지 않고 한국정부에 들릴 심산이다. 강제송환을 반대하면서 남북경색이 풀어질 수 없다. 그래서 H신문은 남북경색을 푸는 것이 제일 중요하므로 강제송환 반대를 하지 말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H신문을 보면서 나는 과거 군사독재정권 하에서의 중도통합론, 일제시대 이광수씨의 민족자치론을 연상했다. 군사독재는 민주화를 통해, 일제는 패망으로 끝장나야 했다. 적당히 타협하자는 H신문 논조는 북한수령 독재체제의 영속화와 북한인들의 끝없는 고통을 의미할 뿐이다.

요즘 한·중간 탈북자 혐의가 어려워졌지만 이 점은 한국정부의 반대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이 아니다.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중국정부의 걱정이 커졌기 때문이다. 우리는 오히려 지구를 북한의 개혁개방과 인권신장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중국의 변화 없이 한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조선족 지식인들은 중국이 빠르면 5년 내, 길어도 10년내 민주화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만큼 중국인민의 인권의식이 커졌다는 것이다.

중국이 한국을 위시한 전세계의 도덕적 압력을 견디다 못해 강제송환을 중단할 때 한반도의 미래가 있다. 그리고 중국이 민주화돼야 세계평화가 실현될 것이다.

지난 70년대 젊은이들이 군사독재와 싸우면서 수없이 감옥을 갔다. 그로부터 10여년이 지난 후에야 민주화가 이루어졌다. 70년대 초 민주화의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도 고난의 길을 택했던 젊은이들이 없었더라면 민주화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처럼 탈북난민 강제송환도 인젠가 반드시 중단될 것이다.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 투쟁해야 한다. 좌파도 우파도, C일보도 H신

문도 같이 이 길을 가야 한다.

H신문에 부디 호소한다. 민족자치론과 같은 타협론, 굴종론을 피력해서 항의운동을 때매지게 하지 말라.

지난 2월 24일 중국대사관 집회에 참여해 온 단체들이 회의를 했다. 그리고 이 집회가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중국정부가 계속 잡아들이고 계속 송환시키기 때문이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집회를 중지할 수 없다. 더구나 지난 7-8년 동안 이번처럼 이슈화된 적이 없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되므로 기필코 강제송환을 막아야 한다.

단체 대표들은 장기화 국면에 대처하기 위해 '탈북난민구출 네트워크'를 출범시켰다. 그리고 이 네트워크에 모든 애국단체들과 개인이 가입할 것을 호소키로 했다. 네트워크 가입은 070-7683-3058(시민행사무실 전화)로 하면 된다.

단체 대표들은 장기화 국면에 대처하기 위해 '탈북난민구출 네트워크'를 출범시켰다. 그리고 이 네트워크에 모든 애국단체들과 개인이 가입할 것을 호소키로 했다. 네트워크 가입은 070-7683-3058(시민행사무실 전화)로 하면 된다.

세일 중요한 일은 참여인원이 매일 500명 이상이 되는 일이다. 이를 위해 특히 교회에 호소하는 데 교회가 참여하면 훨씬 수월해진다. 우리도 집회 참석자를 연락처를 열심히 모아 네트워크를 강화할 것이다. 또 장기화에 대비해 박선영 의원은 앞으로는 두주일만 단식하도록 강력히 권유하고 있다.

새로운 단체들이 주춧돌 수 있도록 집회운동도 개방적으로 한다. 지난 2월 29일 기독교, 3월 1일 불교, 2일 가톨릭이 주춧돌(담당 정혜도 010-8271-0444). SNS를 통한 홍보도 하고 홈페이지도 만든다. 중국 네티즌을 위한 중국어 홈페이지도 만든다.

또 온라인과 오프라인 서명도 적극 전개한다. 국제서명운동은 #Save my Friend(www.savemyfriend.org)가 하고(담당 김지유 010-7141-0724) 오프라인 서명은 모든 단체가 전부 참여한다(담당 서연희 010-7700-1693).

대학 내에서의 서명운동을 전개할 대학생들도 찾고 있다. 그리고 매일 오후 1시 중국대사관 앞 옥인교회에서 샌드위치를 먹으며 참여단체 대표들이 '탈북난민구출 네트워크' 회의를 하고 있다.

'탈북난민구출 네트워크'에 단체가입 혹은 개인가입을 해주는 참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다.\*\*\*

도 이 아름다운 여인을 어떻게 하면 자기 것으로 만들어볼 것인가 하고 궁리를 하고 있다.

이것이 1910년 한일합방 이후 전략한 우리 조국 한반도의 모습이었던 너무나도 과장된 표현일까?

1950년부터 3년 동안 피비린내 전쟁을 치른 후 삼천리 금수강산 아름다운 한반도는 별거 없었지만, 요즘은 얼굴에 화장을 하고 좋은 옷을 입혀 화려해 보이기는 하다.

남한의 팔복합만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위협 때문에 어떠한 이변이 일어나지 않는 한 이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와 민주주의가 정착되기는 요원할 것 같다. 이러한

모습의 한반도의 비극을 그누가 알아주고 동정해줄 것인가?

우리는 61년 세월을 두고 일어난 여러 사건을 통해 우리 민족의 위치가 세계사의 좌표에서 어디에 와 있는지를 자각하고, 아직도 한반도의 주인인 남한과 북한은 그 어느 나라도 우리 한민족을 위해 38선이라는 분단선을 허물어주지는 않을 것이다.

더구나 한반도 주변의 4대 강국은 그렇게 손쉽게 한반도에서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I will leave you guys alone!)"라면서 시원스럽게 물러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아야 할 것이다. 있을만 하면 터뜨리는 북한의

도발 행위가 또다시 6.25와 같은 전면전으로 확대되는 비극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며 또한 우리는 결코 101년 전 일본에게 국권이 피탈되던 모습을 잊어서도 안될 것이다.

천안함이 두 동강이 나 침몰했듯이 만만년 역사를 이어오고 있는 한반도가 38선이라는 분단선 때문에 침몰되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는가.

지나간 한 세기 동안은 너무나도 서글프고 통탄할 한반도 민족 공동체의 비극적 수난사에게 주는 고난의 뜻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조국의 앞날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시국이다.\*\*\*

판악세대/Acro 광장(법창일화<7>良心不在)악랄한 사기 행각

### 매상에 계약내용도 속인 전 입주, 끝까지 응징



박준창(인문대 79) 변호사

세상에 참 양심이라고는 없고, 옳고 그름의 개념이 없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결국엔 법에 의해 응징당하는 그런 사람의 얘기를 오늘은 해 볼까 합니다.

▶**중등 출신의 사기꾼**= 중등 지역 어느 나라에서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씨가 특이해서 자신의 이름만 말하면 누구나 그 나라 출신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벨리 지역에 두 곳의 아이스크림 도매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가치가 각각 100만 달러 정도 나가는 상업용 건물도 2채나 소유하고 있었고 용자금 상황이 풀날 집을 담보로 재용자를 해서 이 상업용 건물에 대한 용자금을 다 갚아 버렸습니다. 제법 돈이 많은 사람이지요.

그런데 그 중 하나의 아이스크림 도매 가게가 잘 안되고 있었는데 가게를 팔려고 내어 놓았습니다.

매물 광고를 보고 어떤 우리 동포께서 관심을 가졌고 이 가게를 매입하기로 마음먹고는 매상 확인을 나갔습니다.

▶**우리 동포가 미끼 물어**= 이 사람이 나가 보니 손님들이 줄을 서서 아이스크림을 사 가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현금으로 결제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대단히 만족해서 서둘러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100만 달러에 매매하기로 했고 그 중 35만 달러는 전 주인이 용자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반경 5마일 이내, 5년간 같은 아이스크림 도매 가게는 하지 않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가게 시작 후 2개월이 됐는데 전 주인이 말한 매상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었습니다. 전 주인이 말한 매상의 1/3도 안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원인은 간단했습니다. 매상이 그렇게 오른 적이 없었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전 주인이 친척과 친구를 동원하여 현금을 주고 매상을 확인하는 날 줄을 서서 아이스크림 구매를 시키고 곧바로 가게 뒤로 돌아 가서 다시 냉동고에 넣는 것을 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2마일 떨어진 곳에서 전 주인이 똑같은 아이스크림 도매 가게를 운영하며 자신의 옛 손님들을 끌어 들이고 있었습니다. 가게 매각시 자신의 친척이 그곳에서 아이스크림 도매 가게를 한다며 자신과는 관계없는 가게라고 하였는데

알고 보니 친척은 명의만 빌려 주었을 뿐 전 주인이 실질적으로 소유, 운영하는 가게였고 이 친구가 매일 나와서 영업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종업원도 분개**= 그리고 또한 재고라고 남겨 준 것이 짧으면 2년, 길면 4년이나 된 오래 된 아이스크림이었습니다. 그렇게 매상을 속인 사실은, 새 주인이 너무 당했다고 생각한 가게의 종업원들이 새 주인에게 알려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분개한 새 주인이 항의를 하였는데 전 주인 대답이 격적이었습니다. “매상 확인시에 누구나 다 매상을 높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나는 남들 하는대로 그렇게 했을 뿐이다.”

양심은 자기 나라를 떠날 때 두고 온 것인지 너무나 기가 차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새 주인이 탄식하며 하는 말, “이 친구 자기의 신을 두고 하는 맹세도 다 거짓이더라.”

같은 아이스크림 가게 운영에 대해서는 부동산 중개인이 잘못해서 그런 경영 금지 조항을 계약서에 넣었다고 했고 그런 조항이 없는 계약서를 자신은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을 다 새 주인에게 주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때 판사가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당신의 의뢰인은 그렇게 중요한 문서를 그런 식으로 보관을 하느냐? 그것이 당신 의뢰인이 사업체를 운영하는 방법 이냐?”

▶**판결도 무시한 철면피**= 그러고는 바로 영업 금지 가처분 명령을 내려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 주인은 판사 명령도 아랑곳 하지 않고 계속 그곳에서 자신이 영업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새 주인은 제가 시키는대로 전 주인을 영업 장면을 사진과 비디오로 찍었고 전 주인을 법원 모독죄로 걸었습니다(판사의 명령 위반은 대부분 준 형사 문제인 법원 모독죄로 처벌 합니다).

그래서 법원 모독죄 재판이 열렸고 이 친구는 벌금을 두들겨 맞았습니다. 이렇게 소송이 2개월 정도 진행되는 사이 새 주인은 아이스크림 가게에 정 나미가 떨어졌습니다.

“정 그렇다면 가게를 버리고 나오시라”고 권고해드렸고 새 주인은 제 권고대로 가게를 버

### “친척과 친구를 동원해 가짜로 아이스크림 사고 팔고 가게 뒤에 가서 다시 냉동고에 넣어..., 가게 팔고는 다시 인근에 똑같은 가게 열어 버젓이 영업체속”

리고 나왔습니다. 어차피 사기로 인한 계약 무효를 주장하였으므로 가게를 돌려주고, 주었던 매입 대금도 반환하라는 것이 소송 이유 중의 하나이기도 했으므로 버리고 나와도 상관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더구나 이 분은 오랜지 카운터 남쪽 끝에서 출퇴근 해야 했으므로 그 불편함도 대단했습니다.

▶**전 종업원을 협박**= 이쥬든 소송은 진행되어 재판이 다가왔고, 매상 조작을 목격한 가게의 종업원을 증인으로 법원에 출두시켜야 했는데 전 주인은 가게 종업원을 협박하는 것이었습니다.

밤중에 전화를 걸어 “당신은 불법 체류자이므로 법원에 나오면 이민국에 고발하겠다. 이 땅에 못 살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그래도 이 종업원을 설득하여 재판에 데리고 나왔습니다. 재판 당시 이 종업원은 가게를 그만 두고 주택 수리 일을 하고 있었는데, 재판 때문에 일을 못할 것이므로 하루 일당 지불을 약속했습니다(너무 많이 주어도 상대방에서 증인 매수라는 공격이 들어오기 때문에 많이 주고 싶어도 못하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리고 행상에게 판매한 죄로 벌금 납부를 발부했던 경찰관도 증인으로 채택했는데 증인으로 나온 불법 체류자인 전

상 조작부터 증인 협박까지를 다 증언해 주었습니다.

▶**판수 쓰다 가중처벌**= 덕분에 저희는 승소를 했고 매입 대금 65만 달러 반환, 전 주인이 가게 매입 대금 용자금 35만 달러 남부 의무 취소, 저희 측 변호사비 추정, 소송 경비 추정 등 해서 70만 달러를 돌려 주라는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 주인이 끝까지 저항을 하더군요. 70만 달러에서 5만 달러를 깎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70만 달러 남부 시한을 제시했습니다.

“하루라도 늦으면 법정 금리 인 연 10%로 이자 계산을 하겠다. 이자 계산이 지금부터가 아니고 가게 매매 계약 취소를 요구한 날 부터다. 그래서 제가 요구한 남부 일자보다 늦으면 그때는 2만 달러가 이자로 더 붙는다.”

그림= 박준창 화백

동문 시 감상

### 조명 관계



서량(의대 63)

색깔을 원했던 거다 입에 절로 침이 고이는 과일 그림도 좋고 일대의 섬에서만 서식하는 화려한 꽃 무리의 난동이라도 괜찮아

정물화가 동영상으로 변하고 있어요 무작위로 흔들리는 미세한 바람이며 부동산자세로 숨을 새근거리는 새들이 아올려요

선명하게 아올리고 있어요

미미한 혼적으로 남을 우리들 누구도 서둘러 떠나지 않을 거다

보일 듯 말듯 가물가물 빛을 흡입하는 색깔의 아우성을 듣는다

시퍼런 탐종동이 빛을 절단하는 어둠의 틈서리에서 우리는 금세 몸을 뒤척인다

◀Profile▶ 1973년 도미, 코넬대학 정신과 레지던트 수료. 현 New City, NY 거주. 현 NY 주 Rockland Psychiatric Center, 성격장애 병동장. 1988년 뉴욕 한국일보 신춘문예 시부문 당선으로 한국 문단 등단. 시집 <맨해튼 유람극단 (2001)>, <브롱스 파크웨인의 운동화 (2003)>, <푸른 절벽 (2007)> <stickpoet@hanmail.net>

종업원은 경찰관을 보는 순간 얼어 붙는 듯 하더군요. 좀 더 나은 삶을 위해 남의 나라에 머물러 있는 것이 그렇게 큰 죄가 되는지 측은하기만 했지만, 이 종업원은 용기있게 매

전 주인은 이 날짜 안에 지불을 하지 않았습다. 전 주인 소유 상업용 건물의 처분을 막기 위해 저는 재빨리 이 건물에 승소 판결 근저당권을 설정 하였습니다.

그 다음 절차로 이 건물 중 하나만이라도 경매에 부치면 승소 판결 금액 변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전 주인이 그제서야 판결 금액을 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했죠. “지불 일자가 늦었다. 72만 달러를 내려면 내고 아니면 우리가 알아서 판결 집행을 하겠다.”

저희는 결국 며칠 뒤에 72만 달러를 다 받아냈습니다. 마지막까지 판수를 쓰다가 더 당한 것이지요.

돈 보다도 올바른 삶이 중요하고 올바르게 살려면 돈으로도 손해를 본다는 교훈을 그 전 주인은 이제는 깨달았는지...

어쨌든 새 주인은 속 시원하게, 앞면 이 페고, 매입 대금 반환 뿐만 아니라, 법원 모독죄로 전 주인이 납부한 벌금에, 시중 금리보다 훨씬 높은 이자까지 챙겼고요. 제게는 고맙다고 이따리야 제 양복 한벌이 돌아 왔습니다.

법의 정의가 살아 있을 때 변호사는 보람을 느낍니다.\*\*\*





이 달의 초대석 <4> 한덕수 전 주미 대사(한국 무역협회 회장)

# “최상의 한·미 관계강화 일조에 큰 보람”

## 13년만의 우리 대통령 국민방문 미의회 연설 한미 FTA협정 타결, 북한 도발 억제능력 확보

미주 동창회보 편집위원회에서는 '이달의 초대석' 동문으로 한덕수 전 주미 대사(현 한국무역협회 회장)를 초대했다. 이는 워싱턴 DC의 오인환 미주 동창회 차기 회장이 지인수 동창회보 편집위원장의 의뢰로 한덕수 전 대사가 한국으로 귀국하기 직전 열린 송별 연회에서 만나 인터뷰한 뒤 기사를 작성한 것이다.

오인환 차기 회장은 지난 2월 25일 워싱턴 DC. 지역 동창회 주최로 열린 한덕수 전 대사 송별 연회에서 이처럼 한덕수 전 대사와 인터뷰를 하고 부부 동반 사진을 촬영했다.

그 뒤 부족한 부분은 한 대사와 e-mail 을 통해 확인을 받아 다음과 같은 기사를 작성한 것이다. 학력 및 경력사항은 네이트 인물검색에서 인용했다.

다음은 오인환 차기 회장이 한덕수 전 대사와 송별회에서 실시한 인터뷰 기사 내용을 다시 정리한 것이다. <편집자 주>

“한덕수 대사님께서는 지난 2009년부터 3년 임기를 마치고 3월 초 한국으로 귀국해 한국 무역협회 회장으로 가시게 되신 것으로 압니다. 우선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미 대사로 3년간 미국 상하원에서 한·미 Free Trade Agreement (FTA) 비준을 위하여 동분서주하시고 비준을 성사시키는데 지대한 공을 세우셨습니다. 귀국하시기 전에 이 자리를 통하여 재미 서울대 동문들을 위하여 남기고 싶으신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 미국에 3년간 주미 대사로 계시면서 하신 일과 그 중에 가장 가치가 있었던 일을 말씀해 주십시오.

오바마 대통령의 취임 후 대사로 취임하여 한·미 관계를 최상의 관계로 강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였습니다. 2011년 10월 13년 만에 이루어진 우리 대통령의 미국 국민 방문과 의회 연설은 최상의 한·미 관계를 보여준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한·미 관계는 한·미 외교의 주축으로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고 우리의 경제적 발전을 가능케 해 왔습니다. 지난 2009년 6월 양국 정상은 한·미 동맹을 이제까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는 데에서 확대하여 두가지 방향으로 한·미 동맹을 강화시켜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첫째, 한·미 동맹을 한반도 중심의 동맹에서 동북아·아시아·더 나아가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동맹 관계로 발전시키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동맹으로 전환키로 한 것이지요. 이를 위해 이라크·아프가니스탄의 전후 안정화를 위한 협력,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국제사회에서의 협력, 탈빈곤, 해적행위의 근절,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등에서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둘째, 한·미 자유무역 협정의 비준, 발표를 통한 경제적 동맹 관계를 추가하여 한·미 동맹 관계를 전통적 안보 동맹에서 다원화된 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지난 3년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핵실험, 친안함 격침, 연평도 포격 등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도발이 있었습니다.

그 때마다 한·미는 굳건한 동맹의 기초 위에서 대응해 왔습니다. 최선의 한·미 관계는 최상의 협력과 조율을 가능케 하였습니다.

한·미 자유무역 협정은 향후 한·미 경제의 발전과 좋은 일자리 창출,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나갈 것입니다. 양국의 어려운 국내사정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미 FTA는 미국이 맺은 단일 국가로서의 FTA로서는 가장 큰

FTA이며 NAFTA 이후 16년만의 가장 큰 FTA입니다.

가장 가치있었던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북한의 도발에 대해 한·미 동맹을 기초로 국제사회와 함께 추가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군사적 억제능력의 확보를 들 수 있습니다.

둘째, UN을 중심으로 한 국제체계의 강화입니다.

셋째,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대화의 모색 등 한·미가 다원적인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정책 조율 능력과 상호 신뢰를 확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 이임하시면서 재미 동문을 위하여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것이지요.

재미 동문은 어디를 가나 우리 미국 주류사회에 진출하여 좋은 평을 받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전문직종에 종사하시는 동문들이 많고 모두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한·미 관계는 앞으로도 우리의 안보와 경제적 발전을 가져오는 주춧돌 역할을 계속 할 것입니다.

진정으로 한·미 관계가 커다란 반석 위에 오르려면 양국의 일반국민이 서로에 대해 존경하고 호감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정부와 대한민국에 거주하시는 국민들의 역할도 물론 중요합니다. 미국에 거주하시는 우리 동문들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재미 우리 동문들의 기여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동문들의 역할이 더욱 크게 기대됩니다.

- 한국 무역협회 회장으로서의 역할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무역협회는 한국의 무역을 담당하는 7만개의 무역업체로 이루어진 단체입니다.

60년 전 불과 5천만 달러의 수



↑ 지난 2010년 7월 미국 하원 의원들로 구성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워킹그룹의 출범식에 참석한 한덕수 전 주미대사가 의원들을 상대로 당시 우리 한국 정부 측의 입장을 설명하는 모습이다.

출 실적에서 작년에는 1조 달러의 무역고를 달성하는데 중시 역할을 한 조직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구성되기도 전인 1946년에 발족한 단체로서 역사를 자랑하는 경제인의 단체입니다.

더구나 지난 2010년 G-20 정상회의와 3월에 50개국 이상의 정상회의가 열리는 한미 정상회의가 열리는 등의 기회를 가지고 있는 단체이기도 합니다. 개방과 국제화의 상징인 단체입니다.

지난 38년간 우리 정부에서 쌓은 무역과 통상분야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무역이 더욱 신장되고 우리 대한민국의 세계의 선진국가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 기타 동문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지난 3년간 주미 한국대사로 근무하는 동안 미국내의 31개 주와 57개 도시를 두루 방문하였습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우리 동문들께서 행사에 참여하여 주셔서 저에게는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굳건한 한·미 관계가 유지, 발전될 수 있도록 각 지역사회 및 연방, 주 차

원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과 호감을 가질 수 있도록 지금까지와 같이 많은 기여와 활동 있으시기 바랍니다.

- 출국을 며칠 앞두고서 바른 일절에도 이렇게 나오시어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재미 우리 동문들이 모두 감사를 드리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한국무역협회 회장으로 일하시면서 많은 업적을 만들어 가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인환 미주 동창회 차기회장>

한덕수 한국무역협회 회장

학력 및 경력, 수상 내역

<학력> ▶경기고 ▶상대(67입)

<학력> ▶대 학 대 학 원

Ph.D.(경제학)

<경력> ▶1970 제8회 행정고시

▶1979 경제기획원 사무관

▶1989 상공부 중소기업국장

▶1993 대통령비서실 통상산업

비서관 ▶1996 특허청장

▶1997 통상산업부 차관

▶2003 산업연 구 원 장

▶2004-2005 국무총리실 국무

조정실장 ▶2005-2006 재정경

제부 장관 ▶2006 한미FTA 체

결 지원위원장 ▶2007-2008 국

무총리 ▶2008 국민경제자문회

의 위원 ▶2009-2012 주미 한

국 대사 ▶2012 제28대 한국무

역협회 회장

<수상> ▶1971 대법원장상

▶1992 황조 근정 훈장 ▶2003

제1회 암참어워드 한미 경제

교류 공헌상 ▶2007 철재 대심

자 훈장.\*\*\*



←한덕수 전주미대사가 임기를 마치고 한국 무역협회 회장으로 부임하기 전 2월 25일 워싱턴 DC. 지역 동문들이 마련해준 송별회에 부인과 함께 참석해 동문들과 아쉬운 석별의 정을 나누었다.





<오연천 총장 특별 강연 요약 발췌문 1면에서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날의 피와 땀과 눈물의 결정체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것이 한국인으로서 Pride, 미국인으로서의 여러 분의 Honor 일 것입니다. 일전 남가주 동창회장님께서 ‘모교 발전을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하는 질문을 받았습니니다. 여러 분이 미국인으로 건설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모교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미국인으로 성공하는 것이 바로 자랑스러운 한국인이요, 바로 서울대인인 것입니다. 저는 결코 모교발전을 위한 모교를 위해 이 자리에 오지 않았습니니다. 오히려 동문 여러 분들을 돕기 위해 왔습니니다.”

“현재 미국의 가장 큰 장점이 4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Tax Pay와 탈세 방지입니다. 미국인으로서 가장 애국적인 것으로 ‘납세의 의무’를 들 수 있습니다.”

“미국이 오늘 날 세계의 초강대국이 된 전환점은 어느 시점이라고 하겠습니까. 지난 20세기 초까지 미국은 Federalism과 Statism이 서로 충돌했습니니다. 그러나 1918년 연방소득세 제도가 생긴으로써 각 주(State)에 세금을 내던 것이 연방정부(Federal)에 내게 돼 미국이 오늘 날처럼 강한 미국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두번째는 National Air Force와 같은 막강한 군사력을 갖게 된 것이고, 세번째는 스탠포드와 예일대 등 밤에도 불이 꺼지지 않은 연구 정신입니다.”

“네번째는 불굴의 글로벌 기업가 정신입니다. 여기 계신

↓세리토스 시 의원인 조재길 동문(왼쪽)도 참석했다. 최중혁·김삼찬(말수회 회장) 동문, 지중근 동문 부부.



↑(왼쪽부터) 오홍조 미주 동창회 전 회장, 오연천 총장, 김은중 미주 동창회장 부부가 함께 교가를 제창하고 있다.

김은중 미주 동창회장님도 그런 분들 중 한 분입니다.”

“따라서 우리 관와 캠퍼스에 불이 꺼지지 않는 것이 바로 애국주의이고 애교정신일 것입니다. 위의 4가지에 과연 내가 어디에 기여하고 있는가를 깊이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공한 미국인으로서,

여러 분들의 자부심일 터이며 제가 모교를 대표해 경의를 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두번째는 지에 대한 긍증증이 많으실 것입니다. 저는 지난 1951년 충남 공주에서 7남매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니다(중략).”

“문리대 정치학과에 1970년 입학해 당시 예외적으로 행정고시



↑한중철 남가주 발전위원회 위원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서치원 남가주 동창회장이 환영사를 낭독하고 있다.

### “미국인으로서의 Honor, 한국인으로서의 Pride, 서울대인으로서의 Honor가 생명력..., 모교 법인화는 진정한 자율적 지위를 얻은 것, 글로벌화의 큰 전환점일 터”

자랑스러운 한국인, 명예스러운 서울대인으로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의 동문 여러분들은 바로 우리 서울대 정신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오신 동문들께 말씀드릴 것은 또 있습니다. 첫째, Self Confidence를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동문

에 합격했습니다. 이후 공무원 생활중 1977년 처음 생긴 공무원 해외유학생 제도 제1회로 미국에 왔습니니다. 한터수 전 주미대사도 나와 같은 제1회 출신입니다.”

“공무원 유학기간을 마치고 다시 공무원으로 복귀하지 않고 1977년부터 유학생들을 계속한 것이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됐습니니다. 이후 뉴욕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1983년부터 모교 행정대학원 교수가 되고 나서 모교 봉직으로 현재 만 29년입니다.”

(오 총장은 “유학생들 경험담을 꺼내는 것은 ‘Honor와 Pride’ 발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오 총장은 “당시 500달러 짜리 차에 동료 3가족이 타고 주말 나들이를 가다 실수로 고급 벤츠 스포츠 무개차에 접촉 사고를 냈다. 그런데 상대 백인은 ‘어데 다친 곳은 없느냐’면서 ‘그냥 가라’고 했다. 이것이야말로 미국의 정신을 그대로 드러낸 하나의 예가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그 벤츠 스포츠 카가 보인

연행이 바로 ‘Honor와 Pride’ 자체라는 것이다. 정치적인 강자, 경제적인 강자, 사회적인 강자가 상대적인 약자와 부딪혔을 때 보일 수 있는 최대의 야망과 판단한 정신, 이것이 오늘 날 미국사회의 생명력이며 연방정신이라는 것이다.

오 총장은 “1983년 서울에서 농

천600억, 내년에는 3-5% 정도 증액될 것입니다. 학문 연구기관의 진정한 자율이란 재정성이 확보될 때 보장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재정뿐 아니라 운영상의 자율성이 보장됐기에 보다 가치있는 학문적 글로벌화의 큰 전환점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교수들의 책임이 더욱 커질 것입니다. 과거 미주 유럽의 학문을 전달하던 수준에서 이제는 우리 학문을 미주 유럽에 전하는 수준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서 경쟁 사회에 기여하는 대학, 보편적 사회적 가치를 가지는 대학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 지식인들의 역할이 무엇이겠습니까. 지난 5-10년 전에 비해 우리의 국론은 더욱 분열돼 있습니다. 한미 FTA, 제2도 해군기지 반대 등이 예증 하나입니다. 어떤 의제에 대해 결론은 하나로 뭉쳐야 하나 더욱 분열이 되고 있습니다. 내가 옳고 상대가 틀리다는 것은 전체 의제의 흐름 속에 상대주의적 가치관이 서야 토론과 대화도 바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법과 제도 이전에 강자가 약자에 대해 더 많이 배려하고, 더 많은 야망을 배풀 줄 알아야 약자는 강자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습니다. 내용과 결과보다는 과정과 절차가 중요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서울대인들의 역할이 더욱 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끊임없는 헌신과 인내심, 나눔 속에서 동문 여러분들의 미국인으로서의 Honor, 한국인으로서의 Pride, 서울대인으로서의 Honor를 향유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편집주간>





뉴 잉글랜드 동창회

### 포항공대 박선영 교수 강연의 가져

뉴 잉글랜드 동창회가 우리의 잃어버린 역사와 영토에 대해서 포항공대 박선영 교수를 초청해 3차례 강연회를 가졌다.

윤상래(수의대 62) 전 동창회장은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돼 오고 있으나, 한국의 정치권은 비전이 없는 권력 투쟁에만 집착하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고 한다.

박선영 교수는 현재 하버드대 연경 연구소 방문 교수로 중국 근현대사를 전공했다고 한다.

박선영 교수는 ‘만주·간도·백두산: 영원한 한민족의 숙원’을 주제로 강연을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윤상래 전 회장이 이를 요약 발제했다.

박 교수의 강연은 김은한(의대 60) 동문이 유치했다고 한다. 다음은 윤 전 회장이 박 교수의 3차례 강연을 요약한 것이다.

▶ **왜 만주인가=** 한국에서는 ‘만주’로 부르지만 중국은 ‘동북’으로 부르는 만주는 전

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으로 고구려·원·청·일본 등과 같이 만주를 차지하고 있을 때 그 국가가 가장 강성했다.

원래 역사적으로 만주는 중국 한족의 땅이 아니다. 러일 전쟁(1904-1905)의 결과 일본은 남만주를 차지하게 되자 점차 태평양 시대를 열어 1941년 12월 7일 미국의 진주만을 공격, 태평양 전쟁을 벌이지만, 치열하게 참패한 일본은 만주를 잃게 되고 중국 공산당이 만주에서 시작해 국민당을 물리치고 현재의 중화 인민 공화국을 건설했다.

중국이 ‘동북을 장악하는 자가 세계를 장악한다’고 할 만큼 전략적·경제적으로 아시아에서 가장 긴장된 곳이 만주다.

중국은 만주의 지하 자원과 산림·어업·농업 등을 개발해 러시아 국경까지 확대해 왔으며 ‘동북이 없으면 중국이 없다’라고 할 만큼 동북(만주)의 국제 관계 변화는 만주의 정치적 위상 변화

↑박선영 교수(왼쪽)와 김은한 동문(의대 60)이 강연후 자리를 함께 했다.

를 가져오고 있다.

이 시각에도 중국 정부의 핵심한 탄압을 받는 탈북 난민 문제로 만주는 한층 더 국제적 주목을 받고 있다.

▶ **왜 간도를 논하는가=** 서기 1712년 조선과 청나라는 변경을 답사하고 백두산 정계비를 설치했으나 후에 간도 영유권이 문제가 되자 청은 “조선의 국경이 토문(土門: 실제로 두만강 북쪽 송화강 지류) 즉 두만강(청의 주장으로 토문의 한글 해석이 두만강이라 하여)이다”고 우겨 갈등이 증폭했다.

1885년과 1887년 조선과 청 간의 강제회담에서 국경문제로 다시 답판했으나, 청의 세력에 밀려 최종 결과를 얻지 못하고 결렬됐다. 그후 1909년 일본은 만주 철도권과 지하 자원 개발 야심으로 조선의 간도를 청에게 양도한다는 조약을 체결했다.

당시 청나라 강회제의 요청으로 프랑스 선교사가 중국 지도를 그렸는데 1718년 출판된 지도에는



↑뉴잉글랜드 동창회의 윤상래 전 회장

조선의 영토가 분명히 서간도와 북간도를 포함해 압록강과 두만강 뒤편으로 국경선이 뚜렷이 표시돼 있다.

그러나 중국은 이 사실을 부인해 왔고, 간도에 많은 한인들이 살고 있음에도 ‘간도는 일본이 날조한 것이며 한국이 영토 욕심으로 주장한 것’으로 고집해오고 있다.

1945년 일본의 패배와 남북한의 양단, 중국의 공산정권 수립 등으로 우리는 간도의 중요성을 잊고 있는 동안 중국은 적극적인 중국인의 간도이민 장려, 동북(간도와 만주지역 포함)의 중국 역사화, 한인 귀화 문제 정리로 ‘한인은 중국인 조선족’이라고 강조해 왜곡된 국가관·민족관·역사관 교육에 치중해오고 있다.

▶ **백두산인가, 장백산인가=** 중국과 북한은 1962년 10월 12일 북중 비밀 국경조약 체결과 1964년 3월 20일 국경 의정서에 서명함으로써 압록강과 두만강을 잇는 비밀 국경조약을 수렴하고 천지와 백두산을 양분했다.

중국은 ‘백두산은 원래 만주족의 영산(靈山)인데 북한에게 받아야 양도했다’라고 주장하면서 조약이 관대했음을 과장해 왔으며, 백두산을 ‘장백산’으로 부르고 대내외적으로 선전효과를 노려 관광시설 개발은 물론 국제 관광 유치에 장려하면서 이제는 한국인보다 중국인 및 서양인 방문을 장려하고 있다.

그간 중국은 장백산 관리기구를 변경하고 관광 루트도 관리인이 많이 사는 연변을 통하지 않도록 장백산 공항을 설치, 백두산을 장백산으로 확고히 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오고 있다.

▶ **우리가 할 일=** 모택동과 주은래 생존시 만주가 한국 영토임을 인정했고, 많은 중국의 역사서도 만주가 한국의 영토임을 증명하지만 중국 정부의 언론훈제로 거론이 금지돼 왔다.

일본에게는 간도를 중국에 넘겨준 원죄(原罪)가 있으나 한국은 이를 제대로 따져 묻지 못하고 있다.

위에 언급한 만주의 중요성으로 지역적으로도 연결된 백두산과 간도 문제는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으므로, 중국과 일본의 역사 주권 침해, 국경 변경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갖고 만주·간도·백두산은 우리 한민족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역사적인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

1997년 중국이 홍콩을 회복했을 때 99년간 임차해두었던 신계(新界)와 영구 할양된 홍콩 지역도 모두 양도받았다.

우리는 분단된 상태로 중국의 영향력을 받고 있지만 당사자 간 해결을 중시하는 중국의 전통적 해결 방식을 이해하고 한국 정부가 스스로 주권의식을 천명할 수 있도록 국민과 국회가 논리를 세우고 토론히 강력하게 건의할 필요가 있다.

부당하게 빼앗긴 주권으로 비롯된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 휴스턴 동창회 이소윤 동문 피아노 연주 감상회

휴스턴 동창회(회장 탁순덕)가 지난 2월 26일 이소윤 동문의 피아노 연주회에 참석해 감상했다.

이소윤 동문은 FM 1960와 TC Jester가 만나는 곳에 위치한 Northwood Presbyterian Church에서 이날 오후 4시 연주회를 가졌다.

이 연주회는 무료로 진행됐으며 이소윤 동문의 연주 곡명은 Mozart Piano Concerto No. 26 이었다.

탁순덕 회장은 전에도 이소윤 동문의 연주를 두차례나 감상하는 등 이 동문의 연주회 감상을 적극 권했다.\*\*\*

<총무 최인섭(공대 75)>

**FREE CONCERT\***  
Symphony North of Houston  
Sunday, February 26th @ 4pm - Northwoods Presbyterian Church  
3320 FM 1960 Rd W, Houston, TX 77068  
(FM 1960 @ T.C. Jester)

**HANSON SYMPHONY NO. 2 \*ROMANTIC\***



**MOZART PIANO CONCERTO No. 26**



### 뉴욕 동창회 골든 클럽 더블트리 호텔에서 신년교례회

뉴욕 동창회의 ‘골든 클럽(회장 이준행)’이 지난 3월 3일 Fort Lee Doubletree(구 Hilton) Hotel에서 신년 교례회를 실시했다.

이번 골든클럽 신년 교례회에서는 경품 및 여흥시간, 시상 등이 이뤄졌다.

또한 최근 생일을 맞은 회원들에 대해 합동으로 간단한 선

물을 증정하고 지난 해 각 골프대회 입상자들에 대한 상금도 수여했다.

뉴욕 동창회의 골든 클럽은 또한 최근 ‘골든 클럽 소식’지를 발간했다.

뉴욕 지역의 골든 클럽은 미주 지역 동창회 가운데에서도 가장 활발한 모임 중 한 곳으로 정평이 있다.\*\*\*

### ↑생일을 맞은 골든 클럽 회원들이 간단한 축하 선물을 받고 즐거워 하고 있다.

**골든 클럽 소식**  
Golden Club News



2012년 5월호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남가주 동창회 2012년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

남가주 총동창회 '2012년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이 200여 명의 동문과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월 4일 Norwalk의 Double Tree Hotel에서 열렸다.

김창신 총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1부 행사에서는 최고참 오형원(의대 53) 동문의 개회 선언 뒤 가장 거대한(?) 목소리로 미 전역에 소문난 방석훈(농대 55) 동문의 선창에 따른 교가 제창이 있었다.

김은중 미주 동창회장은 축사를 통해 "오늘과 같은 남가주 동창회가 있기까지는 모든 동문들이 하나처럼 한 마음으로 단합해준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이같은 전통을 이어가자"고 격려했다.

한종철 남가주 동창회장은 이임사에서 "지난 해 이맘 때 마음이 무척이나 무거웠는데 지금은 무척이나 홀가분하다. 지난 1년간 적극적으로 도와준 임원진과 각 단과대 동창회 덕분에 동창회 운영이 원활하고도 수월하게 이뤄졌다"고 감사해 했다.

신임 서치원 회장은 한종철 회장에게 감사패를 증정했다.

서치원(공대 69) 회장은 취임사에서 "남가주 동창회 선배들 풀 안에서 그동안 무척이나 행복한 시절을 보내고 오늘이 자리에 있다. 남가주 동창회가 좀 더 재미있고 신명나며 행복을 느끼는, 멋있고 다양한 색깔의 명식을 깔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서 회장은 또 "모든 동문들이 즐겁고 행복할 수 있는 이런 마당에 나와 즐기고 같이 행복을 나누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곧 2012년 신임 회장단 수석 부회장(김상찬 문리대 65) 및 임원진 인준식이 이어졌다.

김성수 동문의 사회로 이어진 여흥시간에서는 지난 해 12월 김은중 미주 동창회장때에서 열린 '해물잔치'에서 그 악명(?)을 익히 떨친 Curly Fries Band의 리드 아래 신명나는 음악과 무도회가 펼쳐졌다.

이날 동문중 한사람은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의 신나는 밤이었다. 우리 동문들만이 할 수 있는 행사일 것"이라고 감격해 했다.\*\*\*<편집주간>



김은중 미주 동창회장이 축사를 뒤 권배를 제외하고 있다.



↑(가장 첫 사진부터 위에서 시계방향으로) 김창신 총무국장(왼쪽)의 사회로 서치원 신임회장(가운데)이 한종철 회장에게 감사패를 증정하며 악수하고 있다. 노명호 남가주 공대 전 회장, 미주 동창회 김재영 감사, 방석훈 고문, 지인수 편집위원장, 오홍조 전 회장 등이 부인들과 자리를 함께 하고 있다. 2012년 남가주 동창회 신임 회장 및 임원진 모습이다.



### 미주 동창회

### '펀드 레이징' 본격 추진 모임

미주 동창회가 본격 자금 모금을 위한 'Fund Raising' 추진 모임을 1차로 지난 2월 2일 LA의 '어원'에서 가전데이 24일 같은 장소에서 2차 모임을 가졌다. 1차 모임은 지인수 편집위원장 외에 이종도 기금모금위원장, 김병연 IT위원장, 성주경 사무총장, 양민(공대 77) 박사, 백육자 총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이종도 위원장은 모금 방법 중 수학(또는 과학) 경시대회·사생대회·골프대회·브레인 네트워킹 워크숍 등을 제시하고

이들 사업에 대한 타당성 여부와 사업 진행 방법, 시기 등에 대한 의견을 구했다. 이에 대해 김병연 IT위원장은 "수학(과학)경시대회나 사생대회는 1회성이 아니라 연속성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지인수 편집위원장은 "지속성으로 입상자가 진학에 인센티브가 크다는 인식을 주면 충분히 성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민 박사는 "모교와 연계해서 서울대가 이런 행사를 지속적으로 한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성주경 사무총장은 "지속성을

←(왼쪽부터) 이종도 기금 모금위원장, 김병연 IT위원장, 지인수 편집위원장, 양민 박사, 성주경 사무총장이 식사 중에도 펀드 레이징 방법에 대해 토론 중이다.

그러나 서울대만의 장점을 살리는 대회를 만든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연 위원장은 "모교 협조로 '서울대 총장상' '서울대 미대학장상' 등으로 차별화하자"고 제시했다.

서치원 남가주 동창회장은 "골프대회는 사실상 도네이션이 남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한인 골프장측 도네이션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서 회장은 이어 동문을 위해 '서울대 출신 연예인 초청대회'도 제시했다.

성주경 사무총장은 "이런 골프대회라면 내가 빠질 수 없다"라는 인식이 들 정도의 수준급 대회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종도 위원장은 나중 임원회의에서 "일정액 이상의 도네이션이 가능한 수준급 VIP만을 선착순으로 하는 골프대회를 만들어보겠다"고 밝혔다.

양민 박사는 일정액 이상의 도네이션 비동문에게 '서울대 명예동문'을 인정하는 방안을 제의했다. 명예 동문에게는 서울대 동문에게 주어지는 현재의 인센티브 중 일부를 제공하자는 것이다.\*\*\*<편집주간>

관악세대/Acro광장(인류학 칼럼) <두발보행 인간의 대가

“허리가 아파요? 조상탓야!”



이상희(인문대 85) University of California Riverside 부교수

얼마 전 있었던 모임에서 미묘의 발달한 후배 ‘A’ 이 자꾸 등허리에 손을 가져다 댄다. 주말에 골프 치고 신발을 갈아 신으려고 뭉뚱을 구부렸는데 허리가 삐끗했다고 한다.

그 전에는 허리 다친 사람들을 보면 “쫄쫄, 운동 좀 하지!” 라고 혀를 찼는데 자기 자신이 직접 당하고 보니 딱히 그렇지도 않더라는 것이다. 이 후배는 골프부터 산악 자전거까지 못하는 운동이 없다.

이야기를 듣고 있던 또다른 후배가 거들고 나선다. “누나, 이제 그럴 나이가 되었지, 필그래? 허리 아픈 건 운동하고 상관 없어. 나이야, 나이.”

그리고 들은 “이제 나이를 생각해야 하는 나이가 되었지” 고 서로 맞장구 치고 있었다.

▶조상탓이야 “아니야, 그건 나이 탓이 아니야. 조상 탓이야!” 나는 소리치고 싶었다.

어떤 조상이라면, 전의 이씨 효정공과 시조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아니다. 누구나 허리는 삐끗하기 쉽다. 우리를 중 70%는 살아가면서 적어도 한 번은 허리를 삐끗해서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의 아픔을 겪는다.

나이가 드는 탓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원초적인 책임은 400만년 전 두 발로 걷게 된 인류 조상에게 있다.

‘두 발로 걷기’는 인류의 독특한 특징이다. 인간 외 두 발로 걷는 짐승들은 팔다리를 거는 분절도 있을테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대개는 두 발로 걷기 외에도 달리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새들은 두 발로 걷지만, 날 수도 있다. 날지 못하는 새들은 뱀과 마찬가지로 속에서 긴 시간 헤엄칠 수 있거나, 타조처럼 놀라운

속도로 달릴 수 있다.

침팬지와 고릴라 역시 두 발로 걸을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네 발로도 걸을 수 있으며, 나무를 탈 수도, 나무 가지에 매달려 두 발로도 걸을 수 있다.

인간은 두 발로 걸을 수밖에 없다. 두 발로 걸을 수밖에 없다는 뜻은 항상 몸통이 곧추 세워져 체중의 상당 부분이 허리뼈와 골반에 몰린다는 뜻이다.

▶두 발로 걷기 때문= 다른 동물들은 다양한 움직임을 통해 체중이 다양하게 골고루 분산된다. 인간은 두 발로 서 있을 때는 체중이 척추를 거쳐서 두 다리를 타고 두 발로 나뉘어진다. 그러나 걸을 때에는 한 쪽 다리와 한 쪽 발로 집중된다.

인간의 허리는 이렇게 계속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셈이다. 더군다나 여자의 경우 임신을 하고 있거나, 젖먹이를 안고 있기 때문에 허리는 더욱더 무거운 짐을 평생 지고 있어야 한다. 더 많은 사람들이 요통 때문에 누워 있지 않은 것이 오히려 신기하다.

그런데 두 발로 걷게 된 인간은 허리를 대가로 모든 것을 얻었다. 찬란한 인류 문명의 역사는 두 발로 걷기에서 시작되었다. 인류의 특징을 들라고 하면, 보통 도구의 사용, 언어와 문화, 큰 두뇌를 꼽는다. 그러나 인류의 계통에서 가장 제일 먼저 발생한 특징은 그 어느 것 보다도 두 발로 걷기다.

초기인류 화석의 두뇌 용량은 450cc 정도로 침팬지 두뇌 용량과 비슷한 수준이며 현생 인류의 4분의 1 정도다. 돌로 만든 도구는 인류가 처음 나타난 500만년 전에서 300만년 정도 더 지난 200만년 전 정도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한다.

언어는 화석으로 남아 있지 않지만, 적어도 두뇌가 커진 다음에 나타났을 것이다. 어느 모로 보나 인간다운 집이 딱 하나 있다. 그들은 두 발로 걸을 수밖에 없었다. 이게 때는 체중을 감당하지 않았다. 무릎 관절, 엄지 발가락, 골반, 허벅지 뼈를 보면 두 발로 걸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발로 걷기는 손과 팔을 보행에서 해방시켰다. 자유로워진 손과 팔은 도구를 만들고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그리고 두 발로

걷기는 윗몸을 보행에서 해방시켰다. 윗몸과 뒷다리가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목소리를 자유자재로 낼 수 있게 됐고 언어가 가능해졌다. 이렇게 해서 발달하는 도구와 언어는 인류 문화와 문명의 토대다.

▶큰 뇌도 두발걷기 덕분= 도구를 만들고 사용하는 데에는 큰 두뇌가 필요하다. 언어를 사용할 만큼 복잡한 사회생활을 하는 데도 큰 두뇌가 필요하다. 그리고 순수지능체인 두뇌를 크게 만들려면 고지방-고단백의 식생활이 확보돼야 한다. 도구를 이용해 고기와 기름기를 정기적으로 충분히 섭취함으로써 가능하다. 문화와 언어를 주관하는 큰 두뇌는 두 발로 걸어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두 발로 걷는 덕분에 가능하게 된 큰 두뇌의 발달은 거꾸로 인간에게 새로운 대가를 요구한다. 네 발로 걷는 짐승은 심장이 상대적으로 윗쪽에 있다. 그래서 온 몸 구석구석으로 피를 내려 보내기 때문에 중력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이다.

예외적으로 긴 목을 가지고 있는 기린은 머리가 심장보다 훨씬 위에 있기 때문에 심장이 힘들어한다. 따라서 기린은 유별나게 작은 머리와 유별나게 큰 심장을 가지고 있다.

인간처럼 몸통이 항상 세워져 있게 되면 심장의 위치가 중간쯤으로 내려오는 셈이다. 심장은 이제 위로 상당량의 피를 계속 올려 보내야 한다. 그것만으로도 심장은 힘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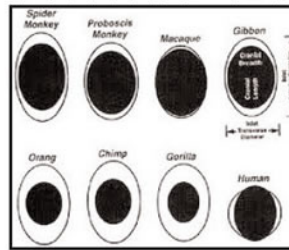
그런데 커진 두뇌는 훨씬 더 많은 피를 원한다. 인간의 두뇌는 무게는 신진대사의 60%까지 잡아먹는다. 그래서 심장은 이제 가장 많은 피를 가장 꼭대기로 중력의 방향을 거슬러 쉬지 않고 올려 보내야 한다.

인간의 심장은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싸우는 시지푸스다. 그리고 필경은 배기를 들고야 만다. 심장에 관련된 사망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엄청난 출산고통도 인간뿐= 뿐만이 아니다. 엄청나게 큰 머리의 어른은 엄청나게 큰 머리의 아기로 태어나는 것으로 시작한다. 큰 머리를 가진 태아가 통과하려면 골반이 넓어야 한다. 그러나 두 발로 걷기에 좋은 골반은 좁다.

장거리 달리기를 하는 육상선수들의 몸매를 생각하면 된다.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양쪽 고관절이 번갈아가면서 몸무게를 받아야 한다. 골반이 넓어지면 양쪽 고관절의 거리가 벌어지고, 몸무게가 그만큼 많이 이동해야

↓영장류 태아의 머리 크기와 산도의 비교. 원숭이(왼쪽)는 태아의 머리가 산도와 비슷한 크기지만 조금 작다. 유인원(아랫줄 왼쪽 3개)의 경우 태아의 머리가 산도보다 훨씬 작아 출산하기가 수월하다. 인간(아랫줄 맨 오른쪽)의 경우 태아의 머리가 산도보다 크다.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장상구(공대 70)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장

올해 건국 이래 최대 국제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된다. 3월 26~27일 이를 동안 열리는 ‘2012 서울 핵 안보 정상회의(www.seoulnss.go.kr)’다.

이번 회의에는 47개국 이상의 국가 정상 및 유엔,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4개 국제기구 수장이 모두 참석할 예정이다. 지난 2010년 국내에서 열렸던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규모를 훨씬 웃돌게 되는 것이다.

이번 정상회의의 주제는 ‘핵 안보’이다. 다소 생소하고 전문적인 분야여서 그런지 동문들의 이해도와 관심도가 상당히 낮은 것 같다.

하지만 원자력 안전의 경우 최근 일본에서 발생한 후쿠시마(福島) 원전사고로 많은 국민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예측된 한계를 훨씬 뛰어넘는 자연재해로 발생한 사건이지만 만약 테러리스트들이 악의적인 의도로 원전을 공격한다면 그와 유사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핵 안보는 이와 같이 악의적인 의도를 가진 핵 폭발물의 사용 및 원자력 시설에 대한 테러를 사전에 탐지하고 대응하기 위한 모든 기술적·행정적 조치를 가리킨다.

핵 테러에 대한 위협은 상존하고 있다.

전 세계는 핵 테러를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로 상정하고 이를 막기 위한 노력을 여러 모로 진행해 왔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번 서울에서 개최될 핵 안보 정상회의는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전 세계 43개국 정상들이 한 자리에 모여 단일 주제를 가지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하지만 지난 2010년 워싱턴 정상회의는 나름대로 의미 있는 성과가 도출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2012년 서울 핵 안보 정상회의’에서는 워싱턴 1차 회의에서 논의된 주제와 크게 벗어나지 않는 안건만을 다루게 된다면 성공적인 회의로 평가받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이번 회의가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으려면 워싱턴 회의에서 다루지 않았던 방사성 물질에 대한 방호 문제, 후쿠시마 사태와 같은 재난을 방지하기 위한 원자력 안전과 핵 안보의 연계 문제 등을 함께 다루어야 할 것이다.

오바마 미 대통령이 약속한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앞으로 전 세계 모든 나라가 힘을 합쳐 핵무기 원료인 고농축 우라늄 및 플루토늄을 폐기 내지 원자력발전에서 태워 없애는 노력도 계속 이뤄져야 할 것이다.

복합 핵 문제는 일반 대중의 관심을 유도할 수는 있으나 본회의의 성과와는 맞지 않고 6자회담이라는 기존 창구가 있기 때문에 이번 회의에서는 신중히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2012년 서울 핵 안보 정상회의에는 워싱턴 회의 때보다 더 많은 정상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성공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기 위해 정부 및 관련 기관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대부분은 아직도 우리나라에서 이런 대규모 행사에 개최된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핵 안보라는 용어도 생소하고 우리나라와 직접 관련이 없다는 생각 때문인지 2010년 G20 정상회의에서 보여줬던 국민적 관심이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번 정상회의는 긍정적인 면이 많다. G20 회의가 경제 분야에서 한국의 국격을 한 단계 올렸다면, 이번 2012 서울 핵 안보 정상회의는 정치·안보 분야에서 위상을 크게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번 회의를 계기로 국내 핵 안보 수준 및 원자력 안전에 대한 대외 신뢰성이 높아진다면 향후 원전 수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2012 서울 핵 안보 정상회의’는 한국의 국력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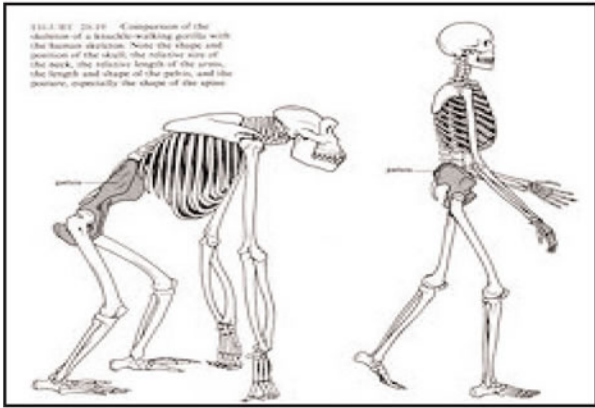
그 때문에 국민의 성원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동문들의 많은 관심을 기대해 본다.\*\*\*

되므로 운동역학적으로 에너지 손실이 크다. 양쪽 고관절이 서로 가까이 있을 수록 몸무게가 이동하는 거리가 짧아지고 에너지가 효율적으로 쓰인다.

그런데 양쪽 고관절이 서로 가까이 있다는 것은 골반이 그만큼 좁다는 뜻이다. 인간의 골반과 산도는 엄청 좁다. 그리고, 태어나는 아기의 머리는 인간 산도 너비보다 크다. 그래서 태어

날 때에 엄마의 골반이 벌어져야 한다. 생애가 짜개지는 엄청난 일이다. 두 발로 걸으면서 인류는 문화와 문명을 꿈꿀 수 있었다. 그러나 그 뒷 편에는 요통과 심장병과 해산의 고통이 있었다. 오늘도 수고하는 허리와 심장을 위해 이제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기지개를 펴보자. 그리고 일어난 김에 어머니께 안부전화라도 드리지라.\*\*\*

↓네 발로 걸을 때보다 두 발로 걸을 때 허리는 더욱 고달프다.



# 케냐 의료선교를 다녀와서



홍 건(의대 64)

지난 1월 3주 동안 아프리카의 케냐에서 의료 선교 봉사활동을 했다.

이곳은 19세기 초 유럽 국가들이 아프리카에 진출해 1895년 영국이 East Africa Protectorate를 시작, 1920년 Kenya Colony로 발전해 1964년 케냐 공화국으로 독립할 때까지 영국 식민지로 있었고 2007년 부정선거 문제로 말쟁이 있었던 위에는 비교적 안정된 국가다.

필자가 지난 해 4월 방문한 텐벵 병원은 1930년대 작은 진료소로 시작, 1959년 처음 의사를 파송했는데, 현재 300 beds 병상으로 80만 주민은 물론, 인근 850만 환자들이 찾아오는 교육병원으로 연간 1만명 이상 입원, 8만 5천의 외래 환자를 치료하고 5천수술 환자 이상을 다루는 귀한사역지다.

본인은 이미 한 번 다녀왔기에 낯선 곳이 아니지만, 집사람한테는 처음이기에 조금 망설였으나 남편의 간곡한 부탁에 같이 동행했다.

작년에 설치된단 CT Scanner가 완공되지 못해 내가 있는 동안 초음파로만 진단하던 3주간을 보냈는데, 9월 설치를 끝내고 환자를 볼 수 있게 다기에 안심하고 답송했다.

그런데 작년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한국 여성선교사님이 내가 케냐까지 왔다 그냥 갔다는 소식에 섭섭해 하시면서, 다음에 다시 오면 꼭 들려주실 사 하는 간곡한 부탁을 해 이번에는 먼저 그 분이 사역하는 곳을 들르기로 여정을 잡았다.

출발 일을 가리키면서 Kingsway Charities, MAP International등 여러 기관에서 필요약품을 기증받고 구입도 하며 가방에다 차곡차곡 넣고, 시카고 오헤이 공항의 타고 갈 Turkish Airlines 담당자를 찾아 짐을 더 맡길 수 있는가 문 의하고 철저히 준비했다.

떠나기 전 케냐 선교사로부터 현미경을 한 개 구해왔으면 하는 부탁에 불야불야 같은 병원 병리와 의사한테 쓰던 기계를 기증받아 가지고 가게 했다.

드디어 8일 저녁 이스탄불을 거쳐 케냐 나이로비에 도착하니 새벽 2시가 됐다. 많은 짐을 텐벵 병원에 가지고 간다니까 동관원이 열어보지도 않고 통과시켜 주었다.

기다리고 계신 김동희 선교사님과 최 목사님, 케냐 교인 운전수가 반가이 맞아주어 케냐에 첫발을 내딛었다.

국도로 240km를 밤새 질주해 나랑가 지방 마사이 족을 섬기

는 선교사님의 학교와 고아원이 있는 선교지에 도착해 방에 짐을 놓고 무사히 오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했다.

일부러 케냐에서 서구 선교사가 들어가지 않는, 제일 가난하고 못사는 부락이 어디인가 찾아 선교지를 정하신 이유를 듣고 고개가 숙여졌다.

다음 날부터 사흘 동안 엠마오이를 거점으로 근처의 글을 루이와 에스데티 등의 마사이 부족들이 흩어져 사는 부락을 방문해 하루 종일 환자를 진찰하고 봉사했다.

의사는 나 혼자였고 집사람은 조수겸 간호사와 약사를 겸해 혈당도 제어주고 모든 잡일을 하면서 약을 나누어주었다.

미국에서 가지고 간 수많은 진통제, 항생제를 비롯해 무진장 가지고 간 줄 알았던 비타민도 드디어 동이 나고, 선교사님이 가지고 있던 비상약도 축을 내면서 끊임없이 줄을 서서 찾아오는 마사이족 환자들을 진료, 360명 이상을 돌보아 주었다.

끊임없이 불어오는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사정없이 내려쬐이는 뜨거운 태양열 속에서 한 분 한 분 정성껏 돌보아주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한 번은 현지 목회자 부탁으로 나이가 많은 환자를 찾아 마사이 전통적 소풍으로 지은 집 안으로 왕진을 갔다. 그러나 이미 상태가 손을 쓰기에 늦었고 약을 쓸 수도 없었기에 그 분과 가족을 위해 기도를 해주고 왔는데 며칠 후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 가족이 '미국에서 의사가 와서 진찰을 해준대 대해 감사하다'는 말을 들었다.

그런데 도착하는 날부터 동네 아이들이 가져다 준 금방 썩소에서 짜낸 우유를 걸르지도 않고 차하고 섞어 먹은 것이 배탈이 나기 시작해 화장실도 멀리 떨어진 재래식 변소에 거의 매시간마다 설사하면서 많은 환자를 다루는 것이 짜증이 날 법 했으나 꼭 참고 견디었다.

지난 13년 동안 마사이족 아이들을 기른 선교사님 내외는 그 아이들과 똑같이 아침이면 옥수수를 갈아 만든 죽을 먹고, 점심과 저녁에는 옥수수와 콩을 볶은 것으로 요기하는데, 같이 먹으면서 양이 차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속이 부글부글 끓으면서 고생했다.

주말 우리들이 특별히 염소 두마리를 사도록 120달러를 들여 모든 어린이들과 같이 잔치하고 맛있게 별식을 들었다.

마침 주일을 맞이해 그림에서나 보았던 화려한 채색의 천으로 둘러싼 마사이 여인들이 줄을 지어 교회로 물려와 복을 치면서 신나는 찬송가에 마사이 특유의 가락에 맞춰 춤을 추듯 찬양하는데 절로 흥이나 활짝한 예배를 드렸다.

거의 한 시간 춤과 노래로 고조된 상태에서 선교사님의 특별한 간청에 의해 강단에 서서 주일 예배의 말씀을 전할 귀한

기회를 갖게 됐다. 성경을 읽고 나서, "예배당에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면 모든 것이 잘 되고, 병이 낫고, 부자가 되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으나, 사실은 신앙을 지키려면 시험과 고난이 닥쳐오고 힘든 일이 생긴다"고 서두를 시작했다.

"그래도 고난에 이길 힘을 주시고 이 세상에서 천국을 맛보면서, 시련을 극복하고 난 후 라야 천금같은 면류관이 있고 주님이 주시는 상이 크다"는 위로의 말씀과, "앞으로 아프리카 대륙 안에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나라에 마사이족 크리스찬들이 말씀을 전하고 선교를 담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는 권면의 말씀으로 끝을 맺었다.

사역을 끝내고 월요일 아침 일찍 짧은 며칠 동안 사랑의 빗을 지고 가는 것을 감사하며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르는 작별 인사 후 풍사로 먼지가 날리는 시골길을 11시간 달려 다음 목회자 텐벵병원에 도착했다.

작년에 와서 익히 아는 곳이기도 하지만, Guest House에 방을 배정받고 보니 방 안에 화장실이 있고 태양열 발전기로 덮혀진 온수 샤워 시설과 작은 취사 시설의 부엌이 딸려 있는 편안한 곳에서 남은 두 주일을 지내게 돼 집사람 눈치를 보지 않아 다행이었다.

우리들이 병원에 도착했다는 보고에 응급실에서 보내온 환자들이 넘쳐나기 시작했다. CT Scan을 찍고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로 수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 방사선과에 달려가 응급복독을 해주면서 바쁜 병원생활이 시작했다.

초음파 검사실도 하루 50명 이상의 환자들이 검사를 받았다. 환자를 검사하는 기사들이 따로 교육받은 것이 아니라 어깨 넘어 배워 하는 미숙한 정도라 내게 물어보고, 미국같이 사진 찍어 붙이는 것이 없이 일단 스캔이 끝나면 손으로 적은 것이 진단의 마지막이므로, 하나 하나 일일이 신경쓰지 않으면 오진하기가 쉬운 형편이었다.

마침 UC Davis 대학병원의 4년차 방사선과 레지던트인 David Douglas가 같이 일하게 돼 많은 도움을 받았다. 그와 함께 케냐인 인턴과 레지던트들을 위해 강의도 맡았다.

마침 연세대 의대에서는 Dr. 박진용 선교사와 같이 은 의대 학생들과도 함께 지낼 수 있는 기회가 있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박진용 선교사 내외는 우리가 전에 몽골에 갔을 때 그곳 의과대학에서 사역하고 있어서 만나 알게 됐다. 지금은 중국의 셴양에서 사역중인데, 이후 계속 연락 중 이번엔 다시 케냐에서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뜻하지 않은 반가운 해후였다.

매일 심하게 부상입은 응급환자들과, 축구공 만큼 커다란 암덩어리를 CT Scan으로 발견한 후 수술에 들어가기 전 상의하기 위해 오는 케냐 의사들을 만나 이야기 나누면서 하루 종일 지나다 보면 어느덧 하루가 또 지나가곤 했다.

# 피렌체의 '꽃의 성모' 대성당의 둥근 지붕 <2>



이연행(문리대 68)

이 대성당 돔에는 대성당과 그 둥근 지붕, '지오토의 탑', '산 조반니 세례당'이 수많은 색조의 찬란한 모자이크로 모든 정면과 벽면 전체를 장식한 이 세 개의 건축물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있다.

1334년부터 지오토(1266-1337)가 설계하고 짓기 시작한 '지오토의 탑'은 그가 죽자 안드레아 피자노와 프란체스코 탈렌지가 계속하여, 결국 1349년에 완성되었는데, 그 높고 높은 대리석 탑은 높이가 84.7 미터로서, 대성당에 바짝 붙어, 갖은 색채의 대리석 도안으로, 대성당과 같이 아름답고 놀라운 이 시대의 걸작으로 군림한다.

또한 13세기 말부터 이미 있었던 '산 조반니 세례당'은 8각형 피라미드 형의 천장판과 8각형의 상자 모양인 대리석 건물이다.

이 세례당의 내부 모자이크와 청동으로 만든 문들은 역시 최대의 화려한 금 도금과 채색된 보물이다.

로렌조 기베르티(1378-1455)가 정묘하게 조각한 청동 문 판넬들은, 대표적인 <천국의 문>을 위시해서, 모두 당대 최고의 금속 공예의 기술과 장조의 걸작들이다.

이렇게 해서, 메디치 가문과 피렌체 시민들은 이 대성당 광장의 문화재들을 장장 170년(1296-1436) 이상의 긴 공사에 걸쳐서 고딕 및 르네상스 양식의 걸작들로 건립했다.

브루넬레스키의 둥근 지붕이 완성된 1436년 3월 25일에는, 교황 에우제니오 4세가 와서 이 성당을 봉헌했다. 그리하여, 피렌체는 그 지방과 이탈리아

리아 전국의 경제 도시들(피사·시에나·루카·밀라노·베네치아 등)보다 더 부강하고 예술적으로 월등히 우월한 문화적·종교적·경제적 중심 국가로 그 위력을 과시하게 되었다.

즉 모든 건축과 예술 작품들을 최대한으로 화려하고 부유하게 만들어서, 이 도시가 크게 확장되고 강력해 진 것에 걸맞은 큰 규모의 예술품들로, 명실공히 토스카나 지방의 패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수많은 당대 최고 예술가들이 모두 참여했고, 그들의 취미와 인간성이 바뀌면서, 여러 세기 동안 계속된 이 작업장의 결정품들은 지금까지 세계 최대의 문화유산으로 남게 되었다.

이 성당의 북동 쪽에 위치한 '대성당 작품 박물관'에 가면, 원래부터 이 대성당에 바쳐져 있었던 예술 작품들(조각·동상·벽화·부조·건축기구들)의 원형이 그대로 간직되어 있다. 그리고 그 복사품들이 성당에 그대로 안치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브루넬레스키가 발명한 기둥기, 도르레, 수레 바퀴 등과, 이 둥근 지붕의 설계를 그대로 미리 보여 주는 모델(1432-1436)에 만든 목조 마케트)가 두 개의 전시실에 지금도 여전히 전시되고 있다.

그 외에도 르네상스의 위대한 조각가 도나텔로(1386-1466)의 수많은 성자들의 조각상들이 세계에서 이 박물관에 가장 많이 소장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복음사가 성요한>(1410-1411), <예언자 하박국>(1427-1436), <이삭을 죽이려는 아브라함>(1408-1421) 등의 대리석 조각들과 목각상 <마리아 막달레나>(1457)은 이 박물관의 가장 유명한 걸작들이다.

이 많은 예술가들이 참여하여 건립한 이 대성당과 그 건축·조각·벽화·부조상·대리석 모자이크 등은 르네상스 예술의 대표적인 보물이며 영원불멸의 문화재로서, 그들의 깊은 신앙과 예술적 생애의 증언이며, 우리 인류의 보물로 남아 있다.\*\*\*

재료는 별로 없어도 정성껏 만들어주는 집사람의 음식을 먹으면서 사역지에서 얻은 배탈도 낫고 몸의 상태가 정상으로 회복하여 감사했다.

두 주일 체류 동안 주일을 맞아 병원 내 교회에서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작년에 와서 알게 된 많은 미국에서 온 의료 선교사들과 가족들을 다시 만나 반가웠다.

드디어 3주 동안의 케냐 봉사도 끝나 많은 약을 가지고 온 버너를 버려 버리고, 그리고 구경하고 귀국을 준비하게 됐다. 병원의 많은 분들이 인사하러 왔고 다시 와달라 부탁했다.

World Medical Mission에서 계속 방사선과 전문가가 와서 사역하도록 조정하고 있으나, 6개월이 지나면 빈 날짜가 많아 더 많은 자원봉사 의사들이 필요한 형편이다.

혹시라도 다른 모든 과를 비롯해서 관심있는 동문은 연락(Kuhn\_hong@yahoo.com)해 주시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와 다시 병원에 출근하면서 정상체로의 생활로 돌아갔으나 두고 온 많은 케냐 의사, 스텝, 그리고 환자들 이 항상 마음 한 구석을 차지해 그들을 위해 기도를 계속하게 된다.\*\*\*



동창회비·관악후원금·광고 및 업소룩비·기타 후원금(\*2011년 7월1일~2012년 3월 16일까지)

2011.7~2012.6월 동창회비

Alaska 윤제중(농대 55)
Arizona 김영철(공대 55) 김원환(의대 59) 박양제(약대 46) 유기석(문리 60) 지영환(의대 59)
California <가정대> 김혜인(가정 69) 제영혜(가정 71) <간호대> 강정자(간호 61) 김경혜(간호 69) 나경자(간호 70) 박순자(간호 60) 신정숙(간호 54) 심진숙(간호 68) 오양숙(간호 60) 이영진(간호 77) 이종보(간호 69) 이호진(간호 74) 장인숙(간호 70) 최덕순(간호 59) 최영순(간호 69)
강종경(공대 48) 김기수(공대 74) 김란영(공대 53) 김상업(공대 57) 김원박(공대 65) 김희창(공대 57) 노명호(공대 61) 독교원(공대 65) 양부대식(공대 54) 문덕수(공대 73) 문인일(공대 51) 박원준(공대 53) 박홍근(공대 64) 성민정(공대 65) 손창순(공대 69) 손학식(공대 61) 신흥재(공대 73) 양성문(공대 65) 양승준(공대 65) 윤용길(공대 55) 원광웅(공대 60) 이근호(공대 46) 이문상(공대 62) 이범식(공대 61) 이경옥(공대 52) 이정화(공대 52) 이종희(공대 53) 임창희(공대 73) 장기창(공대 56) 전철승(공대 51) 정규남(공대 52)

정대연(치대 74) 한정현(치대 55) 한종철(치대 82)
Chicago 강화영(문리 50) 김중경(의대 57) 김계군(공대 60) 김윤범(의대 54) 김윤하(공대 66) 김일훈(의대 51) 김경주(문리 60) 고병철(법대 55) 구경희(의대 69) 권영제(의대 59) 노영일(의대 62) 문조준(약대 62) 박용순(의대 53) 배영섭(의대 54) 서상진(의대 65) 소진문(치대 58) 송재현(의대 46) 신수식(치대 59) 신석균(문리 54) 심상구(상대 63) 안신훈(농대 59) 오명자(간호 60) 유태중(공대 50) 이덕수(문리 58) 이소희(의대 61) 이용락(공대 48) 이윤복(농대 57) 임이심(미대 54) 임현재(의대 59) 장기남(문리 62) 장시경(약대 58) 장윤일(공대 60) 장대현(공대 57) 조봉원(법대 53) 최애목(간호 47) 최혜순(의대 53) 최제은(의대 59) 정수란(의대 66) 조동준(의대 57) 황동하(의대 65)
Connecticut 김기훈(상대 52)
Colorado 류광현(문리 58) 이석호(공대 66) 표현승(치대 58)

Delaware 문대욱(의대 67) 배성호(의대 65) 안세현(의대 62)
Florida 박창익(농대 64) 신상제(수의 59) 안창현(의대 55) 전영자( ) 제갈은(문리 59) 한기빈(공대 52) 한성수(의대 58) 황학상(의대 55)
Georgia 김영서(상대 54) 김용진(문리 48) 김용자(사대 60) 박태형(의대 57) 박철기(법대 56) 안승덕(상대 51) 이상민(의대 61) 이영재(상대 54) 임수일(공대 62) 임한용(공대 60) 정양수(의대 60) 정인태(의대 58) 정일백(상대 55) 최우택(공대 76) 최종진(의대 63)
Hawaii 김창원(공대 ) 유재호(문리 57) 윤상철(약대 47)
Indiana 임영신(의대 54)
Maryland 장창욱(의대 55) 권철수(의대 68) 김승희(법대 55) 김진은(사대 55) 김창호(법대 56) 남용현(경영 84) 도상철(의대 63) 박명영(의대 66) 박원수(상대 81) 석규범(문리 61) 이우세(사대 72) 이재승(의대 55) 이준영(치대 74) 이태영(법대 60) 임종식( ) 임필순(의대 54) 장윤희(사대 54) 장은철(공대 55) 홍영석(공대 58)
Massachu. 김제호(상대 56) 김청하(의대 57) 노인규(의대 52) 박제영(문리 48) 박종진(의대 56) 오세경(약대 61) 윤상대(수의 62)
Minnesota 권학주(치대 59) 김영남(사대 53) 김태환(의대 58) 남세현(공대 67) 박인영(의대 69) 송국진(치대 87) 왕규원(의대 56) 페트장( ) 60
Michigan 권순환(공대 60) 남창희(의대 58) 오상현(의대 65) 이상원(의대 54) 유효영(의대 60) 옥대식(의대 61) 정태(의대 57) 조분희(공대 56) 최준희(의대 58) 하계현(공대 64)
Missouri 김승희(법대 55)
Montana 팍노근(상대 51) 박용호(의대 59)
Nevada 김영중(치대 66) 김택수(의대 57) 이광(공대 55) 최영수( ) 최영식(의대 ) 한민원(의대 62)
Nebraska 김명자(문리 62)
New Jersey 강석권(법대 61) 고순정(간호 69) 고애자(사대 58) 박상준(약대 55) 권오근(상대 58) 김기환(공대 65) 김원주(의대 54) 김양호(의대 51) 김원주(의대 54) 김윤수(상대 50) 김은철(의대 53) 김정혜(간호 64)
New York 강영선(공대 ) 강광무(사대 60) 권영국(상대 60) 김경에(간호 54) 김동진(약대 56) 김문경(약대 61) 김석식(의대 58) 김세중(공대 50) 김영희(법대 80) 김용술(상대 58) 김정희(간호 69) 김중원(상대 58) 김진승(문리 53) 김현중(공대 63) 노용년(의대 49) 류영호(의대 ) 문길용(음대 45) 문소자(음대 60) 민발석(의대 60) 박수인(의대 56) 박승영(법대 58) 박찬영(약대 57) 박원성(약대 60) 방준제(의대 65) 서병선(음대 63) 서영숙(간호 ) 송정모(사대 67) 손경필(의대 57) 손경택(농대 57) 신의정(음대 55)

안홍원(농대 61) 양거영(의대 49) 윤병하(농대 80) 윤봉근(사대 54) 윤영철(의대 57) 이국진(사대 51) 이대영(문리 64) 이병무(법대 57) 이성구(약대 56) 서정용(약대 63) 선우문혜(약대 59) 선우치민(약대 48) 송기인(의대 60) 송용섭(공대 63) 신두식(의대 58) 신정택(약대 61) 임봉원(문리 61) 옥순제(의대 63) 윤준식(법대 54) 이경림(상대 68) 이정태(공대 63) 이능식(의대 57) 이윤순(의대 52) 이유태(보원 ) 이계원(법대 60) 이종환(법대 51) 정순기(문리 68) 조중현(수의 64) 최영태(문리 67) 최한용(농대 58) 한승원( ) 한영수(의대 61) 한홍윤(미대 56) 허병열(사대 42) 홍선희(공대 58) 홍승훈(공대 65)
N. Carolina 이석형(사대 56) 조동립(의대 52) 한광수(의대 57) 홍훈(자연대 )
Ohio 김한교(문리 47) 김현왕(공대 64) 박철(사대 55) 손기용(의대 55) 송영덕(의대 57) 송용재(의대 63) 이영용(의대 56) 장극기(의대 64) 최인갑(공대 57)
Oklahoma 이경숙(가정 70) 이상강(의대 70) 차봉희(의대 51)
Oregon 김상만(음대 46) 김상순(상대 67) 김영자(간호 ) 성성모(사대 67) 이은철(문리 53) 전병택(상대 65) 정태훈(공대 68)

최동근(문리 50)
Philadelphia 강준철( ) 김상천( ) 김성태(수의 53) 김영우(공대 55) 김용국(의대 53) 김윤옥(간호 75) 김재승(약대 58) 김태양(사대 61) 남원선(공대 79) 서준민(공대 64) 손재욱(가정 77) 송영두(의대 55) 신선자(사대 60) 심원철(의대 67) 오영자( ) 오진석(치대 55) 윤정나(음대 57) 이지호(공대 55) 이기범(의대 53) 이탄배(의대 52) 이병영(공대 48) 이지훈(미대 57) 정영자(치대 69) 장영남(문리 60) 정정수(의대 55) 주가복(수의 68)
Texas 강영민(문리 59) 박노현(문리 48) 김기훈(공대 61) 김영옥(가정 74) 김영창(공대 64) 김의신(의대 60) 김지훈(공대 46) 김태호(공대 57) 김훈복(사대 53) 박석규(간호 59) 박영규(사대 65) 양태주(문리 65) 유길선(농대 73) 유세민(공대 59) 유광(농대 68) 이광원(공대 60) 이길영(문리 59) 이규진(약대 60) 이영재(상대 53) 조시호(문리 59) 조진태(문리 57) 진기주(상대 60) 최원일(공대 54) 최성호(문리 53) 최용철(의대 53) 탁순덕(사대 57)
Utah 김인기(문리 58) 정석화(대원 66)

•동문께서 보내주시는 각종 후원금은 Tax감면 대상이 됩니다.
Federal ID No. 13-3859506
\*동창회비를 비롯한 후원금은 동창회 운영과 동창회보 발간의 기간이 됩니다.
\*광고 디자인은 매월 초에 보내주시시오.
snuaausa@yahoo.com
총무국장 백숙자 (818-225-8411)

서울대학교 미주 동창회 후원금 신청서 (회계연도 2011년 7월 ~ 2012년 6월)
성명: 한글 영문 단과대학 및 대학원: 입학연도:
주소: 전주소
업소 이름: 업소 주소
전화: (B) (H) (C) (Fax) e-Mail:
관악후원금 동창회비(구독료) 업소룩 광고비 일반광고비 특별후원금
연\$200 연\$500 연\$1,000 기타\$
2011-2012년 \$75 2011-2012년 \$120 디자인 명함1/2 \$200 디자인명함크기\$500
명함크기(3.5" x 2") \$100 1/6면 (5" x 4.5") \$200 1/3면 (10" x 4.5") \$400 1/2면 (10" x 6.7") \$600 전면 (10" x 13.5") \$1000
보내실 곳: 1225W. 190th St. #465., Gardena, CA 90248 Fax: 310-515-7883 e-Mail: snuaausa@yahoo.com
지불방법(Check 또는 Card) Pay to order of 'SNAAUSA'
Card No.: Security Code: Expire Date:
Cardholder's Name: Date:

▶Virginia  
강연식(사대58)  
김기봉(공대63)  
김명철(공대60)  
박근영(사대8회)  
Moon Kae S  
박경훈(상대50)  
박 열(사대80)  
박용길(약대56)  
박윤수(문리48)  
박일영(문리59)  
박정일(농대68)  
백 순(법대52)  
서유석(의대62)  
서희열(의대55)  
안병철(공대58)  
유홍열(자연74)  
이영덕(사대61)  
정기순(간호67)  
정원자(농대62)  
차광은(음대64)  
최규식(상대65)  
최준호(공대60)  
한의생(수의60)

▶Wa. DC.  
김동호(농대58)  
김성열(치대61)  
김영일(공대53)  
구분영(공대65)  
김영국(문리49)  
박종수(공대74)  
박진수(의대58)  
박찬형(의대56)  
변중혜(법대58)  
서운석(의대62)  
양용만(수의62)  
오인환(문리63)  
이영복(공대59)  
최준한(농대58)  
홍계인(음대60)  
홍영석(공대58)

▶Wisconsin  
장세곤(의대57)

2010.7~  
2011.6

동창회비

▶California  
김용권(문리47)  
윤희성(치대65)  
이정근(사대60)  
임동규(미대57)  
제영혜(가정71)  
최덕순(간호59)  
최왕욱(공대69)  
한상봉(수의67)  
한정원(치대55)

▶Chicago  
김영호(의대71)  
이소희(의대61)  
신석균(문리54)  
심상구(상대63)  
임현재(의대59)

▶Georgia  
김용진(문리48)

▶New Jersey  
김오경(법대57)  
박성일(상대58)

▶New York  
이진구(농대 60)  
최석진(사대 58)  
한영수(의대 61)

▶Ohio  
최인갑(공대57)

▶Oregon  
전병택(상대65)

▶Texas  
강영민(문리58)  
이광연(공대60)

광고인소

뉴오 1750  
월서은행 1000  
나라은행 400  
삼익약기 1000  
자연나라 2400  
Nexen Tire 1000  
마포주물럭 120  
한송뷔페 300  
김광철(음대59)105  
김병연(공대58)1000  
김일영(의대65)100  
박문규(문리68)1000  
박윤수(문리48)200  
오인환(문리63)100  
이병준(상대55)1200  
최재현(수의66)500  
김희원(수의73)250

▶California  
강동순(법대59)120  
강신용(사대73)120  
강호석(상대81)120  
권기상(대원72)100  
김광철(음대59)120  
김병연(공대68)120  
김원탁(공대65)100  
김일영(의대65)100  
김제영(농대62)120  
김한평(치대65)200  
나정자(간호70)120  
노명호(공대61)200  
독고원(농대65)120  
서동영(사대60)120  
서동영(사대60)200  
신대석(상대60)120  
염동해(농대74)120  
유희자(음대68)120  
이강원(인문76)100  
정수만(의대66)120

▶Minnesota  
김태환(의대58)120

▶Nevada  
김영중(치대66)120

▶New England  
윤상대(수의62)100

▶New Jersey  
연봉원(문리61)120  
이경림(상대64)120  
이규섭(상대68)120  
최영태(문리67)120

▶New York  
김영중(치대66)120  
김영휘(법대80)120  
박성남(사대76)120

정지선(상대59)300  
차기민(공대85)120  
최무식(약대61)120  
최재현(수의) 500  
한상봉(수의67)150  
한효동(공대58)120  
\*용수산(업소) 200

▶Chicago  
서상현(의대65)120  
이준우(치대54)120

▶Colorado  
류광원(문리58)200

▶Georgia  
이영진(공대76)120  
최우택(공대76)120

▶Maryland  
남욱현(경영84)120  
이준영(치대74)120  
이태영(법대60)120

▶Minnesota  
김태환(의대58)120

▶Nevada  
김영중(치대66)120

▶New England  
윤상대(수의62)100

▶New Jersey  
연봉원(문리61)120  
이경림(상대64)120  
이규섭(상대68)120  
최영태(문리67)120

▶New York  
김영중(치대66)120  
김영휘(법대80)120  
박성남(사대76)120

방준재(의대63)120  
윤병하(농대80)120  
조대영(공대61)120  
연봉원(문리61)120  
한영수(의대61)240

▶Ohio  
최인갑(공대57)200

▶Philadelphia  
서준민(공대64)100  
손재욱(가정77)120  
최종문(공대61)120

관악후원금

▶Arizona  
박양세(약대48)200

▶California  
강동순(법대59)200  
김동석(음대64)200  
이준서(상대54)200  
김재종(치대62)200  
김정희(음대56)200  
김종표(법대58)200  
노명호(공대61)1000  
방석훈(농대55)200  
백옥자(음대71)200  
엄동해(농대74)1000  
이기준(법대54)200  
이홍표(의대68)200  
임천빈(문리61)200  
정원훈(상대38)275  
지인수(상대59)500  
하기환(공대66)200

▶Chicago  
구경희(의대59)200  
노명호(공대61)1000  
김계균(공대80)200  
김윤범(의대54)200  
송순영(문리52)1000  
이윤락(공대48)500  
▶Connecticut  
김기훈(상대62)200

▶Georgia  
정일화(상대55)200

▶Hawaii  
김창원(공대) 200

▶Maryland  
강길중(약대69)200  
권철수(의대68)200  
남욱현(상대84)120  
이태영(법대80)500  
전정철(공대55)200

▶Massachusetts  
김제호(상대55)200

▶Michigan  
정 태(의대57)425

▶Minnesota  
김영남(사대53)125  
김태환(의대58)200  
왕규현(의대56)200

▶New Jersey  
박태호(사회76)500  
박승원(의대73)200  
이운순(의대52)200  
조종현(수의64)200  
허선형(의대58)200

▶New York  
권영국(상대60)200  
권영대(공대69)200  
박찬평(약대57)200  
윤병하(농대80)200  
이만택(의대52)200  
이진구(농대80)200  
이준형(공대48)1000  
임석태(대) 200  
최한용(농대58)200

▶Oregon  
김상순(상대67)225

성성모(사대67)200  
최근영(법대63)120

▶Philadelphia  
손재욱(가정77)200  
이기범(의대56)200  
이만택(의대52)200  
정정수(의대56)200  
주기복(수의68)200  
최종문(공대61)120  
현재원(공대60)200

▶Utah  
장석화(대학원66)200

▶Texas  
김정훈(공대46)200  
전기주(상대60)300

▶Virginia  
강연식(사대58)200  
박상근(법대75)200  
박용길(약대56)500  
이영덕(사대61)200

▶Washington DC.  
김동호(농대58)200  
김성열(치대63)200  
이영복(공대59)200

중신이사비

이상강(의대70)3000

모교발전금

▶Arizona  
지영환(의대59)100  
▶California  
배석민(상대71)100  
▶Georgia  
정양수(의대60)1000  
▶Heartland  
김호원(치대52)100

▶New Jersey  
박태호(사회76)500

▶New York  
한영수(의대61)100

▶Maryland  
김승희(법대55)125

▶Virginia  
최준호(공대60)100

지부발전금

▶Arizona  
김병수 회장 500  
지영환(의대59)100  
▶Chicago 2400  
▶Georgia 600  
▶New England 1000  
▶Philadelphia  
주기복 회장 1500

백미찬조금

▶Massachusetts  
정병욱( )1000

# 서울대 미주동창회 2012년 알래스카 크루즈



“미주 동창회가 7월 Alaska Cruise를 실시합니다”

7월 8~15일 7박 8일 북빙양 유적지 관람, 제21차 평의원 회의

미주 동창회(회장 김은종)는 7월 8~15일 '2012 Seoul National University Alaska Cruise Association' 을 실시합니다. 이 Cruise 여행에서는 제21차 평의원 회의와 특별 강연도 같이 개최됩니다.  
<문의> ▶아주관광(박영준 실장 213-388-4000 Fax.213-387-1006 ▶미주 총동창회(백옥자 총무국장 818-225-8411)

날 짜	경 유 지	이 동	시 간	일 정
제1일(8일)	LA-Seattle	항공	~4PM	시애틀 항구집합.수속후 승선.점심은 선내 뷔페.오후 4시 출발.비상탈출훈련
제2일(9일)	인사이드 패시지	항해	하루종일	멋진 인사이드 패시지 항해.과거 인디언의 수송로.선상 각종 프로그램
제3일(10일)	케치칸	관광	6AM-1:30PM	과거 블링깃족이 연어낚시로 여름철 머물렀던 곳. 세계 제일의 토타폴 전시
제4일(11일)	주노(알래스카)	관광	2PM-10PM	1880년대 골드 러시로 생긴 알래스카 주도.해안선의 거대한 피요르드.빙하 등
제5일(12일)	Skagway	관광	7AM-8PM	블링깃족 언어로 Skagua는 '북쪽의 집'.골드러시로 모여들었던 고도시 승결
제6일(13일)	글래스어베이	항해	하루종일	만년설과 빙하의 절경을 이룬 국립공원. 많은 섬과 항구. 피요르드 해안절경
제7일(14일)	빅토리아	관광	6PM-11:50PM	밴쿠버 항구도시. Sunken정원이 있는 부처드 가든 등 관광.여권 영주권 필요
제8일(15일)	Seattle-LA	항해	7AM	시애틀 크루즈 터미널 도착. 유람선 이륙 조식.항공편으로 각 지역 출발



# 미주 동문 업소록

광고 문의는 전화  
(818) 225-8411로



## CA 남가주 건축/건설링

**HNK Teck, INC(하나건축 사무소)**  
한효동(공대 58) (213)422-9299  
7518 1/2. Foothill Bl LA. CA. 91042

**ACCU Construction, Inc.**  
엄동해(농대 74) (714) 641-4730  
1526 Brookhollow Dr, Santa Ana CA 92705

**손학식 건축사무소**  
손학식(공대 61) (310) 394-0705  
1424 4th St., #700 Santa Monica CA 90401

**The Unipac Communities(M)**  
홍정일(공대 59) (818) 990-5080  
8126-BE. Scotts View Orange CA 92869

**JND Engineering**  
박진득(농대 67) (310) 394-0705  
14700 Firestone Blvd. #122 La Mirada CA 90638

**Mackone Development Inc.**  
양태준(상대 56) (213) 252-9506  
2244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7

**Sierra Padre Mill Co.(건축자재 생산)**  
임현빈(문리대 61) 760-753-6905  
555.N. Vulcan Ave. Encinitas CA

## 공인회계사

**강동순 회계사**  
강동순 (법대 59) (310) 538-9315  
9401 S. Vermont Ave. #C-201  
Torrance, CA 90502

**김재영 공인회계사**  
\* 김재영 (농대 62) (213) 385-1985  
2960 Wilshire Blvd. #300,

**Kim & Kang CPA's**  
(김경우 강경옥 공인회계사)  
김경우 (공대 69) (213) 616-1390  
3435 Wilshire Blvd. #1150 Los Angeles, CA 90010

**Kim & Hwang CPA**  
김원철 (농대 70) (213) 383-8553  
3435 Wilshire Blvd. #940  
Los Angeles, CA 90010

**김광현 회계사무실**  
김광현 (상대 69) (213) 736-6789  
3250 Wilshire Blvd. #1705  
Los Angeles, CA 90010

**최송규 공인회계사**  
최송규 (법대 62) (213) 381-0761  
3680 Wilshire Blvd. #1010  
Los Angeles, CA 90010

**신대석 공인회계사**  
\* 신대석(상대 60) (310) 329-6557  
555 W. Redondo Beach Bl. #260,  
Gardena CA 90248

**강호석 회계사무소**  
강호석(상대 81) (714) 530-3630  
12912 Brookhurst St., #370  
Garden Grove CA 92840 (213) 380-5060  
3600 Wilshire Blvd. #1004 LA, CA 90010

**Kim & Youn CPA**  
김규정 (사대 77) (213) 427-9595  
3660 Wilshire Blvd. #500  
Los Angeles, CA 90010

**윤경민 공인회계사**  
\* 윤경민(법대 55) (213) 388-6622  
695 S. Vermont Ave. #1350  
Los Angeles CA 90005

**윤재호 공인회계사**  
\* 윤재호(상대 76) (310) 325-0400  
2740 Sepulveda Blvd.  
Torrance CA 90505

**Kim & Youn A Prof. Corp**  
윤홍원 (사대 81) (213) 427-9595  
3660 Wilshire Blvd. #500  
Los Angeles, CA 90010

**이용철 공인회계사**  
이용철 (경영대 92) 949-756-3500  
2 Corporate Park, #202,  
Irvine, CA 92606

**이강원 공인회계사**  
이강원 (인문대 76) (213)387-1234  
3530 Wilshire Blvd #1414  
Los Angeles, CA 90010

**장 준 공인회계사**  
장 준(인문대 85) Tel:(818) 772-2811  
9020 Reseda Blvd., #104  
Northridge CA 91324

**\* Phillip K. Jung, CPA**  
정광진 (농대 76) (213) 252-5900  
3345 Wilshire Blvd. #1006  
Los Angeles, CA 90010

**CHA, STANLEY, CPA**  
차기민(공대 85) (213) 739-5700  
3440 Wilshire Blvd. #807  
Los Angeles CA 90010

**Phillip H. Cho, C.P.A.**  
조흥준 (상대 65) (213)380-3333  
3700 Wilshire Blvd. #950  
Los Angeles, CA 90010

**Daniel D. Moon CPA**  
문덕수 (공대 73) (213) 385-3155  
3435 Wilshire Blvd. #965  
Los Angeles, CA 90010

**Phillip K. Jung, CPA**  
정광진 (농대 76) 213-252-5900  
3345 Wilshire Blvd. #1006  
Los Angeles, CA 90010

**John J. Kim, CPA**  
김종관 (문리대 57) 213-385-2323  
3200 Wilshire Blvd. South Tower #1310  
Los Angeles, CA 90010

**Kwang Hee Nam CPA**  
남광희(인문) 213-487-1686

**AAMKO Consulting Co.**  
강신용 공인회계사  
강신용(사대 73) 213-380-3801  
3850 Wilshire Blvd. #201 LA. CA. 90010

**조승범 (David S. Cho CPA)**  
조승범 (경영대 74) 213-380-3333  
3700 Wilshire Blvd. #950  
Los Angeles, CA 90010

## 금융/재정설계

**First Standard Bank**  
임봉기 (공대 63), 최영구 (상대 61)  
James Hong (사대 73)  
(213) 892-9999 10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7

**Bank of America Home Loans**  
David H. Lee, CPA Mortgage  
Loan Officer 이동하(경대원 82)  
Tel (714)469-4584 (213)500-6458  
1 Park Plaza Suite 250 Irvine CA 92614

## 리테일러

**한남체인 (리테일러/상패)**  
하기환(공대 66) (213) 381-3610  
274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The Westar Group 윤장희(상대 83)**  
(626) 400-7074 1613 Chelsea Road #119 San  
Marino CA 91108

**S R Window, LLC. 류 원 (대학원 74)**  
(909) 984-7555 300 E. Main St. #A Ontario, CA  
91761

**Fashion World 박익순(상대 53)**  
(714)491-0706 1440 S. Anaheim Blvd., #A-  
08 Anaheim CA 92805

**HK Pegasus Inc. 이경원(문리대 71)**  
(310)676-1615 13007 Prairie Ave. Hawthorn  
CA 90014

**Sammy Mart**  
라철삼(문리대 64) (213) 623-7617  
934 S. Los Angeles St., #J L.A., CA 90015

## 리테일러/보석상

**세계보석**  
김광철 (음대 59) (213) 627-0547  
650 S. Hill St. #E8  
Los Angeles, CA 90014

## 무역/수출입

**무역/디자인**  
Goldentek Display America, Inc.  
방명진(공대 73) (714) 871-5300  
1221 North Patt St. Anaheim CA 92801

## “동문 업소록을 제정비합니다”

동창회보의 동문 업소록은 동문들의 비즈니스와 그 내용을 여러 동문들을 비롯한 독자들에게 널리 홍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문들께서 주지하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7월 1일부터 제 11대 회장단으로 임무가 이전된 만큼 업소록 또한 새롭게 제정됩니다. 이 업소록은 앞으로 회기연도별로 제정비할 계획입니다. 업소록 게재는 최소 Box 사이즈 \$120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후원금 액수에 따라 Box크기도 달라집니다. 동문들께서는 23면 ‘서울대학교 미주 동창회 후원금 신청서’ 를 참조하시어 원하시는 사이즈 별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snuausa@yahoo.com 또는 (전화) 818-225-8411 (Fax) 310-515-7883 1225 W.190th St. #465 Gardena CA 90248

**Green Zone International, Inc. 농산물**  
김한평 (치대 65) (714) 724-2580  
2800 Keller Dr. #11 Tustin, CA 92782  
greenzone@yahoo.com

**S.Y Shipping Corporation**  
International Freight Forwarder  
김종표(법대 58) 562-467-5465  
670 Oak Tree St. Fullerton CA 90701

**Martial Arts Supply'**  
Kens Trading Co., Inc.  
이근철 (상대 56) (323) 871-8004  
737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29

**AMSCO Corp. 건축 자재**  
신영수 (상대 70) (562) 407-2121  
12611 Hiddencreek Way #K  
Cerritos, CA 90703

**Pacific Group USA(대형양상사)**  
하상원 (공대학원 90) 310-609-3300  
18805 S. Laurel Park Rd. Rancho  
Dominguez, CA 90220

**Sierra Padre Mill Co.**  
임현빈(문리 61) 706-753-6905  
555 N. Vulcan Ave. Encinitas, CA 92024

## 변호사/법률사무소

**신혜원 변호사**  
신혜원 (사대 81) (213) 385-3773  
3435 Wilshire Blvd. #2230  
Los Angeles, CA 90010

**Law Office of Anna K. Oh**  
\* 신경관(음대 68) (916) 922-6987  
P.O. Box 396 Carmichael CA 95609

**옥유진 이민 특허 전문변호사**  
옥유진 (공대 64) (213) 365-2229  
614 S. Van Ness Ave. Los Angeles, CA 90005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이경희(인문대 83) (213) 385-4646  
3435 Wilshire Blvd., Suite 1110  
Los Angeles CA 90010

**한태호 변호사법률그룹**  
한태호(인문대 75) (213) 639-2900  
3699 Wilshire Blvd. #860  
Los Angeles, CA 90010



LinkTV Media.
김원탁(공대 65) 818-768-5494
P.O.Box 1368 Sun Valley, CA 91352

부동산/중개업

Keller Williams Realty
유경상(농대 58) (661) 538-2800
1401 W. Rancho Vista Blvd Palmdale CA 93551

James Lee 부동산
이종묘(간호대 69) (714) 635-4011
1203 S. Euclid St. Anaheim CA 92802

JJ Park Enterprises
박종수(수의대 58) (310) 209-0216
10956 Strathmore Dr Los Angeles CA 90024

Ace Realty
성민경(공대 65) (562) 924-1411
18012 Pioneer Blvd., #A Artesia CA 90701

Citi Property Management Co.
하기환(공대 66) (213) 381-3610
3240 Wilshire Blvd. #570 Los Angeles CA 90010

서비스/영업직

Town Gate Cleaner, Inc.
현재복 (인문대 82) (951) 656-9780
12625 Frederik St. # 1-6
Moreno Valley, CA 92553

K-One Termite, Inc
\* 심영섭(문리대 65) (213) 280-7999
1157 Crenshaw Blvd. Los Angeles CA 90019

Jade Textile, Inc.
임예건(공대 69) (213) 744-0808
3315 S. Broadway 2nd Fl. Los Angeles CA 90007

우주개발

JAY H. CHUNG, Ph.D.
President & CEO
정재훈(공대 64)
TAVCO ENGINEERING, INC.
Spacecraft • Aircraft • Missiles Advanced Systems Manufacturer

비영리법인

한미 당뇨협회
\* 김용일(보건대학원 65) (213) 386-7933
266 S. Harvard Blvd. #200,
Los Angeles CA 90004

청운장학회
오재인(치대 33) (626) 284-9782
1420 Abajo Dr. Monterey Park CA 91754

한미교육연구원
차종환(사대 54) (213) 380-7155
975 S. Vermont Ave., #104 Los Angeles CA 90006

교육/상담

Hiza Yoo Korean Dance Institute
유희자 국악 무용 연구소
818-456-8022
18531 Gresham St. #204 Northridge CA 91324

AXA Advisors LLC
재정설계 상담
정임현(간호대 72) (213) 487-3253
3435 Wilshire Blvd. #2500
Los Angeles, CA 90010

이춘배 교육상담센터
이춘배 (사대 60) (323) 734-1210
3460 W. Olympic Blvd. #H
Los Angeles, CA 90019

AXA Advisors LLC
권영배 (미대 74) 213-368-5707
3435 Wilshire Blvd. #2500
Los Angeles, CA 90010

보험/재정계획

SKC Insurance Services
성주경 (상대 68) (213) 385-9550
1543 W. Olympic Blvd. #312
Los Angeles, CA 90015

서비스/자동차

Vermont Automobile
권기상(경영대학원 72) (323) 757-1316
850 W. Century Blvd. Los Angeles CA 90044

Eastman Security 이의덕(신문대 70)
(626) 336-0055 15358 Valley Bl. City of Landus-
try CA 91746

서비스/실내디자인 D-Space Interior De-
sign 김옥권(미대 76) (949) 273-8034
69 Bluejay, Irvine CA 92604

서비스/족보 Craft Net
권대원(경영대학원 59) (213) 386-5809
3600 wilshire Blvd., #1130 Los Angeles CA 90010

수의사 / 동물병원

Francis Animal Hospital
최재현(수의대 66) 909-627-0861
5284 Francis Ave, Chino Hills. CA. 91710

Humane Animal Hospital
\* 이병국(수의대 64) (909) 829-8840
9257 Sierra Ave Fontana CA 92335

Olympic Pet Clinic
권태삼(수의대 73) 213-384-7202
3201 W. Olympic Blvd, LA. CA90006

Animal Medical Clinic
신동국(수의대 76) (714) 990-1411
3257 Associated Rd. Fullerton CA 92835

Family Veterinary Hospital
전호선(수의대 67) (559) 226-6777
2745 W. Shaw #116 Fresno CA 93711

Angels Care Animal Hospital
하병래(수의대 67) (909) 982-2888
659 E. 15th St., Suite#Q Upland CA 91786

AnimAidPet Hospital
승원표(수의대 73) (714) 897-2429
7080 Katella Ave. Stanton CA 90680

Van Buren Animal Hospital
오영문(수의대 64) (951) 687-2630
5535 Van Buren Blvd. Riverside CA 92503

VCA Mission Ani. Hosp.
박찬식(수의대 73) (626) 289-3643
9356 Bigby St Downey CA 90241

Roswin Pet Hospital
김영(수의대 63) (818) 718-2112
20021 Roscoe Blvd Canoga Park CA 91306

West Highland Dog & Cat Hospital
이경수(수의대 73) (909) 887-5021
1795 West Highland San Bernardino CA 92411

경인덕동물병원
정인덕(보건대학원 64) (714)840-4658
5904 Warner Ave. #B Huntington Beach CA 92649

Hills Animal Hospital
손수웅(수의대 60) 626-919-7661
1414 Azusa Ave. #B-13 W.Covina CA 91791

Glenoaks Animal Hosp.
최용준(수의대 81) 818-840-9700
2037 W.Glenoaks Bl. Glendale CA.91201

건축 컨설팅

Lee & Ro, Inc.
노명호(공대 61) (626) 912-3391
1199 S Fullerton Rd City of Industry CA 91748

Ace Lawn Mower & Saw
이근원(공대 67) (909) 735-9980
E. Grand Blvd./ona CA 9279

엔지니어링/환경공학
Maurison Environmental Consulting
이중희(공대 50) (310) 763-0055
P.O.Box 18254 Long Beach CA 90006

예술/조각

Chaing's Art Studio
장정용(미대 64) (213) 687-3748
816 E. 4th Place Los Angeles CA 90013

운송/유통/통관/원자재

SeAH Steel America, Inc.
유통/강관도매
이병준(상대 55) (562)692-06009
9615 S. Norwalk Blvd., #B,
Santa Fe Springs CA 90670

A.P.W.
자동차 부품
\* 서동영(사대 60) (310) 753-9636
1073 E. Artesia Blvd. Carson. CA 90746

Exxel Express
정복근 (사대 69) (310) 515-5758550
E. Carson Plaza Dr. #217
Carson. CA 90746

호텔/숙박업

Best Western Friday Harbor Suite
장동석(문리대 66) (360) 378-3601
680 Spring St. Friday Harbor WA 98250

은행

Wilshire State Bank P.C.O.
유재환(상대 67) 213-387-3200
3200 Wilshire Bl. LA. CA. 90010

BBCN (Bank)
Alvin Kang 213-639-1700
3731 Wilshire Bl. Ste.1000 LA.CA.90010

Commonwealth Business Bank
조맨 김 (323) 968-3005
5055 Wilshire Blvd., #840 Los Angeles CA 90036

Hanmi Bank
황장 유재승 (213) 382-2200
이사 박창규(약대 59) (323) 734-7385
3660 Wilshire Bl. Ph-A Los Angeles CA 90010

의료/약국

나성약국
임낙균(약대 64) (213) 387-3030
3030 W. Olympic Bl. #118
Los Angeles, CA 90006

Ararat Plaza Pharmacy
이명일(약대 72) (818) 637-2177
1248 S. Glendale Ave., #M Glendale CA 91205

RX Plus Pharmacy
임동호(약대 55) (714) 776-1020
1425 E. Lincoln Ave. #B Anaheim CA 92805

Village Pharmacy
박재민(약대 60) (213) 749-2346
3137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7

Gilbert Pharmacy I
\* 최무식 (약대 66) (714) 638-8239
9240 Garden Grove Blvd. #20
Garden Grove, CA 92844

Western Pharmacy
유창호(약대 74) (323) 465-3112
1075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29

Sunrise Pharmacy (213) 413-6800
1931 Sunset Blvd. Los Angeles CA 90026

PCH Medical Pharmacy
(562) 591-7655
306 E. Pacific Coast Hwy #101 Long Beach
CA 90806

의료/치과

가나다 치과
김대우(치대 62) (310) 329-7600
15435 S WESTERN AVE #101 Gardena CA 90249

O Jin Kwon, DDS
\* 권오진(치대 61) (310) 532-5232
15632 S NORMANDIE AVE Gardena CA 90247

진호주 치과그룹
\* 진호주 (213) 385-1325
401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배윤범 치과
배윤범(치대 69) (213) 385-1233
3540 Wilshire Blvd STE 212 Los Angeles CA 90010

오흥조 치과
\*\* 오흥조(치대 56) (213) 382-8205
286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California Family Dental Center
\* 이영승(치대 65) (323) 266-1500
4080 E. Whittier Blvd. Los Angeles CA 90023

최범식 치과
최범식(치대 56).....(213)381-1112
3421 W. 8th St. #1 LA. CA.90005

김경수 치과
김경수(치대 58).....(213)482-5462
1127 Wilshire Bl #1500 LA.CA.90017

김정 치과
김정(치대 59).....(714)641-2939
204 E. Waver #104 Santa Ana. CA.92707

김재중 치과
김재중(치대 62) (623) 681-0800
17476 E Collma Rowland heights CA 91748

최미혜 치과
최미혜(치대 62).....(213)386-4919
3000 W. Olympic Bl. #300 LA. CA.90006

오길평 치과
오길평(치대 63) (323) 734-2285
S. La Brea Ave. Los Angeles CA 90016

우원섭 치과
우원섭(치대 65) (213) 487-3622
3566 W. 3rd St. Los Angeles CA 90020

ISeonho Ha Prosthodontics
하선호(치대 81) (213) 365-1008
3240 Wilshire Blvd.# 510 Los Angeles CA 90010

이효경 치과
이효경(치대 63) (562) 924-3334
17334 Pioneer Bl. Artesia CA 90701

I Jin Bak, DDS
박일진(치대 54) (818) 349-3136
8949 Reseda Blvd #116 Northridge CA 91324

조상우 치과
조상우(치대 64).....(310)637-6187
402 S.Long Beach Bl. Compton CA90221

이병무 보철치과
이병무(치대 70) (213)383-7500
3663 W. 6th St. #204 Los Angeles CA 90020

조규석 치과
조규석(치대 65) (818) 368-6635
17029 Chatsworth St. # 201 Granada Hills CA

**Your Choi's Dental**  
최종환(치대 70) (323) 585-3332  
3131 E. Florence Ave Huntington Park CA 90255

**신우천 치과**  
신우천(치대 67) (310) 530-5455  
23632 Crenshaw Bl Torrance CA 90505

**권중건 교정치과**  
권중건(치대 65) (818) 952-6362  
3700 Wilshire Blvd. suit 400 LA CA 90010

**성락호 치과**  
성락호(치대 65) (310) 518-3522  
414 W. Pacific Coast Hwy Wilmington CA 90744

**임희영 치과**  
임희영(치대 69) (562)866-6914  
9951 Artesia Pl. Bellflower CA 90706

**Jo's Family Dentistry**  
조상하(치대 64) (562) 927-1112  
8209 Eastern Ave Bell Gardens CA 90201

**정중훈 치과**  
정중훈(치대 75) (323) 268-8308  
2111 1/2 Cesar Chavez Ave. #1 Los Angeles CA

**윤희성 치과**  
윤희성(치대 65) (661) 327-8619  
2115 D. St. Bakersfield CA 93301

**송은섭 치과**  
송은섭(치대 70) (818) 957-7878  
2777 Foothill Blvd. La Crescenta CA 91214

**박재호 치과**  
박재호(치대 54) (213) 487-5961  
3123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신우식 치과**  
신우식(치대 59) (714)540-5151  
2112 S. Bristol St. Santa Ana CA. 92704

**김인권 치과**  
김인권(치대 72) (213) 739-8641  
3663 W. 6th St.#300 Los Angeles CA 90020

**늘웃는 치과**  
이병모(치대 74) (323) 734-3710  
966 S. Western Ave.#207 LA. CA 90006

**이강훈 치과**  
이강훈(치대 67) (626) 912-8557  
1661 S. Nogales St. #C Rowland Heights CA

**박태호 치과**  
박태호(치대 66) (323)265-1505  
5017 Whittier Blvd. Los Angeles CA 90022

**조광제 치과**  
조광제 (치대 82).....(562)696-3334  
8330 Painter Ave. #B Whittier CA.90602

**의료/내과/전문외**

**권영재 소아과**  
\* 권영재(의대 57) (562) 435-4777  
1040 Elm Ave. #200 Long Beach CA 90813

**김일영 심장내과**  
\* 김일영(의대 65) (323) 662-1175  
9919 Beverly Blvd. #100 Los Angeles CA 90004

**정수만 암내과 - 혈액내과**  
정수만(의대 66) (714) 539-6414  
12555 Garden Grove Blvd. #309 Garden Grove CA 92843

김승현(의대 75) (213) 385-5500  
3663 W. 6th St. #206 Los Angeles CA 90020

이미정 소아과  
이미정(의대 57) (213) 252-0036  
520 S. Virgil Ave. Los Angeles CA 90020

차민영(의대 76).....(213)480-7770  
520S. Virgil Ave.#103 LA. CA. 90006

**South Bay Cancer Center**  
나정자(간호 70)  
310-978-4970 310-543-5327  
14608 Hawthorne Bl. LA. CA 90260

최동욱 산부인과  
최동욱(의대 59) (909) 620-1976  
1818 N. Orange Grove #203 Pomona CA 91767

Sang H. Park, M.D.  
박상호(의대 65) (323) 730-0200  
945 S. Western Ave. #100 Los Angeles CA 90006

이원택 신경정신과  
이원택(의대 65) (562) 591-7377  
1745 Pacific Ave. Long Beach CA 90813

전희택 신경외과  
전희택(의대 58) (818) 347-3287  
2301 Sherman Place West Hills CA 91307

Inland Ear, Head & Neck Clinic  
정대건(농대 66) (961) 352-7920  
3975 Jackson St. #202 Riverside CA 92503

New Wilshire Medical Clinic  
최영수(의대 47) (213) 739-2226  
313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Anapa Pain Clinic  
조형기(의대 86) (213) 386-8275  
3545 Wilshire Blvd. suite#109 Los Angeles CA 90010

Yoongho Lhim, M.D.  
임용오(의대 57) (909) 425-8624  
2916 Roadrunner Ct. Highland CA 92346

S.J. Whang, MD, Medical Group  
황석우(의대 53)  
1325 Via Del Reg. South Pasasena CA 91030

Kaiser Permanente  
나두섭(의대 66) (909)427-5408  
9985 Sierra Ave. Fontana CA 92335

AHNN, WILLIAM, M.D  
안병필(의대 63) (909) 882-1231  
399 E. Highland Ave. #314 San Bernardino CA 92404

Kaiser Permanente Medical Group  
김홍서(의대 63) (818) 375-2869  
13652 Cantara St. Panorama City CA 91402

**제조업/영업**

New Pride Corp. (타이어)  
김은종(상대 59) (310) 631-7000  
2757 E. Del Amo Blvd., Rancho Dominguez CA 90221

Dale Tiffany, Inc.(전기전동)  
정예현(상대 63) (714) 739-2700  
14830 Alondra Blvd., La Mirada CA 90638

테이코우주개발사  
정재훈(공대 64) (714) 952-2240  
10874 Hope St. Cypress CA 90630

제조업/냉장고-상업용  
서지원(공대 69) (310) 719-5422  
3421 Oakridge Terrace Calabasas CA 91302

RF Connection, Inc. (통신장비)  
이동휘(공대 63) (562) 941-0565  
9925 Painter Ave., Suite#J Whittier CA 90605

Silla America, Inc. (모터개발)  
이기준(법대 54) (323) 232-1233  
1600 E. 25th St. Los Angeles CA 90011

Nature & Health, Inc.  
송준성(농대 65) (714)257-1800  
451 W. Lambert Rd., #200 Brea CA 92821

Sierra Padre Mill Co. (건축자재생산)  
임천빈(문리대 61) (760) 753-6905  
555 N. Vulcan Ave. Encinitas CA 92024

**라 캐나다 한인교회**  
독고 원(공대 65) 818-790-7320  
1700 Foothill Blvd La Canada, CA 91011

**성서장로교회**  
\* 나민주(음대 65) (310) 515-7207  
1655 Marine Ave. Gardena CA 90247

**로스페리스강리교회**  
임대수 (음대 60) 818-500-3915  
600 Balboa Ave. Glendale, CA 91206

**뉴 샬렘 한마음 교회**  
김수영(사대 57) (213) 387-0930  
2954 W. 8th. #101. Los Angeles. CA 90005

**오렌지카운티 영락교회**  
허영진(문리대 61) (714) 534-1135  
12612 Buaro St. Garden Grove CA 92640

**유니온 교회**  
박부강(사대 64) (626) 858-8300  
710 N. Lark Ellen Ave. West Covina CA 91791

**트렌스조은교회**  
김철호(사대 73) (310) 370-5500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컴퓨터/컨설팅**

**Computer Pro**  
윤재우 (공대 83) (310) 626-6391  
22521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5

**Keyoung Art Advisory LLC**  
강민성(미대 98) (415) 750-0533  
268 Bush St., #3949 Sanfrancisco CA 94104

**통역/번역**

**Better Comm 통역**  
정연진 (인문대 81) (213) 387-1166  
3700 Wilshire Blvd. #490 Los Angeles, CA 90010

**안방의원/안약**

**이봉수 안방병원**  
이봉수 (수의대 66) (213) 381-6090  
958 S. Grand View St. Los Angeles, CA 90006

**이형교 한의원**  
이형교 (교육대학원 66) (714) 995-2733  
7731 Katella Ave. #B Stanton, CA 90680

**식품/음식점**

**용수산 Yong Su San**  
Traditional Korean Cuisine  
213-388-3042  
950 S. Vermont Ave. LA. CA 90006

**장수장 Jang Soo Restaurant**  
310-327-9292  
1404 W. Redondo Beach Blvd.  
Gardena CA 90247

**마포 주물럭 Mapo Korean BBQ**  
Restaurant (310)679-3622  
14609 S. Crenshaw Blvd. #102 Gardena  
CA. 90249

**한국트로피**  
박양중(문리대 61) 213-380-2775  
3475 W. 8th. St. #200 Los Angeles CA. 90005

**자연나라 Jayone Foods, Inc.**  
이승훈(상대 74) (562)633-7400  
7212 Alondra Blvd.,  
Paramount CA 90723

**북창동순두부** 213-382-6680  
이태로(법56) 1413 S. Vermont Ave. L.A.  
CA 90006

**샌디에이고**

**부동산**

**June Lee 부동산**  
이춘화 (84졸업) (858) 525-3222  
4228 Convoy St. San Diego CA 92111

**수의사/동물병원**

**College Pet Clinic**  
강등현(수의대 75) (760) 631-2080  
475 College Bl. #8 Oceanside, CA 92057

**복가주**

**상담/컨설팅**

**두리하나 결혼정보**  
5년 전 설립해 현재 다수 회원 확보. 높은 성공  
율과 많은 초혼,재혼자 데이트중. 서울대 동문  
과 동문자녀 특별할인 정지선(상대 50)  
(510)224-0760 2910 Telegraph Ave. Ste. 200  
Oakland CA 94609 www.2makes1.com

**수의사/동물병원**

**Richmond Veterinary Hospital**  
한상봉(수의대 67) (310) 232-3465  
4704 MacDonald Ave. Richmond CA 94805

**Hillview Pet Hospital**  
김희원 (수의대 73) (510) 525-4571  
666 San Pablo Ave. Albany, CA 94706

**의료/전문외/치과/안의원**

**박희례 한의원**  
임희례(간호대 73) (831) 818-2959  
627 Water St. Santa Cruz CA 95060

**산부인과**  
황동희(의대 65) (415) 831-6068  
402 8th Ave. #201 San Francisco CA 94118

**Samuel Choi, DDS**  
최상집(치대 63) (916) 482-2897  
3046 Watt Ave. Sacramento CA 95821



**MD,VA 워싱턴DC**

**Fairway Asset Corporation**  
남옥현(경영대 84) 301-279-6969.  
414 Hungerford Dr. #203 Rockville MD 20850

**공인회계사**

**Lee Kyu Sup, CPA**  
이규섭(상대 68) (703) 642-2900  
4330 Evergreen Ln. Suite H Annandale, VA 22096

**Choi & Co., CPA**  
\* 최 환(공대 68) (302) 636-9009  
2006 Limestone Rd. #10 Wilmington DE 19808

**자산관리**

**IPM Wozth Management**  
이태영(법대 60) (410) 777-8081 ex158  
1430 Joh Ave. Suite M Baltimore MD 21227

**변호사 / 법률사무소**

**Moon-Park & Associates**  
박상근(법대 75) (703) 941-7395  
7617 Little River TnPk #930  
Annandale VA 22003

**BSKB, LLP 특허법률사무소**  
진금섭(약대 57) (703) 205-8064  
8110 Gatehouse Rd. Fall church VA 22042

**부동산 / 정계업**

**BPS Appraisal Company**  
박평일(농대 69) (703) 750-1707  
7518 Evans Ford Rd. Clifton VA 20124

**비영리 계단**

**동일시대연구소**  
이종률(문리 60) (703) 304-2129  
5116 Donovan Dr. #407 Alexandria VA 22304

**엔지니어링 / 영공**

**Driveteck, Inc.**  
\* 엄달용(공대 69)  
25492 Carrington Dr. South Riding VA 20152

**수의사 / 동물병원 / 요식업**

한익성(수의 60) (703) 751-3707  
2923 Blue Holly Ln Oak Hill VA 20171

우래욱  
백행남(문리 60) (703) 827-7300  
8240 Leesburg Pike Vienna VA 22182

**의료 / 내과 / 전문의 / 치과**

**권철수 신경정신과**  
권철수(의대 68) (410) 235-2880  
711 W. 40 St. Rounda Office Building #408  
Baltimore, MD 21211

**도상철내과**  
도상철(의대 63) (410) 760-6623  
1600 Crain Highway #206 Glen Burnie MD 21061

**Belair Pedatric Center**  
임필순(의대 56) (410) 939-2811  
419 S. Union Ave. Havre De Grace MD 21078

**Potomac Hospital/Fairfax Hospital**  
강준희(의대 71) (301) 949-1345  
2300 Optiz Blvd. Woodbridge VA 22191

**이중국 종합의료원**  
이중국(의대 52) (703) 256-6204  
4605A, Pinecrest Office park Dr. Alexandria VA 22312

**이준영 치과**  
이준영(치대 74) (301) 220-2828  
6201 Greenbelt Rd. Ste U-10 Berwyn Heights, MD

**여행업**

**Hans World Travel 한인섭 (문리 55)**  
7601 Little River TnPk, Suite-102 Annandale  
VA 22003 Tel 703-658-1717 Fax 703-  
658-3110 Toll Free 800-963-4267  
hanstravel.joanne@gmail.com

**해보라 여행사**  
김 국(농대 75) (703) 242-0580  
2915 Hunter Mill Rd. #8 Oakton VA 22123

**FL 플로리다**

**리태일러 / 주얼리**

**First Choice Guild, Inc.**  
\* 김철호 (미대 67)  
8200 NW 27th Ave., Miami, FL 33056

**GA 조지아**

**FOB Synthesis Inc.**  
최우백(공대 76) (404) 601-1412  
3400 Cobb International Blvd Kennesaw GA 30152

**Auto Plaza Group, Inc.**  
이영진 (공대 76) 678-473-4731  
4132 Bedford Hwy Duluth, GA 30096

**Good Nutrition**  
김만복(문리 72), 김용주 (법대 73),  
문종현 (사회대 84) (770) 992-2363  
463 Beaver Rulm Rd. Norcross GA 30071

**금융**

**Metro City Bank**  
백낙영 (상대 61) (770) 455-4989  
5441 Buford Hwy #109 Doraville, GA 30340

**리태일러/가동계**

**NYTown.com (온라인교육)**  
조덕성(공대 71) (678) 397-1025  
3415 Duluth Park Ln. Duluth GA 30096

**IL-IN 시카고**

**건축 / 설계**

**Arbor Engineers & Planners**  
\* 정승규(공대 60) (773) 285-8808  
4935 N. Elston Ave. Chicago IL 60630

**공인회계사**

**심상구 공인회계사**  
심상구(상대 63) (618) 257-1788  
1800 Lebanon Ave. Belleville IL 62221

**언론**

**Korean World Times**  
오 성 (법대 76) 201-840-8043  
605 Broad Ave. #206 Ridgefield IL

**이흥미 변호사**  
이흥미(약대 63) (773) 427-8870  
4001 W. Devon Ave. #204 Chicago IL 60646

**Law Office of Ben H. Kim & Associates**  
김봉현(법대 55) (773) 583-3558  
3403 W. Lawrence #201 Chicago IL 60625

**부동산 / 정계업 / 개업상담**

**로알 부동산**  
임우광(문리 61) (847) 877-7075  
5020 Crain St. Skokie IL 60077

**Green Realty, Inc.**  
김정렬(수의 71) (847) 729-5850  
1701 E. Lake Ave. #442 Glenview IL 60025

**IT Realty, Inc.**  
송성준(법대 76) (847) 398-3100  
832 E. Rand Rd. #22 Mt. Prospect IL 60056

**CLK Enterprises**  
김동희(공대 66) (630) 207-2515  
24 Corncord Drive Oak Brook IL 60523

**샐리 정 공인재정상담가**  
김현숙(간호 79) (847) 301-1777  
79 Scully Dr. Schaumburg IL 60193

**수의사 / 동물병원**

**Munster Animal Hospital**  
한원중(수의 83) (219) 924-0101  
10421 Calumet Ave. Munster IN 46321

**Lincolnwood Ani. Hosp.**  
곽영로(수의 72) (847) 677-7070  
6431 N. Cicero Ave. Lincolnwood IL 60172

**의료 / 내과 / 전문의 / 치과**

**Elgin Cardiac Sugery, S.C.**  
임현재(의대 59) (847) 695-1620  
조중행(의대 63) (847) 695-1620  
915 Center St. #1003 Elgin IL 60120

**Suh Sang Hun, MDPC**  
서상헌(의대 65) (773) 522-2010  
1401 S. California Chicago IL 60608

**Rosa H. Choi, MD, SC (소아과)**  
최혜숙(의대 53) (708) 383-3010  
6853 W. North Ave. Oak Park IL 60302

**Dixie Hospital**  
노영일(의대 62) (708) 709-6030  
333 Dixie Highway Chicago

**\* 이훈우 치과**  
이훈우(치대 54) (847) 390-7474  
9101 Greenwood Ave, Niles, IL 60714

**심재희 치과**  
이재희(치대 68) (618) 239-6151  
1800 Lebanon Ave. #104 Belleville, IL 62221

**서승환 치과**  
서승환(치대 57) (847) 518-0228  
8118 N. Milwaukee Niles IL 60714

**이철주 치과**  
이철주(치대 61) (847) 675-0882  
64 Old Richard Shopping Center #428 Skokie IL 60077

**약원 / 문의학원**

**RFUMS / Chicago Medical School**  
김윤범(의대 54) 847-578-8847  
3333 Green Bay Rd. N. Chicago IL 60064

**The Intercultural Institute of Illinois**  
함성택(문리 55) (847) 508-1190  
6050 W. Touhy Ave. Chicago IL 60065

**MA 뉴잉글랜드**

**수의사 / 동물병원**

**Twin City Animal Hospital**  
윤상래(수의 62) (978) 343-3049  
869 South St. Fitchburg MA 01420

**Tewksbury Animal Hospital**  
김문소(수의 61) (978) 851-3636  
1098 Main St. Tewksbury MA 01876

**JK Realty Trust 김재호(상대 56) (617)**  
277-7455 POBox 696 Brookville MA 02446

**강길원 산부인과**  
강길원(의대 59) (978) 957-4660  
505 Nashua Rd. Dracut MA 01826

**MD 메릴랜드**

**이준영 치과(치대 74)**  
301-926-9692. 8931 Shady Grove Court  
Gaithersburg MD. 20877

**Fairway Asset Corporation**  
남옥현(상대 84) 301-279-6969  
414 Hungerford Dr. #203 Rockville MD. 20850

**MI 미시간**

**디트로이트 한국문화학교**  
진숙영(문리 70) (248) 356-4488  
27075 W. Nine Mile Rd Southfield MI 48034

**의료 / 내과 / 전문의**

**Kent Pathology Lab**  
김계윤(의대 57) (616) 458-1255  
2650 Horizon Dr. SE #B Grand Rapids MI 49546

**Genesys Hurley Cancer Institute**  
오동환(의대 65) (810) 762-8490  
302 Kensington Ave. Flint MI 48503

**이한중 심장내과**  
이한중(의대 59) (248) 569-0122  
22255 Greenfield Rd. #231 Southfield MI 48075

**윤효윤 심장내과 C. A. V. A**  
윤효윤(의대 63) (248) 844-1010  
645 Barclay Circle Rochester Hills MI 48307

**St. Joseph Mercy Hosp.**  
이영모(의대 53) (248) 858-3490  
44405 Woodward Ave. Pontiac MI 48341

**Chul Chang, MD**  
장 철(의대 65) (269) 427-5304  
P.O.Box 250 Bangor MI 49013

**MN 미네소타**

**HDM Inc.**  
김영희(공대 65) (651) 730-6205  
570 Hale Ave ST. Paul MN 55128

**NJ-NY 뉴욕/뉴저지**

**건장**

!! 양, 에이즈 !! 한인수(사대 73) 영생건강 718-  
762-0812 세계 최초 Plant stem cell(또셀) 분리  
배양 성공. 2010년 11월 Nature지 논문 발표.

**남김박 설계사무소**  
남신우(공대 61) (609) 392-7005  
1530 Brunswick Ave. Lauren Ceville NJ 08648

**공인회계사**

**Sung N. Pak, CPA**  
박성남 (사대 76) 212-760-2338  
481 8th Ave. #1549 New York, NY 10001

**Edward CM Kang CPA**  
강충우(사대 60) (212) 594-9034  
Empire State Building # 820  
New York NY 10018

**세원 회계법인**  
\* 김명승(상대 65) (212) 213-4151  
1270 Broadway Suite# 606  
New York NY 10001

**Kenneth K. Lee CPA**  
이경림(상대 64) (212) 768-9144  
1430 Broadway Suite 906  
New York NY 10018

**Wesley Y. Chung CPA**  
정일화(상대 55)  
6385 Whitestone Place  
Duluth GA 30097

Changsoo Kim, CPA P.C.  
\* 김창수(약대 64) (212) 760-1768  
38 W 32St Suite #800 New York NY 10001

Kim Lee & Co.  
김용배 (인문대 77) (212) 563-2727  
1261 Broadway #302 New York, NY 10001

서울공인회계사무소  
문주한 (경대원 88) 718-962-4444  
150-13 Northern Blvd 2nd Fl Flushing, NY 11354

**Wha Sam Kong, CPA**  
\* 공화삼(농대 64) (201) 868-2255  
6135 Bergenline Ave. #2 W.

**Young Sik OH, CPA**  
오영식(법대 72) (201) 569-1177  
333 Sylvan Ave. #216 Englewood Cliffs, NJ 07632

Kevin Lee & Co.  
이근수(상대 64) (212) 686-0115  
1201 Broadway #707 New York NY 10001

**Young Tai Choi E.A.**  
\* 최영태(문리 67) (212) 695-0206  
13 E 30th St. 2Fl New York NY 10016

**금융 / 재정설계**

Genko Financial  
유근우(문리 71) ..... (201) 945-4692  
21 Grand Ave., #805 Palisades Park NJ 07650

**리타일러**

New York Golf Center  
이전구(농대 60) (212) 564-2255  
131 W. 35th St. New York NY 10001

SK Group, Inc.  
우상영 (상대 55) (973) 815-1234  
55 Central Ave. Passaic, NJ 07055

E Mart Corp.  
김학수(상대 65) (718) 720-4498  
195 P. Richmond Ave. Staten Island NY 10302

Sun Furniture  
정은영(음대 59) (718) 224-3737  
250-21 Northern Blvd. Little Neck NY 11362

Windsor Wine Shop  
이규태(법대 57) (212) 779-4422  
3rd Ave. New York NY 10016

Broadway Jewelry  
곽선섭(공대 61) (973) 345-1745  
72 Broadway Paterson NJ 07505

Caps Unlimited  
천병수(공대 70) : (718)293-7711  
17 East 170th St. Bronx NY 10452

**광고/기획 디자인**

Symbol Power Inc.  
김현영(미대 81) (212) 967-0874  
990 6th Ave. #6M New York NY 10018

**변호사**

**연봉원 변호사**  
\* 연봉원(문리 61) (212) 779-1828  
1261 Broadway #201 New York NY 10001

**조대영 변호사**  
\* 조대영(공대 61) (212) 779-7770  
445 5th Ave., Suite 9E New York NY 10016

Joon Hee Park, Attorney at Law  
박준희(인문대 86) (212)813-8383  
1001 Avenue of the Americas.#1105  
New York, NY 10018

Deloitte & Touch  
김영휘(법대 80) (212) 436-2587  
2 World Financial Center New York NY 10281

최형무 변호사 법률사무소  
최형무(법대 69) (718) 463-3500  
36-09 Main St., Suite #208 Flushing NY 11354

Weinstein, LLP  
김용학 (법대 70) (212) 616-3007  
420 Lexington Ave. #2620 New York, NY 10170

서장석 변호사  
서장석(사회과학대 91) (201) 363-0010  
460 Bergen Blvd., #206 Palisades Park NJ 07650

신응남 변호사  
신응남(농대 70) (718) 463-3131  
158-14 Northern Blvd. 2Fl. Flushing NY 11358

Sang Chin Yom, Attorney at law  
영상진(상대 77) (201) 461-1616  
1580 Lemoine Ave., #9 Fort Lee NJ 07024

**무역 / 종합영어**

Evershine Mt. Corp. (의류)  
김우영(상대 60)  
350 5th Ave. New York NY 10118

EAC Trading, Inc (전기 상품).  
윤정욱(약대 50) (516) 466-5678  
98 Cutter Mill Rd. Great Neck NY 11021

**부동산/중개업**

Century 21 Infinity Realty  
\* 이재원(법대 60) (201)944-5353  
242 Broad Ave.Palisades Park NJ 07650

Cosmo Realty  
\* 이재택(법대 60) (201) 944-4949  
258 Broad Ave. Palisades Park NJ 07650

다니엘게일 소더비 부동산  
이명숙(간호 56) (516) 484-1800  
1400 Old Northern Blvd. Roslyn NY 11576

Re/max Diamond  
류재은(미대 71) (732) 742-1919  
1199 Amboy Ave. Edison NJ 08837

뉴스타 부동산  
송중길(신대원 69) (718) 224-3308  
214-22, 42nd Ave. Bayside NY 11361

Ji Jay Corp. (부동산/관리)  
최한용(농대 58) (718) 268-2553  
23 Briarfield Dr. Lake Success NY 11020

**비영리법인**

XenoBiotic Lab. Inc.  
김혜숙(생활과학대 73) (609) 779-2295  
107 Morgan Lane Plainsboro NJ 08536

IBECONS Int'l  
김재철(공대 58) (718) 650-0486  
1228 Forest Ave. Staten Island NY 10310

**서비스**

KARLAN Service, Inc.  
김영배(공대 78) (973) 278-1015  
189 East 7th St.  
Paterson, NJ 07524

**여행업**

아리랑여행사  
ARIRANG TRAVEL SERVICE, INC 정영희 (사대 62) (212) 563-3351 \*유럽 전지역 투어 (서유럽, 동유럽 러시아 등) 및 성지순례 \*전 지역 크루즈 투어 \* 고국 방문 및 아시아 투어 \*전 지역 AIR TICKET 800-223-6225 / Fax: (212)239-0889 16 W 32nd ST, Suite 1106, New York, NY 10001 arirangtravel@hotmail.com

**서비스 / 클리너 / 영구정제**

C & K Dry Cleaner  
김진자(간호 60) (914) 698-1919  
965 Mamaroneck Ave. Mamaroneck NY 10543

Kim's Dutch Cleaners, Inc  
김규화(상대 63) (856) 596-5992  
750 Route 70, Eveshamplaza Mailton NJ 08003

Alco Lock & Safe, Inc.  
정인식(상대 58) (212) 867-3380  
405 Lexington Ave. Chrysler Building Arcade NY

**수의사 / 스포츠**

Ridgefield Park 동물병원  
김기택(수의 81) (201) 814-0095  
199 Main St. Ridgefield Park NJ 07660

보고타 골프센터  
김난기(사대 63) (201) 489-2400  
30 Cross St. Bogota NJ 07603

**인문 / 언어**

Radio Korea NY  
권영대(공대 69) (718) 358-9300  
136-56 39th Ave #4F Flushing NY 11354

Korea Broadcasting System  
황상무(사회과학대 83) (212) 246-7709  
1776 Broadway #2005 New York NY 10019

B & P Group, Inc.  
이석구(문리 69) (201) 585-5063  
138 W. Central Blvd. Palisades Park NJ 07650

**예술 / 갤러리**

Nahrah Culture Center  
김광현(미대 57) (201) 944-1047  
1605 Center Ave. Fort Lee NJ 07024

**유통 / 라이팅**

Lighting Craftsman, Inc.  
조재석(문리 68) Tel: (212)966-4474  
173 Bowery New York NY 10002

Penn-Craft Corp (건강기능 식품)  
손완배(농대 70) (201) 947-6644  
340 Tremont Ave. Fort Lee NJ 07024

**운송 / 유통 / 통관**

Kiss Products, Inc.  
김광호(문리 62) 516-625-9292  
57 Seaview Blvd. Port Washington NY. 11050

American Int'l Line, Inc.  
윤병하 (농대 80) (718) 995-7060  
147-38 182nd St. Jamaica, NY 11413

중앙장의사  
(Central Funeral Home)  
하해민(의대 99) 201-945-2009  
809 Broad Ave. Ridgefield NJ 07657  
718-353-2424  
136-25 41St.Ave.Flushing NY 11355  
www.centralfuneral.com

**의료 / 내과 / 전문의**

Young S. Hahn, M.D.  
한영수 안과(의대 61) (718) 478-3344  
40-23 74th St. Elmhurst NY 11373

방준재 내과  
방준재(의대 63) (718) 768-1264  
200 Prospect Park West Brooklyn NY 11215

Ob & Gynecology  
손광호(의대 59) (718) 963-8533  
760 Broadway Brooklyn NY 11206

Young Il Lee, M.D.P.A.  
이영일(의대 60) (732) 574-0055  
2263 St. George Ave. Rahway NJ 07065

Dai M. Lim, M.D.P.C.  
임대욱(의대 58) (518) 393-7434  
1370 Union St. Schenectady NY 12308

방병기 일반내과  
방병기(의대 67) (609) 799-4644  
9 Schalks Crossing Rd., # 720 Plainsboro NJ 08536

백승원 위장내과  
백승원(의대 73) (732) 744-9090  
1921 Oak Tree Rd. Edison NJ 08820

석창호 위장내과  
석창호(의대 66) (718) 461-6212  
41-81 Kissena Blvd. #27 Flushing NY 11355

Hudson Pain Management  
강창홍(의대 67) (201) 894-4786  
464 Hudson Terrace #G102 Englewood Cliffs NJ 07632

레이저 전문의료원  
최태식(의대 69) (718)281-1100  
222-15 Northern Blvd. Bayside NY 11361

마취의원  
추재욱(의대 57) (201) 569-6541  
136 Hollywood Ave. Englewood Cliff NJ 07632

김연철 산부인과  
김연철(의대 66) (718) 353-5990  
41-76 Parsons Blvd. Flushing NY 11355

박범철 소아과  
박범철(의대 75) (718) 899-4600  
40-10 70th St. #1st Fl. Woodside NY 11377

의료/안과  
Bernards Professional Center  
김한중(의대 56) 소아과 (908) 766-4660  
150 N. Finley Ave. Basking Ridge NJ 07920

정진우 비뇨기과  
\* 정진우(의대 66) (718) 461-1515  
147-01 41st Ave. Flushing NY 11355

St. James Hospital  
김육현(의대 59) (973) 465-2677  
155 Jefferson St. Newark NJ 07105

Lee Allergy  
이혁범(의대 73) (201) 568-3800  
385 Sylvan Ave. #21 Englewood Cliffs NJ 07632

Thoracic and Cardiovasc. Asso. Inc.  
김자역(의대 69) (304) 343-7576  
2335 Chesterfield Ave. #300 Charleston WV 25304

Personal Touch PM & R. LLC.  
조규홍(의대 60) (516) 783-1577  
250 Pettit Ave. #1 Bellmore NY 11710

곽승용 정신과  
곽승용(의대 56) (718) 273-8052  
2144 Richmond Ave. Staten Island NY 10314

Rockland Psychiatric Center  
선종철(의대 57) (845) 680-8214  
140 Old Orangeburg Road Orangeburg NY 10962

Stan S. Choi, M.D.  
최승용(의대 61) (908) 769-1020  
34-36 Progress St. #B5 Edison NJ 08820

**외과 / 치과**

신영수 치과  
신영수(치대 64) (914) 997-0812  
185 Mapple Ave., #122 White Plains NY 10601

이종의 치과  
이종의(치대 62) (212) 947-4742  
25W. 32St. #601 New York NY 10001

이성길 치과  
이성길(치대 56) (718) 461-2725  
136-30 Maple Ave. #1H Flushing NY 11355

계동휘 치과  
계동휘(치대 67) (718) 898-9049  
49-04 43rd Ave. Woodside NY 11377

박희병 치과  
박희병(치대 63) (718) 939-1144  
136-78 39th Ave. Flushing NY 11354

조황환 치과  
조황환(치대 65) (718) 463-0253  
136-25 Maple Ave. #206 Flushing NY 11355

원도수 치과  
원도수(치대 61) (718) 979-7277  
2799 Hyilan Blvd. Staten Island NY 10306

송재현 치과  
송재현(치대 68) (718) 494-3940  
75-21 Broadway 2FL. Elmhurst NY 11354

**외과 / 약국**

Merrick Chemists  
이승우(약대 63) (516) 378-0119  
131 Merrick Ave. Merrick NY 11566

Ray Drug  
최구진(약대 54) (212) 795-1240  
4061 Broadway New York NY 10032

Raysol Drugs, Inc.  
김문경(약대 61) (212) 348-2117  
1870 Lexington Ave. New York NY 10029

Kopald's Pharmacy  
김성현(약대 56) (718) 823-3443  
700 Morris Park Ave. Bronx NY 10462

Sun Pharmacy  
김영진(약대 67) (212) 695-4232  
29 W. 32nd St. New York NY 10001

Smile Drug  
성기호(약대 57) (718) 358-3800  
150-11 Northern Blvd. Flushing NY 11354

**계좌입**

Jeffrey Allen Corp  
이기영(농대 70) (201) 863-5160  
Metroway Suite 2 Secacus NJ 07074

Jade Eastern Trading, Inc.  
이재람(상대 61) (201) 440-8500  
245 Moonachie Rd Moonachie NJ 07074

**컴퓨터 / 컨설팅**

Hanco Service LLC  
조한수(사대 72) (201) 967-5769  
249 Oradell Ave Paramus NJ 07652

**통로 / 교외**

든든한교회  
김상근 (문리 71) (718) 463-8181  
141-33 33rd Ave. Flushing, NY 11354

**약원**

Cooper Art  
손승덕(미대 77) (201) 886-7275  
2134 N. Hudson St.  
Fort Lee NJ 07024

중앙일보문화센터 (학원/댄스교습)  
진병일(공대 50) (718) 461-2324  
43-27 36th St. L.I.C. NY 11101

조달훈 박사 수학교실  
조달훈(사대 66) (718) 224-6284  
32-25 Bell Blvd. Bayside NY 11361

**안악원**

이수호 한의원  
이수호(보건대학원 61) (718) 353-6207  
136-78 39th Ave. Flushing NY 11354

정영희 한의원  
정영희(간호대 72) (201) 658-8505  
249 Oradell Ave Paramus NJ 07652

**NV 네바다**

**외과 / 치과병원**

Best Care Dental  
김영중(치대 66) 702-384-2828 702-480-7115  
5205S. Durango Dr. #103 Las Vegas NV 89113  
www.bestcaredental.lv.com

**애 오아이오**

Life Management Center  
이영웅(의대 56) (419) 224-1122  
915 W. Market St. #D Lima OH 45805

Charles Sung 수의병원  
성홍환(수의 75) (330) 534-8383  
47 Hall Ave. Hubbard OH 44425

**외과 / 내과 / 전문외**

Yong D. Song M.D. Inc. (산부인과)  
송용덕(의대 57) (740) 353-3196  
1611 27th St. Portsmouth OH 45662

Lancater Radiation  
조철영(의대 68) (614) 566-9506  
401 North Ewing St. Lancaster OH 43130

**OK 아틀랜드**

Deaconess Hospital  
민경환(의대 56) 405-604-4035  
5501 North Portland Ave. Oklahoma City OK 73112

Muskogee Pulmonary Clinic  
이상강(의대 72) 918-687-3994  
615 South 32nd St. Muskogee OK 74

**OR 오레곤**

\* 엘림 한인교회  
최근병(법대 63) 503-231-1625  
6161 SE Stark St. Portland OR 97215

**PA 필라델피아**

이즈미 일식당  
최중문(공대 61) (215) 412-4228  
1222 Welsh Rd. North Wales PA 19454

Timothy Haas & Assoc.  
손재욱(생활과대 77) 484-342-0200  
550 Township Line Rd. Ste. 100 Blue Bell PA 19422

**공인외계사**

Choi & Co., CPA  
\*최환(공대 68) 302-636-9009  
2006 Limestone Rd. #10 Wilmington DE

**금융 / 보험 / 리타일**

More Bank 정홍택(상대 61) 267-251-7260  
900 Valley Rd., #C-201 Elkins Park PA 19027

\* New York Life  
윤경숙(문리 59) (215) 441-3240  
101 Gibraltar Rd. Ste. 150 Horsham PA

**비영리법인 / 리타일 / 잡역**

Jay & CO  
제갈은(문리 59) (215) 887-2337  
4009 Crescent Ave. Lafayette Hill PA 19444

**수의사 / 동물병원**

CHEL-WAYNE Animal Hosp.  
민홍식 (수의 60) (215) 843-5932  
5524 Wayne Ave. Philadelphia PA 19144

Community Animal Hospital  
지홍민 (수의 61) (215) 635-2700  
8023 Old York Rd. Elkins Park PA 19027

Cottman Animal Hospital  
주기욱 (수의 68) (215) 745-9030  
1012 Cottman Ave. Philadelphia PA 19111

youngbaekang@yahoo.com  
강영배(수의 59) (610) 623-8560  
708 Baltimore Ave. EastLandsdowne PA 19050

Community Animal Hospital  
이영민(수의 69) (215) 635-2700  
8023 Old York Rd. Elkins Park PA 19027

**연약장 / 요사업**

August Moon 연희장  
류용진 (상대 59) 610-277-4008  
300 E. Main St. Norristown PA

**의료 / 내과 / 전문외**

Yung Doo Song M.D.  
송영두(의대 56) (215) 342-2015  
6816 Caster Ave. Philadelphia PA 19149

Albert Einstein Medi  
김영남(의대 61) (215) 456-6507  
5401 Old York Rd. Philadelphia PA 19141

Neurology Associates  
배성호(의대 65) (302) 731-3017  
774 Christina Rd. # 20 Wilmington DE 19713

Riddle Memorial Hospital  
삼완섭(의대 67) (610) 891-3321  
1068 W. Baltimore Pike Media PA 19063

Hack R. Chung MD. MPH  
정학양(약대 56) (215) 641-5323  
7170 Lafayette Ave. Fort Washington PA 19034

문대목 정형외과  
문대옥(의대 67) (302) 731-0600  
83 Omega Dr. Newark DE. 19713

**외과 / 약국**

쌍둥이 약국  
허창기(약대 67) (215)-455-2411  
5304 N. 5Th St. Philadelphia PA 19120

**외과 / 치과**

김종규 치과  
김종규 (치대 63) (215) 745 - 6123  
6725 Caster Ave. Philadelphia PA 19149

김국간 치과  
김국간 (치대 64) (215) 224 -2110  
5438 N. Lawrence St. Philadelphia

**TX 유스틴**

**수의사 / 동물병원**

심고 동물병원  
이윤성 (수의 81) (281) 395-4700  
24210 Westheimer Pkwy # 300  
Katy TX 77494

**외과 / 내과 / 전문외**

이진현 산부인과  
이진현(의대 69) (281) 343-5455  
7333 N. Freeway Ste. 260 Houston TX 77076

**검수 / 시험 / 컨설팅**

선박검수  
American Bureau of Shipping  
유한창(공대 69) (281) 877-6473  
16855 Northchase Dr. Houston TX 77060

원유개발 컨설팅  
Lamie Petroleum Inc.  
명인성(공대 50) (832) 722-0075  
3131 Rosemary Park Ln. Houston TX 77082

**장외사**

한국 장외사  
조시호(문리 59) (281) 530-5400  
13430 Bellaire Blvd. Houston TX 77083

**UT 유타**

서비스/여행사 Asia World Travel&Tour  
박종수(공대 60) (801)263-8866  
292 E. 3900 South #4 Salt Lake City UT 84107

**WA 워싱턴주**

**서비스 / 기기**

The Boeing Company  
김재훈(공대 72) (425)373-2858  
PO Box 3707 MC7L-49 Seattle WA 98124

**의료 / 치과 / 클리닉**

김성열 치과 Daniel S. Kim, DDS  
김성열(치대 61) (360)254-5900  
217SE 136th Ave. Suite#101 Vancouver WA 98684

**의료 / 클리닉**

Painless Clinic  
신창범(법대 73) 425-228-7446  
947 Powel Ave. SW Suite 104 Renton WA 98057

**컴퓨터 / 소프트웨어**

Soft Tech International Inc  
유성열(공대 72) (425)643-9662  
13916 SE 47th St. Bellevue WA 98006

**WI 위스콘신**

Gundersen Clinic  
윤준(의대 61) 608-782-7300  
1836 South Ave. La Crosse WI 54601

**“편집후기”**

○...필자(편집주간)가 동창회보용 사진을 혼자 촬영할 때와 달리 다른 동문들과 함께 촬영할 때 사진이 찍히는 분들의 눈길(포즈)은 늘 다른 동문들의 카메라로 집중되곤 한다. 이 경우 필자의 카메라는 거의 외면당하고 만다는 뜻이다. 이번 호 표지 사진이 아주 지나라한 케이스다. 사진을 촬영하기 전 아무리 “이 쪽을 좀 봐주세요” 하고 외쳤으나 공허한 메아리만 되고 말았다. 그 바람에 모든 분들의 시선이 다른 카메라에 쏠려 있을 뿐만 아니라 한 분의 얼굴은 다른 분의 견배 잔에 가려버리는 결과가 초래됐다. 워낙 높은 분들의 모임이라 나중에 다시 포즈를 잡아 달라고 할 수도 없었

고... “오호, 통재라!” 앞으로는 필자의 카메라를 의식해주기 부탁드린다.  
○...보다 나은 회보 편집을 위해서는 관계 인사들 또한 많은 동문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간혹 한 두 동문만의 의견이 마치 동문 대다수의 의사를 대표하는 것처럼 강요되는 경우가 있다. 지양돼야 할 사안으로 이는 적절히 취사선택해야 하지 않을까.  
○...동문들이 글을 보내실 때 되도록이면 e-메일로 보내주셨으면 한다. 아직도 종이에 펜 글씨로 써서 보내주시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이다. 이 원고를 다시 타자해 입력하는 데 시간이 너무 많이 소모될 뿐 아니라 간혹 흘려 쓴 글씨는 오타가 되기 십상이다. 직접 타자하기 어려우면 자녀나 친지한테라도 부탁하면 되지 않을까.\*\*\*

**각 지부 회장단**

남가주	회장	서치원(공대 69입) 310-719-5422 charliesuh49@gmail.com
	차기회장	
북가주	회장	이장우(문리 72입) 408-891-0200 president@snuua-nc.org
	차기회장	
뉴욕	회장	김영만(상대 59입) 201-401-8977 ymkim730@gmail.com
	차기회장	김창수(약대 64입) 212-760-1768 changsookimcpa@hotmail.com
뉴잉글랜드	회장	김병국(공대 71입) 781-367-5993 byunggkim@yahoo.com
	차기회장	
달라스	회장	이 준(공대 73입) 469-235-6196 junelee41@yahoo.com
	차기회장	윤수경(음대 77입) 972-248-8811
특키 마운틴스	회장	표한승(치대 58입) 303-822-9370 303-755-1168 drpyo@aol.com
	차기회장	
미네소타	회장	정은옥(간호대 75입) 763-773-7227 sallykim75@yahoo.com
	차기회장	
샌디에고	회장	서정용(공대 81입) 858-740-4843 cysuh727@gmail.com
	차기회장	
시카고	회장	김영호(의대 71) 708-922-0748 fhcmUSA@gmail.com
	차기회장	
애리조나	회장	오윤환(문리대) yhoh@ratheon.com
	차기회장	
알래스카	회장	윤제중(농대 55입) 907-223-0887 bolt043@hotmail.com
	차기회장	배석현(농대 58입) 907-561-0818
오레곤	회장	이석진(공대 89입) 503-317-5625 seokjin@gmail.com
	차기회장	
오하이오	회장	송원길(의대 58입) 614-378-2918
	차기회장	
워싱턴DC	회장	송상희(문리 71입) 703-483-0801, 503-0864 sanghois@yahoo.com
	차기회장	
워싱턴주	회장	신창범(법대 73입) 425-562-0808 changshin@eschelon.com
	차기회장	
유타	회장	배유한(공대 73입) 801-474-1945 you.bae@ytah.edu
	차기회장	
조지아	회장	박 민(음대 80입) 770-449-0000 minpakhg@yahoo.com
	차기회장	김정호(공대 74입) 770-814-0618 jhkim@noabank.com
중부 텍사스	회장	이명재(상대 59입) 512-591-7739 267-992-1077 yjlee11023@yahoo.com
	차기회장	
필라델피아	회장	주기목(수의 68입) 215-990-8717 kmjoo47@yahoo.com
	수석부회장	김정현(공대 68입) 484-744-6785 dhk064@gmail.com
플로리다	회장	박창익(농대 64입) 954-599-3452 changikpark@daum.net
	차기회장	
캐로라이나	회장	김기현(문리 51입) 919-530-6451 gideon@80square.com
	차기회장	
하와이	회장	김용수(수의 75입) 808-394-2369 ykim@hawaii.edu
	차기회장	
하틀랜드	회장	구명순(간호대66입) 913-268-0228 chungmm@yahoo.com
	부회장	
휴스턴	회장	탁순덕(사대 58입) 713-984-2066 taksoond@yahoo.com
	차기회장	이호성(공대 72입) 281-877-6584 hlee@eagle.org
캐나다 밴쿠버	회장	이광호(농대 62입) 604-250-0181 604-521-3009 khlee614@naver.com
	부회장	조석기(상대 71입) 604-688-4039 서명회(미대 71입) 778-322-7732
캐나다 앨버타	회장	조용희(자연 82입) 403-820-8261 dalhousiedc@hotmail.com
	부회장	

**미주동창회 조직과 임원단**

**서울대 미주 동창회 제11대 회장단 및 임원**

**역대 회장**

박윤수(문) · 감수상(의) · 이병준(상) · 오민석(법) · 이윤락(공) · 오홍조(치) · 이명복(공) · 이진구(농)

명예회장 : 송순영(문)

**제11대 회장 : 김은종(상)**

차기 회장 : 오민환(문)

관후원회 부회장 : 노명호(공)

**집행부 임원**

사무총장 : 성주경(상)  
총무국장 : 백옥자(응)  
재무국장 : 강호석(상)  
사업국장 : 이경희(문)  
설외국장 : 이상대(농)  
강 사 : 김재영(농) · 박명일(농)  
기금모금위원장 : 이종도(공대)  
IT개발위원장 : 김병연(공대)

**회보 임원**

발행인 : 김은종(상)  
상임고문 : 방석훈(농) · 김건진(문)  
편집위원장 : 지민수(상)  
편집주간 : 이기준  
편집위원 : 박양중(문) · 김재영(농) · 나철상(문) · 이종도(공) · 김지영(사) · 김성수(문) · 이원영(문) · 김중하(인문)

**논설위원**

김일훈(CH) · 김기태(LA) · 조동준(LA) · 최용완(LA) · 한창섭(NY) · 백 순(WA,DC) · 육길원(CH) · 이정광(LA) · 정홍택(PA) · 윤상래(MA) · 김환수(NY) · 임승쾌(SF) · 장석정(CH) · 이석구(NY) · 김재환(WA) · 정요진(LA)

**회칙위원회**

위원장 = 서중민(공) · PA  
위원 = 한재은(의) · IL) · 이민연(법) · TX) · 윤상래(수의) · NE) · 김지영(사) · LA) · 신응남(농) · NY) · 함은선(음) · WA)



**Seas Gift**  
**A Tasty Gift From The Sea**  
 Korean Seaweed Snacks are versatile and can be used for a variety of dishes!

- Use it as a garnishment on your favorite dish!
- Try it as a unique pizza topping!
- Tastes great with your favorite soups!
- Excellent topping on your favorite salads!
- Create your own sushi! Just add rice!

Wabi, Washed, Sweet

Jayone  
 Paramount, CA • Ph: 562.633.7400 • Fax: 562.633.7474 • www.jayone.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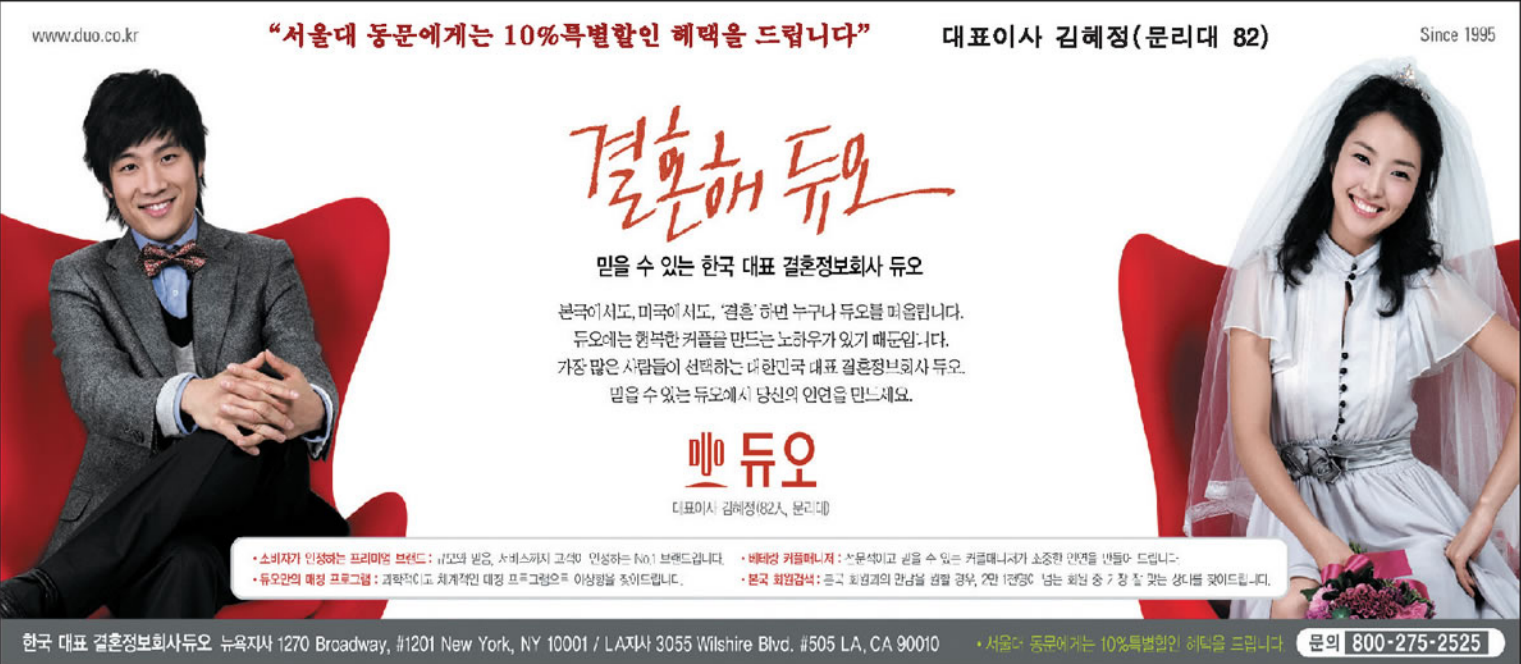


**CAPS UNLIMITED**  
 BRONX'S LARGEST FITTED CAP STORE

**KEVIN B. CHUN** 천병수 (공대 70)  
 kevinbchun@gmail.com / Fax: 718-293-8838

**STORE 1** | 17 East 170th St, Bronx, NY 10452 T. 718-293-7711  
**STORE 2** | 56 East Fordham Rd, Bronx, NY 10468 T. 718-220-0940  
**STORE 3 (MAIN)** | 962 Southern Blvd., Bronx, NY 10459 T. 718-842-8404

www.duo.co.kr "서울대 동문에게는 10%특별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대표이사 김혜정 (문리대 82) Since 1995



**결혼해 듀오**  
 믿을 수 있는 한국 대표 결혼정보회사 듀오

본국에서도, 미국에서도, '결혼' 하면 누구나 듀오를 떠올립니다. 듀오에는 행복한 커플을 만드는 노하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대한민국 대표 결혼정보회사 듀오. 믿을 수 있는 듀오에서 당신의 인연을 만드세요.

**듀오**  
 대표이사 김혜정(82년, 문리대)

- 소비자 인성하는 프리미엄 브랜드 : 굿모닝 밥공, 서비스까지 고객 만족하는 No.1 브랜드입니다.
- 배타권 커뮤케이션 : 전문적이고 믿을 수 있는 커뮤니케이터 소중함 인연을 만들어 드립니다.
- 듀오만의 매칭 프로그램 :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매칭 프로그램으로 이상형을 찾아드립니다.
- 본국 회담감독 : 본국 회담과의 만남을 원활 경유, 2인 1경로 넘는 화남 중 가장 잘 맞는 상대를 찾아드립니다.

한국 대표 결혼정보회사 듀오 뉴욕지사 1270 Broadway, #1201 New York, NY 10001 / LA지사 3055 Wilshire Blvd. #505 LA, CA 90010 • 서울대 동문에게는 10%특별할인 혜택을 드립니다 문의 800-275-2525

**"서울대 미주 동창회의 발전을 축원합니다!"**

**Certified Public Accountant**

**심상구 공인회계사**

**심상구(상대 63)**  
**(618) 257-1788**  
**1600 Lebanon Ave. Belleville IL. 62221**  
**<Missouri>**



**CPA**

www.fivebranches.edu  
Graduate School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 FIVE BRANCHES UNIVERSITY

캘리포니아 한의과 대학, 한의학 전문 대학원

"미국 내에서 대체의학(한의학)을 찾는 환자분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치있는 미래를 지금 준비하세요."

## 캘리포니아 한의과 대학은

- ◆ 28년 전통의 명문
- ◆ 캘리포니아 주 면허시험에서 100% 합격
- ◆ 수업과 면허 시험을 한국어, 영어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OPEN HOUSE

4월 12일 (목)

PM 6:00~8:00

✓ 처음 부속 병원을 방문하신 분들께는 3번까지 무료 참치료 해드립니다.

대전 한의대 부속 둔산 한방 병원에서 2011년 12월 12일부터 인턴 임상실습 시작



- ✓ 입학자격: 대학에서 60학점 이상 이수하신 분
- ✓ 영주권자 학자금과 생활비 용자 가능
- ✓ 주중 저녁시간 및 토요일 수업
- ✓ 거주 최초로 박사 과정(DAOM)을 설립
- ✓ 파트 타임 수강 가능
- ✓ 여름방학에는 중국과 대만에서 임상실습
- ✓ 유학생 비자 발급
- ✓ 겨울방학에는 대전 한의대에서 임상실습

T. (한국어담당) 408.345.2658 / (대표전화) 408.260.0208(교환 209) 박(입)희례 학장 408.345.2659 | 3031 Tisch Way #430 San Jose, CA 95128

1) 중앙일보 IS 동국대학교 Dongguk University 공동 주최



The 1st Oriental Medicine Expo 2012

## 제1회 미주 한의학 박람회

(건강 박람회 & 건강 세미나, 한의사 보수 교육 세미나)

2012. 3. 17 (토) ~ 18일 (일) 오전 10시 ~ 오후 5시 L.A. 로버트 케네디 스크 (Middle School Gym-701 s. catalina st, Los Angeles, CA 90006)



"전미주 명품 한의학을 체험하세요"

### EXPO 주요 내용

#### 프로그램

- 동이보감부터 최신 한방이론까지 한의인의 모든 것
- 양. 아토피, 디스크, 질환 등 건강 무료상담, Aura(기) 사진
- 한방 병. 의원용 의료기기 및 용품 할인판매
- 한방화장품, 약초가공제품 등 관련 제품 전시/할인판매
- 영의가 들려주는 한방건강 이야기 및 강연
- 무료 금연클리닉, 다이어트클리닉, 점액진, 무릎염, 가짐, 진맥, 지압, 혈압체크 상담 체험
- 건강기구, 건강 보조식품 전시/판매
- 척추 디스크, 좌골신경통, 무릎치료 체험
- 한의과 대학 입학 상담

#### 무료 세미나 (45분 강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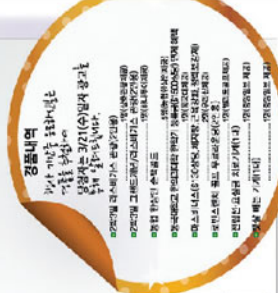
시각(간)	주제(강연 제목)	강사
11:00	해결 어려워? (명인집) 교수	
12:00	중풍관리법 (신영희) 한의사	
1:00	건강에 오래 사는 법은? (김용수) 한의사	
2:00	몸은 어떤데? (명명) 나이지	
3:00	약사 건강 (명명) 강사	

#### 명의 세미나 (유료)

강제	강사(내용)	시간
●	행복의 명	10:00~10:30 (내년 1월)
●	한방의 명	10:30~11:00 (내년 1월)
●	한방의 명	11:00~11:30 (내년 1월)
●	한방의 명	11:30~12:00 (내년 1월)

#### 가주한의학회 주관 한의사 보수교육 세미나

- 장소: 중앙일보 대강당
- 일시: 3월 17일(토) 12:30~10:30PM
- 주제: 김경희(한)·김주희(한)·김경희(한)·김주희(한)·김경희(한)·김주희(한)
- 문의: 213.382.4412



주 최: 1) 중앙일보 IS 동국대학교 Dongguk University

주 관: 가주한의학회 전미주 한의사총연합회

미디어 후원: Joins 오리엔탈

문의: 중앙일보 사면국 213.434.7973 / 213.368.2577 / 213.368.2638